《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였으며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습니다.》

김 정 일

책을 내면서

오늘 선군의 총대아래 강성번영의 만복이 꽃펴나고 인민의 모든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존엄높은 내 조국땅우에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100년대가 거룩히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수령의 력사, 태양의 그 이름으로 장엄히 흘러간 영광의 한세기를 뜨겁게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들의 가슴마다에는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온 크나큰 감격과 격정이 사무치게 굽이치고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지성과 자질, 품격을 갖추신 하늘이 낸 위인이시였다.

돌이켜보면 불의 발견이라는 인류문화의 발상시대와 더불어 창조와 혁신, 진보와 발전의 끊임없는 과정속에 흘러온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마다에는 뛰여난 학문과 지식, 풍부한 지성으로 하여 인류사상사와 사회발전사에 이름을 남긴 사상리론가, 명사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지성의 한계는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부문에 국한된 제한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

화, 력사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넓은 식견과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을 최고의 높이에서 소유하고계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인류가 지금껏 도달한 그 모든 지성과 학문의 경지를 뛰여넘어 단 한 세기속에 자주시대의 전력사를 대표하고 인류지성의 최고 경지를 대표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 다문박식의 위대한 대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해박하신 식견과 인류대백과전서적인 지성의 위대함을 우리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가지가지의 뜻깊은 이야기들과 소중한 추억담, 강령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편집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그 나날들에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사들에게 들려주신 여러 부문의 상식이야기들과 수령님의 식견과 박식을 보여주는 일화들, 자료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묶어 도서 《위인의 식견》(증보판)을 내보낸다.

편 집 부

차 례

1. 심오한 정치적식견

《경애하는 수령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김 정 일

☆ 위대한 명언 ☆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에로 다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를 진정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고 말할수 있다.》

망국은 순간, 복국은 천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리향 2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조국과 고향을 위해 너무도 많은 세월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였습니다. 잃기는 헐해도 찾기는 힘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인디아가 영국의 식민

지로 있다가 200여년만에 독립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300여년, 알제리는 130여년, 스리랑카는 150여년, 웰남은 근 100년만에야 각각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었으니 망국의 대가란 실로 얼마나 비싼것인가.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잃은 설음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 한개라도 더 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고 말해주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국채보상운동

《한때는 우리 민족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눈물겨운 운동까지 벌리였다. 국채란 로일전쟁후 일본에서 꾸어다 쓰고 갚지 못한 1,300만원의 빚을 말한다. 이 빚을 갚으려고 온 나라 남자들이 담배를 끊었다. 고종황제까지도 단연으로써 이 운동에 합세하였다. 녀자들은 반찬값을 아끼고 패물을 내놓았다. 혼수감을 바치는 처녀들도 있었다. 부자집의 상노와 침모, 떡장사, 나물장사, 짚신장사까지도 나라의 빚을 갚느라고 땀에 절은 푼전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동학혁명과 세계사적사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양과 세계정치정세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갑오농민전쟁과 동학혁명의 세계사적사변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학혁명의 의의를 세계적인 판도에서 고찰한 우리 나라의 한 력사가가 20세기에 이르러 세계를 대동란속에 몰아넣은 모든 세계사적사변의 시발이 바로 조선땅에서 일어났던 동학혁명에 있었다고 평가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력사가가 조선동학당의 혁명이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치욕의 기록을 남긴 1907년

《1907년은 우리 민족사에 치욕의 기록을 무수히 남긴 비통하고 다사다난한 해였다. 리준이 헤그에서 할복자결한것도 이해이고 고종의 퇴위와 조선군대의 해산이 선포된것도 이해이며 〈정미7조약〉의 체결과 〈차관정치〉의 강행으로 우리 나라 내정권이 모두 일제의 수중으로 넘어간것도 이해였다.》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청일량군간의 전쟁은 없었을것이며 청일전쟁에서 만약 청나라가 승리하였더라면 로씨야가 만주침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것이며 로씨야의 만주침입이 없었더라면 로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며 로일전쟁에서의 로씨야의 패배가 없었더라면 오흥제국이 발칸반도에로 날개를 펼수 없었을것이며 오흥제국의 보스니아와 헤르쩨고비나 병합이 없었더라면 오스트리아와 쓰르비아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것이며 오스트리아와 쓰르비아사이의 전쟁이 없었더라면 제1차 세계대전이 없었을것이며 또 세계대전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로씨야의 로마노브황제의 전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것이고 적색로씨야의 출산을 보지 못하였을것이다, 아! 동학당이여, 너는 간접적으로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되며 로농로씨야의 산모이다라고 한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학사상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동방근대화의 첫걸음을 이렇게 동학으로부터 보았다는데 대하여 분석평가해주시였다.

국제당이 왜 해산되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국제당이 해산되게 된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쏘련(당시)경내에서 국제련합군을 뭇고 활동하던 1943년 5월 국제공산당이 해산

되였다는 소식이 훈련기지에 날아왔다고, 국제당의 해산을 두고 훈련기지에서는 여론이 분분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파쑈와의 대결을 위해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가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던 2차세계대전중에 어떻게 되여 세계혁명의 령도기관으로 20여년동안이나 존재해온 국제당을 해산했는가 하는것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레닌이 국제당을 조직한것은 1919년이라고 하시며 국제당이 해산된 리유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국제당이 해산된데는 두가지 리유가 있었다고 본다. 하나의 리유는 국제당이 세계혁명을 령도해오는 동안 각국에서 진보적정당들과 혁명력량이 충분히 자라나 국제당의 중앙집권적인 령도와 간참이 없이도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의 로선과 힘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는것이다.

국제당이 해산되게 된 다른 하나의 리유는 국제공산당의 존재가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보다 폭넓은 반파쑈련합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장애로 되고있었던 사정과도 관련되여있었다. 2차세계대전당시의 반파쑈련합은 리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새로운 양상의 련합이였다.

이 련합을 형성하고있는 나라들이 파쑈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초리념, 초제도적인 립장은 사회주의국가인 쏘련(당시)과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련합, 공산주의자와 부르죠아우익정객들과의 합작도 가능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사정은 반제를 리념으로, 세계의 공산주의화를 목적으로 하고있던 국제당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국제공산당의 해산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당시 정세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생행로의 첫출발을 도와준 길동무

주체76(1987)년 2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 쏘련아동문학잡지사 주필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학생시절에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정의감이 강하며 진리를 탐구하려는 욕망이 높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은 세계관이 서기 시작하는 학생시절에 책읽기를 특별히 좋아한다, 세계관이 한창 설 때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적인 사회정치서적과 혁명적인 문예서적들은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정치도덕적수양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나도 어린시절에 책읽기를 즐겨하였다, 나는 어렸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조선의 력사와 문화, 지리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였으며 우리 나라 애국명장들의 전기와 그들이 남긴 글도 많이 읽었다, 로씨야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됨에 따라 맑스－레닌주의서적들과 진보적인 사회정치서적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 《공산당선언》, 《사회주의대의》, 《레닌의 일생기》를 비롯한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고리끼의 작품 《어머니》를 비롯하여 《압록강가에서》,《축복》, 《철의 흐름》과 같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소설도 많이 읽었다, 이런 책들은 나의 세계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우리 인민이 포악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비참한 현실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일애국의 뜻을 키우고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였으며 마침내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명언 ☆

《책은 말없는 선생이며 생활의 길동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어린시절에 읽은 책들은 참말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선생이였으며 참된 인생행로의 첫출발을 도와준 길동무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명언 ☆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습니다.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양하신 모스크바류학

주체19(1930)년에 국제당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께 모스크바류학을 권고하였다.

국제당 련락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당신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인데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복과 와이샤쯔, 넥타이, 구두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열어보이며 국제당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재삼 권고하는것인데 그 권고에 응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당 련락원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어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동만에 나가 인민들속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쏘련에 들어가서 흘레브를 먹게 되면 로씨야파가 될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조선에 엠엘파요, 화요파요, 서울파요 하는

파가 많아서 그러지 않아도 가슴아픈데 나까지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수야 없지 않는가, 맑스－레닌주의는 책을 보고 공부할 작정이다라고 대답하시며 모스크바류학을 사양하시였다.

차광수와 박소심을 비롯한 동지들도 토로즈에서 류학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다 꾸려놓고 수령님께 모스크바에 가시라고 권고를 한적도 있었다.

타국의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리론을 탐구할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조선혁명의 혈전의 마당에 몸을 잠그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신 이 장거는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루빨리 구원하고 조국해방위업을 앞당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혁명관의 발현이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라

주체73(1984)년 8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까메룬공화국 국회대표단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이날 대표단단장은 수령님께 이번에 조선에 와서 많은것을 보고 많은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 조선에 와서 현실을 보면 지도방법도 개선할수 있을것이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사실 그때 당시 국가활동과 새 사회건설에서 적지 않은 난문제들을 안고있던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에게 있어

서 옳바른 지도방법을 소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이러한 실태를 한눈에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해로운것은 관료주의이라고 하시면서 단장에게 관료주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더욱 해롭다, 자본주의사회는 개인경리에 기초하고있으므로 국가기관의 관리들이 아무리 관료주의를 부려도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데는 크게 상관없으며 그때문에 기업이 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는 집단경리에 기초하고있으므로 국가기관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게 되고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은 절대로 관료주의를 부려서는 안된다,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뿐아니라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도 관료주의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이나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이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으려면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잘되고있는가 잘못되고있는가 하는것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인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며 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다. 모든 귀중한것들은 다 인민들속에서 나온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많은것을 배울수 있다.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이나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맑스나 레닌이 써놓은 책에서 찾아볼수 없는 귀중한것을 많이 배

울수 있다. 예수를 믿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성경책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귀중한것을 배울수 있을것이다.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이나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은 관료주의를 부릴것이 아니라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옳은 정치를 할수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참으로 이날에 주신 말씀은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걸음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 주체의 원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가르쳐주실수 있는 고귀한 지침이였다.

정녕 선행철학자들의 그 어느 명제에서도, 《만민복지》를 설교하는 그 어느 《성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참다운 인민정치, 인민사랑의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게 된 대표단성원들속에는 희세의 정치원로, 탁월한 령도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찬탄의 목소리가 절로 울려나왔다.

☆ 위대한 명언 ☆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만보산사건》을 조작한 일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1년 7월 일제가 조작한 《만보산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8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만보산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주민들과 중국원주민들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였다. 이통하를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나섰다. 이런 때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농민들을 사촉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국내에까지 파급되여 인명과 재산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리간책략에 솜씨있게 리용한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사람들이 리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조중농민들중에 선각자가 있어 리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분쟁은 간단한 언쟁으로 그치고 그이상 확대되여 서로 마스고 두들겨패는것과 같은 양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을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중인민들사이에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자신께서는 뜬눈으로 밤을 지

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고 하시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있는 두 나라 인민들이 무엇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싸움을 해야 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밑에 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골육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리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해오고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고, 무엇보다도 장춘령사관놈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에 끼여들어 조선사람들의 리권을 《옹호》해나선것부터가 미심쩍었다고, 《토지조사령》과 같은 략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빼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해온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나선것은 사실상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수 있는 하나의 정치만화였다고, 장춘의 《경성일보》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호외를 찍어 조급하게 배포한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고 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한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이렇게 일어난 모든 사태의 변화과정을 과학적으로 종합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을 강점하고 대륙침

략의 기회만을 노리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있다는것을 예측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판단하신대로 일제는 조선농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일제침략군을 만주지방에 증파하였으며 《만보산사건》과 그에 뒤이은 나까무라대위 《실종》사건을 계기로 중일관계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 1931년 9월 18일에는 드디여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열하원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중엽 국제당의 지시로 실행된 모험주의적인 열하원정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시였다.

열하원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북지방의 항일무장부대들이 료서와 열하방면으로 진출하여 동정항일, 실지회복의 구호밑에 열하쪽으로 진격하는 로농홍군부대들과의 련합작전으로 중국관내에 쳐들어가는 일제침략군을 제압한다는것이였다.

국제당이 추구한 이 원정의 전략적목적은 북상동정하는 로농홍군(후에는 8로군)과 서정하는 항일련군부대들이 열하계선에서 합류함으로써 중국관내와 동북지방에서의 항일투쟁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전반적항일운동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나간다는것이다.

그 당시 남만의 1군과 길동지구의 4, 5군, 북만의 3, 6군

☆ 위대한 명언 ☆

《혁명을 하느라면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에는 퇴조기도 없었고 소강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앞에서 동요한적도 없었고 슬픔앞에서 주저앉은적도 없었으며 적의 공격앞에서 피동에 빠진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가 역경앞에서 주저앉았거나 피동에 빠졌더라면 적들은 우리 혁명을 무자비하게 깔아뭉개버렸을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의지와 배짱을 가지고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군 하였습니다.》

등 동북지방의 항일련군부대들은 장춘의 동쪽과 동남부 그리고 동북부지역에 반원호모양으로 분포되여있었다.

국제당의 전략적의도는 이 반원호를 서쪽으로 압축하여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공격하고 열하계선까지 진출함으로써 북상하는 로농홍군부대와 합세하여 중국관내로 쳐들어가는 일제침략군을 타격하자는것이였다.

열하원정은 중일전쟁발발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과 국내혁명운동발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항일운동선상에 큰 손실을 가져다준 하나의 교훈적인 사변이였다.

이 원정은 1930년대 중엽 세계각국에서의 혁명운동방략

이 《국제로선》에 의하여 제기되고있던 정황에서 매개 나라 민족혁명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일반적인 난관이 어떤것이였는가를 반증하는 산 실례이며 구체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자주로선이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고수되고 관철되여왔는가를 보여주는 특기할 력사적사실이였다.

왕명의 모험주의로선의 후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하원정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왕명의 주관주의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로선을 비판하시였다.

열하원정계획이 처음으로 와닿은것은 1936년 봄이였다.

열하에로의 원정계획은 국제공산당의 지령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작성시달한 사람은 왕명이였다.

왕명의 로선에서 주되는 병페는 《국제로선》이란 미명하에 강요된 좌경이였고 중일전쟁발발후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의 로선은 우경으로 떨어졌다.

그가 작성한 모든 지령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국제당의 명의로 하달하는것이였다.

1938년 봄 1군의 부대들은 원정을 개시하자마자 적들의 포위속에서 고전을 겪었고 북만의 여러 군들에서도 많은 정력과 인력, 물력의 소모를 가져오고 실패하였다.

몇해동안 동북혁명에 혼선을 일으키고 무모한 전투와 희생을 강요하던 열하원정은 남만에서는 1938년에 그리고 북

☆ 위대한 명언 ☆

《우경이 공개적인 반혁명이라면 좌경은 은페된 반혁명이고 우경이 암이라면 좌경도 그에 못지 않은 독버섯이다. 우경과 좌경은 혁명이라는 하나의 거목우에 기생하면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 동상이몽하는듯 하지만 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깊이 련결되여있다. 개인이 좌경을 하면 집단을 해칠수 있고 집권당이 좌경을 하면 인민을 잃어 혁명을 망칠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도 고수할수 없다.》

만에서는 1939년에 이르러 막을 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는 혁명의 리치를 무시하고 주관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열매를 선사하지 않는 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국제공산주의청년조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3(1934)년의 9청데행사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우리는 그 당시 국제적인 성격의 기념일들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국제당, 국제공청, 국제로조, 국제농조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들과의 련계에 큰 의의

를 부여하고있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세계각국의 공산당들에 코민테른이라는 국제적인 중앙이 있었던것처럼 만국의 공청들에도 낌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제적중앙이 있었다. 낌은 국제공산주의청년조직의 략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할빈에 가시여 련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조직도 국제공청산하의 조직이였고 모스크바류학을 주선한 단체도 국제당 청년부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던 국제공청조직이였다.

공청의 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속에서는 민족해방투쟁사의 한페지를 당당하게 장식한 훌륭한 혁명가들이 무수히 배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3련발》, 《강차위》(김봉욱), 박길송, 황정해, 김택만, 김충진, 주춘일, 리신순, 김범수, 리동화, 리순희, 박호준 등 무수한 항일영웅들은 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공청의 산아들이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9청데

《9청데란 국제무산청년절이라는 뜻이다.

전세계무산청년들은 1915년에 1차로 이날을 기념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9청데행사를 하였다. 이 기념행사는 중국에서도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하였다.》

공청이 낳은 이름있는 영웅들가운데는 빨찌산지휘관도 있고 지하공작원도 있고 교육자도 있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

주체62(1973)년 2월 8일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동지적사랑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형제간의 사랑, 친우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릴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러나 혁명투쟁에 나선 다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동지들의 사랑이 더 귀중하다고,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고,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 위대한 명언 ☆

《동지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 다시말하여 사상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동지라는 말은 혁명가들사이에 불리우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는 어린시절부터 오늘까지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보다 혁명동지들의 사랑이 더 귀중하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동지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은 15살까지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시며 지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으로써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일제와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시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폐부에 새긴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백두에서 마련된 혁명적동지애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 인민군대안에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갈 심장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단결의 중심은 하나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의 어느 한 대표단과의 담화에서 혁명투쟁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여담삼아 옛말을 하나 들려주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남호두란 말뜻

《만주대륙의 으뜸가는 명승지 경박호의 남쪽호반에는 남호두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 남호두란 호수의 남쪽머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호수의 북쪽호반에 있는 마을은 북호두라고 부른다. 호수로 흘러드는 소자지하물줄기를 따라 상류쪽으로 몇십리 올라가면 깊은 계곡의 어느 한 산탁에 낡은 귀틀집 두채가 있었다. 그 집의 한채가 바로 1936년 2월에 우리가 회의장소로 사용한 집이였다.》

옛날에 몸은 하나이고 대가리가 둘인 뱀이 있었다. 그런데 뱀의 왼쪽대가리는 몸뚱이를 왼쪽으로 끌고가려 하고 오른쪽대가리는 몸뚱이를 오른쪽으로 끌고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뱀은 아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펄썩 땅우에 주저앉고야말았다.

이야기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개 나라가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의 유일적지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혁명조직도 오직 옳바른 지도자를 내세워야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인것만큼 혁명대오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영웅이라고 자처하면서 지도자행세를 하면 혁명조직의 단결을 이룩할수 없고 혁명투쟁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검이 못하는 일을 붓이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의 명언가운데는 검이 못하는 일을 붓이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발간되였던 출판물들인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ㅇ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

주체25(1936)년 12월 1일에 《3.1월간》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3. 1》은 3. 1반일인민봉기를 의미하였다.

《3. 1월간》은 조국광복회기관지로 발간되였으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주필은 기자경력을 가진 리동백동지였다.

《3. 1월간》은 대중정치리론잡지형식을 갖추고 애국애족과 민족대단합에 관한 사상으로 그 내용을 일관시켰다.

매 호에 사론설을 주는외에 《우리 민족 조국광복운동의 새 소식》, 《반일민족혁명전선 각지 승리소식》, 《문답란》, 《조국요문》, 《국제요문》, 《문예란》 등 고정란들을 설정하였다. 《3. 1월간》이 발간되면서부터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 대내기관지 《서광》

주체26(1937)년에 대내기관지로서 발간한 신문이였다.

주간정치신문인 《서광》에는 유격대원들을 위한 정치군사학습자료들이 많이 실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도 《서광》에 발표되였다.

열정적인 문학도였던 김영국동지는 짬만 있으면 시나 소설작품을 창작하군 하였다. 《서광》의 지면에는 그의 작품들이 여러편 실리였다.

《서광》의 2, 3, 4호에는 그의 단편소설이 련재되였다.

> ☆ 위대한 명언 ☆
>
>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그는 《서광》의 주필이였다.

《서광》의 열성필자들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낸 또하나의 인물은 림춘추동지였다.

그는 김영국동지를 도와 《서광》의 편집과 발간에 적극 참여하였다.

○ 대내주간신문 《종소리》

《종소리》는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발간한 대내주간신문이였는데 군정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치군사학습자료들과 교양자료들을 주로 싣군 하였다.

《종소리》의 주필사업은 최경화동지가 담당하였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어려운 신문발간사업을 능숙하게 주관하였다.

최경화동지는 글재주도 뛰여나고 그림도 썩 잘 그리는 보기드문 재사였다.

《종소리》의 삽화는 대부분 그가 직접 그려넣은것이였다.

○ 반일청년동맹기관지 《철혈》

대내의 반일청년동맹기관지 《철혈》은 주체28(1939)년말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발간된 속보형식의 주간신문이였다.

사령부당지부사업과 청년동맹사업을 겸해서 보던 강위룡동지가 《철혈》발간을 맡아하였다.

《철혈》도 《3.1월간》이나 《서광》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료들을 편집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철혈》 첫호에 실린 리을설동지에 대한 소개기사와 날창만으로 적의 신식체스꼬제기관총을 로획한 한 신입대원의 전투담은 그런 긍정자료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다.

군정학습총화를 계기로 발간한 《철혈》특간호에는 학습총화에 대한 기사들과 아울러 새로운 표창제도의 제정소식 같은것도 실어줌으로써 구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하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자본주의사회 저주가》와 《반파벌가》

《김혁은 〈볼쉐비크〉에 자기가 손수 작사, 작곡한 혁명적인 노래들도 이따금 편집해놓군 하였다. 〈볼쉐비크〉에 내보낸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것은 〈자본주의사회 저주가〉와 〈반파벌가〉이다.

〈자본주의사회 저주가〉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착취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노래였고 〈반파벌가〉는 감자도장이나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등에 업혀 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정체를 예리하게 발가놓은 풍자가요였다.》

《후생가외》

주체60(1971)년 8월말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을 몸가까이에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더없이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새 세대들이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설 때 우리 혁명은 완수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옛말을 하나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자에 대한 일화였다.

공자는 B.C. 6～B.C. 5세기에 중국에서 유교를 창시하고 유교교리를 체계화하여 널리 퍼뜨리였다.

어느날 공자가 인생말년에 약 10년간에 걸쳐 유교교리를 선전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자기 고향마을로 오고있었다. 고향마을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고개마루에 올라섰는데 지나가야 할 길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래로 성쌓기놀이를 하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공자라는것을 밝히고 《이녀석들아, 길을 비켜라!》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한 아이가 불쑥 일어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고로 수레가 성을 피해갔지 성이 수레를 피한적이 있는가요?》

공자는 그 말을 듣고 놀라와하면서 그 아이에게 몇살인가고 물어보았다.

아이는 6살이라고 대답하였다.

지금까지 자기 말을 거역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공자는 아연하여 그애의 총명함을 다시 헤아려보려고 《애야, 너의 마을에 사람들이 몇명이나 사느냐?》고 물었다.

그애는 대답대신 《할아버지 눈섭은 몇오리나요?》하고 반문하였다.

☆ 위대한 명언 ☆

《반성은 수치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자신을 리성적으로 재정돈하는 과정이며 완성에로 이끄는 과정이다.》

공자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자기의 눈우에 있는 눈섭이 몇대인줄 모르면서 나에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몇명인가고 물으니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오.》

그애의 영특함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공자는 제자들에게 즉시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후생가외》라고 썼다. 그리고는 《후생가외, 과시 후생이 가외로다》라고 련발하면서 《모래성》을 에돌아갔다고 한다.

《후생가외》란 후에 난 사람이 더 두렵다는 말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알길없어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후생가외》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자기 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는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반제혁명력량을 두려워하고있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을 받으며 군사지휘관들은 공자의 한마디 말도 절대불변의 교리로 되던 그 시기 어린 아이의 당돌한 응변에 공자가 어쩔바를 몰라 두려워한것처럼 반제자주력량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결전에 나설 때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도 불피코 멸망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말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다.

위대한 힘

주체71(1982)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 4월 15일을 맞으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소장과 부인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뜻깊은 그자리에서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은 세계인류와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희세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격정과 환희, 끝없는 매혹과 흠모를 그대로 담아 자기가 직접 쓴 시를 어버이수령님께 읊어드리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의 시랑송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사하다고, 매우 감동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동지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벗들의 사랑과 지지성원속에서 살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고, 자신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동지들의 각별한 사랑과 인민들의 힘있는 지지성원이 있었기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수 있었으며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추억깊은 안색을 지으신채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동지들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맨주먹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32년에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였는데 그때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도 없었으며 국가적후방도 없었다.

그때 우리가 믿은것은 오직 동지들과 인민들뿐이였다.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자체로 총을 한자루한자루 구해가지고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였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를 무어가지고 독립군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일제와 싸웠으며 나라를 해방한 다음에도 오늘까지 근 40년동안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새 사회를 건설하였다.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나는 나라를 해방한 다음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건

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자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한 새 사회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조국해방전쟁때에도 인민들을 믿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웠으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 위대한 명언 ☆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투쟁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찾아낸 혁명의 진리입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나라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국주의자들은 전후에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고 당이 있으며 주권이 있는 한 재더미우에서도 나라를 능히 빨리 복구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전체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켜 100년이 아니라 2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전쟁전보다 더 훌륭하게 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이 모든것은 인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동지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고, 이것은 내가 오랜 혁명투쟁을 통하여 얻은 고귀한 경험이라고 하시면서 당

신이 지은 시에도 있지만 나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긴다고,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과 함께 투쟁하면 언제나 승리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　　종

1950년대 수정주의를 비롯한 기회주의의 대두와 그 반동적본질을 즉시에 간파하신분은 예리한 통찰력과 정확한 분석판단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수정주의의 징후는 이전 쏘련에서 흐루쑈브가 집권하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흐루쑈브는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참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이른바 《새 로선》을 들고나왔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긴장상태의 완화》의 구실밑에 제국주의와 타협하는데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회주의가 큰 나라의 사회주의집권당안에서 대두하였고 혁명적인 언사로 교묘하게 위장되여있은것으로 하여 발생초기에는 그 누구도 그 정체를 가려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많은 나라 당들이 그에 추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가 있기 전에 벌써 쏘련의 대내외정책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실에서 수정주의가 대두하였다는것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드시였다.

☆ 위대한 명언 ☆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 바로 사대주의이며 이 사대주의가 안내하는 길이 매국과 반역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4(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는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을 마련한 근본지침이였으며 동시에 사실상 기회주의의 정체를 가려보지 못하고 그에 추종하는 다른 나라 당들에 울린 경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판단력으로 수정주의, 기회주의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을 제때에 밝히시고 반수정주의, 반기회주의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보루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놓으시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기회주의의 광풍에 휘말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된 오늘 사람들은 수정주의, 기회주의의 반혁명적본질을 제때에 밝혀내시고 반수정주의, 반기회주의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통찰력의 비범성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고있다.

흐루쑈브의 《비밀보고》

주체45(1956)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이전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 참가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당지도자들이 다 가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국제적권위가 높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당대회에 가셔야 《코대》들을 눌러놓을수 있다는 견해도 표명되였다.

여러 정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안가겠다, 무엇때문에 내가 가겠는가, 그놈들이 하는 꼴을 보니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흐루쑈브일당의 정체와 대회에서 연출될 희비극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내리신 결단이였다.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

흐루쑈브일당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연설문까지 검토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대표단의 축하연설문에서 《쓰딸린의 령도밑에》라는 문구를 뺄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대표단이 그런 요구에 응할수는 없었다.

이렇게 시작부터 정상이 아닌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는 이른바 쓰딸린의 《개인미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 보고를 흐루쑈브가 직접 하였다.

그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참가시키지도 않고 저들끼리 비밀회의를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그날밤에야 보고문건을 받아볼수 있었다.

흐루쑈브의 《비밀보고》는 우리 일군들을 통하여 즉시에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시자 우리 당대표단에 즉시 모스크바를 떠나 조국으로 돌아오도록 긴급지시를 주시였다.

대표단이 돌아온 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흐루쑈브의 《비밀보고》를 놓고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쓰딸린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후날 수령님께서는 쓰딸린은 일평생 혁명밖에 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죄가 있다면 혁명을 한것밖에 죄로 될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쓰딸린을 반대한 자체가 벌써 혁명을 반대하는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앞에 사죄하는것이며 나아가서는 그전에 혁명을 한것이 다 잘못이라는것과 같은것이라고, 우리는 흐루쑈브의 궤변에 절대로 맞장구를 칠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원칙적립장을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고 거듭 강조의 말씀을 하시였다.

쓰딸린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그 한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이룩한 업적과 전통을 옹호고수하느냐 마느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하느냐 마느냐 하는 혁명의 원칙에 관한 문제인것이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원인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련쇄적으로 붕괴된 직후인 주체80(1991)년 7월초 뽀르뚜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알바로 꾼할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월 7일에 이어 그 다음날에도 그와의 접견석상에서 오랜 시간 동유럽사회주의붕괴의 원인을 분석해주시였다.

특히 그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데 대하여 심각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떠서고있을 때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사회주의가 앞으로 2세, 3세에 가서는 망하게 된다고 말한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유럽에서 1세들로 말하면 도이췰란드에서는 웰헬름 피크와 울브리히트,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에서는 고뜨왈드, 뽈스까에서는 베루트, 로므니아에서는 데스, 벌가리아에서는 지미뜨로브를 들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당시 트루맨은 《동유럽나라들에서 1세들은 다 오래동안 공산주의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사회주의를 와해시킬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다음 2세, 3세에 가서는 사회

주의를 와해시킬수 있다.》라고 웨쳤다고 하시면서 미중앙정보국은 벌써 그때부터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와해공작을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동유럽에 출현한 사회주의는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념원하는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였다.

그러나 날강도 미제는 인류의 리상사회인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를 와해붕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중앙정보국 초대장관이였던 덜레스가 고안해낸 《대쏘전략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쏘련내부에 혼란을 조성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허위적인 가치관으로 슬쩍 바꾸어놓고 그것을 믿게 하도록 할것. 문학과 연극, 영화, 출판물들이 가장 저속한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고 례찬하게 할것.

부패한 관리들의 전횡을 장려하고 무원칙성과 관료주의, 문서놀음을 미덕으로 찬양하게 하여 국가관리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할것.

야비와 파렴치, 허위와 기만, 술풍과 아편중독, 호상간의 동물적인 공포심, 민족주의, 민족들간의 적대감, 이 모든것을 재치있게 은밀히 부식시켜 만연하게 할것.》

이 《대쏘전략지도서》는 본질에 있어서 힘에 의한 반사회주의전략으로부터 보다 음흉한 유화전략으로의 방향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반공을 전업으로 하는 서방의 가장 로회한 책략가들이 뮨헨의 뒤골방에 모여앉아 《하바드계획》을 주물러냈으며 미국, 도이췰란드, 영국, 프랑스

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400여개가 넘는 각종 《공산주의문제 과학연구쎈터》들이 조직되여 반사회주의악균을 배양서식시키기 위해 광분하였다.

뿐만아니라 1950년대에는 《자유방송》과 《자유유럽방송》이 개설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에 열을 올리였다.

결국 수백년간을 축적해온 서방의 지적 및 물적재부의 거의 전부가 《사회주의사상말살》이라는 하나의 비렬한 목적을 위해 탕진된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반사회주의책동의 악랄성을 단죄하시면서 사회주의운동력사에 심각한 교훈을 남긴 뽈스까, 마쟈르, 체스꼬슬로벤스꼬사태들은 모두 미제의 반사회주의전략의 산물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유럽나라 지도자들은 그때 응당 교훈을 찾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였으나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었다고, 게다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사상공세에 말려들어 사상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당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게 되였다고 가슴아픈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게 되면 망한다고, 이것은 혁명투쟁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꾼할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묵살된 《쎄브》가입요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5(1956)년 이전 쏘련을 방문하시였을 때 우리 정부대표단과 쏘련정부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쏘련측은 회담에서 우리 나라의 《쎄브》가입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자체로 기계를 생산하느라고 하지 말고 저들이 주는 기계로 공업화하라는것, 조선에서 기계공업을 해놓아야 원가가 높아서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쎄브》에 들라고 요구하였다.

《쎄브》에 가입하면 경제건설에서 자립성을 잃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대국에 얽매이게 된다는것을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히 그들의 제기를 일축해버리시였다.

첫째로; 《쎄브》라는것은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는것인데 유럽나라들은 공업이 발전된것만큼 어느 한 부문을 맡아서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들과 같은 수준에 있지 못하다는것.

둘째로; 우리 나라의 기계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국제분업》에 참가한다면 《쎄브》성원국들에 원료나 대주어야 할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것이란 빈굴뿐이라는것.

셋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럭질하러 돌

아다닐수밖에 없게 될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면 쏘련에도 부담이 될것이라는것. 그러므로 《쎄브》에 들수 없다는것. …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대국주의자들은 그이의 말씀에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 일군들에게 《쎄브》의 해독성을 거듭 깨우쳐주시였다.

☆ 위대한 명언 ☆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자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적독립을 지킬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사실 이 《쎄브》라는것은 리론적으로 볼 때에도 옳지 않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하는 다른 나라들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쎄브》에 가입한다는것은 그 나라에 예속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을 하여 다시 예속될바에야 무엇때문에 혁명을 하겠는가고, 자본주의에 예속되는것이나 사회주의에 예속되는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쎄브》가입을 요구하는 대국주의자들의 속심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통찰력과 그 해독적후과에 대한 그이의 분석판단이 얼마나 현명하였는가 하는것은 《쎄브》에 들었다가 녹아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비극적사태가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가 《쎄브》에 들지 않은것은 천만번 옳았다.

만일 우리 나라가 《쎄브》에 들었더라면 어떤 큰 피해를 입었을지 알수 없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견결한 자주적원칙과 과학적인 선견지명이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그렇듯 복잡다단하고 난관과 시련이 겹쳐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위력하며 자위로 불패인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올수 있었다.

기회주의의 종착점

주체55(1966)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 쏘련의 기회주의가 이르게 될 종착점을 명철하게 예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쏘련사람들은 말로는 흐루쑈브의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흐루쑈브가 하던 행동을 계속하고있다, 즉 입으로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행동에서는 타협하는 로선을 추구하고있으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정간섭을 일삼고있으며 단결을 모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단결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있다, 우리와 친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의 원쑤와 손을 잡으려 하고있으며 웰남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웰남인민의 적과 손을 잡으려 한다, 우리는 절대로 쏘련에 대하여 환상

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쏘련당지도부가 근본문제에서는 여전히 흐루쑈브의 로선으로 걸어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면 필경 쏘련은 어느 길로 나가게 되겠는가, 쏘련이 계속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며 민족리기주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잘해서 사회민주주의적개량주의에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기회주의의 진탕에서 헤여나지 못하는 쏘련의 기회주의의 종착점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멀리 앞을 내다보신 참으로 명철한 예언이였다.

이전 쏘련의 집권자들은 《스웨리예형의 모델》이요 뭐요 하고 사회민주주의적개량주의를 부르짖으며 개혁, 개편놀음을 벌리다가 당도 국가도 사회주의제도도 다 망쳐먹고말았다.

달리는 될수 없는 기회주의의 종착점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20여년전에 내다보신것이다.

시체우에 쓴 글

주체68(1979)년 6월 21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우리 나라에 와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던 노로돔 시하누크와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가시기 위해 역으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하누크를 바라보시면서 큰 나라를 넘겨보며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을 망쳐먹고 나라를 망

하게 한다고 의미깊이 말씀하시였다.

시하누크는 력사적으로 대국들의 희생물로 되여온 캄보쟈의 실정을 헤아려보시고 캄보쟈문제를 캄보쟈인민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도록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어린 눈길로 우러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시하누크에게 지금 대국들이 캄보쟈문제를 해결해줄것처럼 큰소리를 치고있지만 그들의 본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어부지리를 얻어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고 한다, 손을 데보아야 쓰린것을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번 당해보아야 대국들의 진짜 속심을 알수 있다, 자주성이 없이 대국을 따라가게 되면 꼭 망하는 법이다라고 하시면서 뽈스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시하누크는 무척 흥미를 가지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뽈스까의 어느 한 공원에 시체 하나가 나타났다. 어린 아이들이 큰 종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시체우에 올려놓았다.

《나는 쓰딸린시대에 태여나 베루트시대에 자라서 고물까시대에 빌어먹다가 게레크시대에 굶어죽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였다.

그 순간 시하누크의 두눈에 무척 심중한 빛이 어리였다.

베루트, 고물까, 게레크…

시하누크는 그들을 잘 알고있었다. 뿐더러 사대주의에 물젖어 남의 지휘봉에 따라 춤을 추다가 망한 뽈스까의 비극적운명에 대해서도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베루트는 1948년부터 8년간 뽈스까집권당 당수로 있으면서 자주적으로 번영하는 뽈스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 정치인이였다. 그러나 그의 후임으로 당 제1비서로 된 고물까는 흐루쑈브의 수정주의정책에 편승하여 남의 풍에 놀다가 망하고말았으며 그가 물러난 후 당 제1비서자리를 차지한 게레크는 이전 쏘련에 아부하다 못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까지 빌붙어 구걸질하다가 결국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

☆ 위대한 명언 ☆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야 하며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합니다. 중도반단함이 없이 투쟁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의 인생행로입니다.》

이름모를 사람의 시체우에 어린 아이들이 써놓은 짤막한 글, 그것은 인민들의 운명이 당대시대의 정치인, 국가지도자의 정치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는 의미를 너무도 심각하게 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하누크를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쓴 글은 그들이 쓰딸린시대에 해방되여 베루트시대에는 좀 살았지만 자주성이 없이 쏘련에 맹종맹동한 고물까와 게레크시대에는 빌어먹다 못해 굶어죽는 신세가 되였다는 말이라고,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정치가는 자주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쥬다노브와의 담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스크바에서 대일작전과 관련한 회의가 끝난 다음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당시) 정치국위원 겸 비서로 있던 쥬다노브와 만나 담화하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쥬다노브와의 담화는 당면한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되였다.

그날 쥬다노브는 해방된 조선을 민주주의독립국가로 발전시키자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겠는가 하는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견해를 몹시 듣고싶어하였다.

담화도중에 쥬다노브는 불쑥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사람들이 나라가 해방된 후 몇해동안이면 독립국가건설을 실현할수 있을것 같은가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늦어도 2～3년간이면 해낼것이라고 대답하시였다.

그러자 쥬다노브는 두손을 마주 비비면서 기뻐하였다. 그러면서도 전혀 뜻밖이라는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쥬다노브가 어째서 해방후 조선의 자주독립국가건설문제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2～3년이라는 대답에 반신반의의 모순된 표정을 지었는가에 대하여 미리 짐작하고계시였다.

그 까닭은 얄따회담에서 전후 조선문제처리에 대한 론의가 벌어질 때 루즈벨트가 신탁통치안이라는것을 들고나

왔기때문이였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밑에 《민주적제도속에서 교육되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였다. 루즈벨트는 1943년 봄에 워싱톤에서 미국무장관, 영국외상 등과 함께 회담할 때부터 조선과 동남아시아나라들은 강대국들의 신탁통치하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고 단련되였다는것과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해나갈수 있는 견실한 지도핵심과 광범한 애국력량이 준비되였고 풍부한 투쟁경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능숙한 조직력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난 쥬다노브는 해방후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이 도이췰란드와 4년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르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해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쏘련

☆ 위대한 명언 ☆

《나라들사이에 령토가 크고작거나 인구가 많고적은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의 정치적지지이다, 쏘련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조선문제가 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은 쥬다노브는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얼마전에 동유럽의 어떤 나라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락후한데다가 전쟁피해가 막심해서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쏘련이 큰 집이 된셈치고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립장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동방과 서방의 차이, 해뜨는 나라와 해지는 나라의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쥬다노브의 말은 동유럽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보다 쏘련을 더 믿는다는것이였다.

그러다나니 그들은 쏘련에 의존하여 쏘련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쏘련사람들이 《아》하면 그들도 《아》했고 지어는 모스크바에 비가 오면 그들도 우산을 들고다닌다고 할 정도로 사대의존이 심했다.

쥬다노브는 그후에도 여러번 수령님을 만났다.

그는 그때마다 크나큰 감동을 받았으며 진심으로 되는 존경을 담아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칭송하군 하였다.

머저리가 아니라 너절한 놈

주체73(1984)년 6월 어느날이였다.

그때 마쟈르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쟈르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와 상봉하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야노쉬는 위대한 수령님께 흐루쑈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는가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자 야노쉬는 자기와 흐루쑈브사이에 있었던 이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오동진의 예심기록문건

《내가 길림에서 공부할 때 오동진은 일제에 의해 체포되였다. 썩 후날 내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려고 간도일대를 돌아다니던 1932년 3월초에 그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간디의 예심기록문건이 2만 5,000페지나 된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랐는데 오동진의 예심기록문건은 무려 3만 5,000페지로서 64책이나 된다고 하였다.》

야기를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어느해인가 야노쉬가 이전 쏘련의 한 휴양소에서 흐루쑈브와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들사이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갔다.

흐루쑈브: 《맑스라는 사람이 왜 세상에 태여났는지 모르겠소.》

야노쉬 : 《예?!》

흐루쑈브: 《그가 태여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거란 말이요.》

야노쉬 :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흐루쑈브: 《맑스는 공산주의학설을 내놓기만 하고 그것을 실현할 과업은 우리들에게 밀어버렸단 말이요. 맑스도 그래, 레닌도 그래, 또 쓰딸린도 그래… 그들때문에 고생하는건 우리밖에 없지 않소.》

야노쉬 : 《하지만 그들모두야 세계가 공인하는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아닙니까?》

흐루쑈브: 《그건 다 〈개인미신〉적관념이요.》

야노쉬는 이런 이야기를 마치며 자기는 그때 흐루쑈브가 머리가 좀 잘못된 머저리라고 생각했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흐루쑈브는 머저리가 아니라 너절한 놈이라고 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탄복한 공산당총비서

위대한 수령님과 이전 쏘련공산당 총비서사이에 단독회담이 진행된 주체55(1966)년 12월에 있은 일이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문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 경제문화교류에 관한 문제, 군사문제 등 다방면적이고 심중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론의되였다.

회담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한 회담이 결속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찌기 외교력사에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쏘련공산당 총비서가 량손으로 책상을 짚고 엉거주춤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의 앞에 놓인 자그마한 수첩을 들여다보았던것이다.

아연해진 사람들의 표정에는 무관심한듯 쏘련공산당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실례이지만 그것이 무슨 수첩입니까, 도대체 그 신기한 수첩속에 무엇이 있기에 면담발언요지도 없이 그 수첩만 놓고 각 방면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도 거침없이 말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푸른색뚜껑의 자그마한 수첩을 그에게 보여주시였다.

쏘련공산당 총비서는 《신기한 수첩》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수첩장에는 삼각표식을 하고 몇글자씩 적은것이 서너줄

되나마나하였다.

총비서는 외교석상이라는것도 잊은듯 위대한 수령님과 수첩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석연치 못해하는 표정을 지은채 걸상에 앉았다.

하긴 그로서는 선뜻 리해가 되지 않을만도 했다. 왜냐하면 그는 회담 첫시작부터 아래일군들이 써준 이삼백페지가 실히 되는 두툼한 발언요지를 번지며 읽어내려갔던것이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그리고 철학문제에 이르는 장시간의 회담 전과정에 아무런 발언요지도 없이 오직 책상우의 손바닥크기만도 안되는 작은 수첩 하나를 놓고 말씀하셨던것이다.

그날 저녁 연회장에서 쏘련공산당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김일성**동지, 당신이야말로 다재다능하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 수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당신같으신 만능의 위인은 처음 봅니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륙과송과 삼과송

《륙과송이라는 말이 6대의 소나무라는 말이라면 삼과송이란 말은 3대의 소나무라는 뜻이다.》

정치사의 일대 기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세워나가심으로써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정책에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해관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이 얼마나 정확히 반영되였는가 하는것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 하나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주체62(1973)년 6월 23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흥시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오른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오시기 위하여 함흥역으로 나오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심상치 않은 소식을 보고드리였다.

그것은 남조선의 박정희괴뢰역도가 그날 오전 10시에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태연하신 자세로 렬차에서 그 자료를 볼수 있도록 통신조직을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렬차에서 박정희괴뢰역도의 《6.23특별성명》이라는것을 보시게 되였다.

그것은 예측하신대로 매국노의 망국영구분렬타령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시오, 그놈이 드디여 꼬리를 드러내놓았소, 그놈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올수 없소, 까마귀가 까치울음소리를 낼수 없단 말이요라고 하시며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일정에 의하면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진행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게 되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연설문에 지금껏 무르익혀오신 조국통일5대방침을 한조항한조항 써넣으시였다.

그날 오후 2시, 박정희역도의 《6.23특별성명》이 나간 때로부터 4시간후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전파를 타고 세계에 울려퍼졌다.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과 남의 련방제실시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대방침!

그것은 민족분렬의 《6.23특별성명》을 일격에 분쇄한 자주적인 통일강령이였다.

이날의 불의의 사태를 처음부터 목격해온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은 너무도 놀라와 군중대회주석단이라는것도 잊은듯 위대한 수령님께 큰소리로 말씀드렸다.

《대단한 연설입니다. 언제 훌륭한 연설문을 작성하시였습니까?》

다른 외국손님들의 반향도 대단하였다.

《렬차로 려행중에 계시던분이 어떻게 그런 연설을 준비하실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은 정치에서 흔히 말하는 단순한 림기응변이 아니라 만사를 꿰뚫어보

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정치사의 일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두고 원쑤들은 아우성치고 세계는 끓어번졌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방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해외교포문제를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보시고 그 해결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을 망국노의 처지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였다.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에게 참다운 조국과 민족적존엄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면서 애국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섰으며 주체34(1945)년 10월에는 재일동포들의 첫 통일전선체인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을 뭇고 민족적권리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엽에 들어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은 여러가지 정치적풍파로 하여 심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와 결탁한 일본반동지배층은 재일동포들의 합법적조직인 재일본조선인련맹을 강제해산시키였으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동화정책을 강화하였고 일본공산당은 국제당의 일국일당제원칙을 기계적으로 받아물

고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싸울것이 아니라 일본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맞장구를 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물젖어있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협애한 《민족주의편향》이라고 하면서 재일동포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섰으며 그들을 극좌적인 모험주의길로 이끌어갔다.

그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일본반동들의 첫째가는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사분오렬될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당시 이러한 정세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아시게 된것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말경이였다.

그때 건지리에 자리잡고있던 최고사령부로 한 재일동포가 찾아왔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보고드리면서 일본공산당에 든 조선사람들이 일본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기때문에 일본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다가는 자기들도 경찰에 붙잡혀갈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선사람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지만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며 일본의 민주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계를 강화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주

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한 민족적애국운동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투쟁방향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떠나보내신 후 당시 베이징에 가있던 일본공산당 서기장 도꾸다 규이찌에게 편지를 보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편지에 조선은 아직 절반땅을 해방하지 못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조선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싸우도록 해야지 일본혁명을 위하여 싸우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일본공산당안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내보내여 그들이 다 자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쓰시였다.

수령님의 편지를 받아본 도꾸다 규이찌는 재일조선인문제와 관련한 자기의 의사를 적은 편지와 함께 수령님의 편지를 사본하여 한통은 쏘련당에 보내고 한통은 중국당에 보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중국당과 쏘련당에서는 도꾸다 규이찌에게 **김일성**동지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다. 중국과 쏘련당의 의견을 받은 일본공산당에서는 재일조선인문제를 다시 토론하고 일본공산당에서 조선사람들을 모두 내보냈다.

그후 애국적민주력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하여 주체적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조직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결성된 총련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보다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인류지성의 격찬

주체61(1972)년 9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작은 옆차대결의 수수한 걸상에 앉으시여 허물없이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차대우에는 그들이 제기한 질문을 타자친 몇장의 문건밖에 아무런 원고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들을 둘러보시며 당신들은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사상의 창시경위를 원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말씀해주시였다.

기자들은 경탄속에 그이의 말씀을 또박또박 받아 적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주체철학의 철학적기초, 새로운 철학적원리를 천명하시는 말씀이였다.

기자들은 인류철학사의 최고정수를 이루는 주체철학의 심원한 원리에 끝없이 매혹되였다.

그들도 맑스-레닌주의철학에 대해서는 알대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전혀 새로운것이였다.

그것은 사람중심의 철학이였다.

사람중심의 철학, 주체철학에는 선행리론을 부정하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따온것도 없었다.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일본《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나라 출판물들에 게재되여 세계에 대파문을 일으켰다.

《주체철학은 세계가 만세로 칭송해야 할 만세, 만만세 철학이다. 주체의 해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신 **김일성**동지는 진정 위대한 인간태양이시다. 그이는 세계에서 태양으로 칭송받으실수 있는 유일한분이시다.》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사상에 대한 인류지성의 응당한 격찬이고 평가였다.

고귀한 지침

주체70(1981)년 11월 8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과 그 일행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깊은 담화석상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시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투쟁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된것은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이 파벌싸움만 하다보니 국력이 약해졌기때문이였다. 그때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속에는 친청파, 친로파, 친일파와 같은 여러 파벌들이 있었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다음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졌는데 민족주의운동자들속에서도 여러 파벌들이 생겼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린접하여있는 중국동북지방에까지 가서 이러저러한 파들을 내오고 파벌싸움을 하였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다음 우리 나라에서도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였는데 초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안에도 파벌들이 많았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는 《상해파》, 《엠엘파》, 《화요파》, 《일월회》, 《북풍회》를 비롯하여 여러 파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을 새겨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다녔다.

> **☆ 위대한 명언 ☆**
>
> 《당안에서 사대주의가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대국을 숭배하는 사대주의당은 반드시 망하고맙니다.》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속에서의 파벌싸움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하였다.

우리는 혁명투쟁을 벌리면서 새 세대 청년핵심들을 묶어세우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그때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처럼 파벌싸움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혁명투쟁을 잘하면 국제당에 찾아가지 않아도 국제당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올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무장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1932년에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다음해인 1933년에 국제당파견원이 우리를 찾아왔다.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핵심을 잘 키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혁명력량을 굳게 단합시킬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핵심을 키우고 그들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도자의 두리에 뭉친 혁

명력량이 자기 지도자를 사랑하고 받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을 시작할 때 함께 투쟁에 나선 청년들가운데서 내가 그중 나이가 어렸다. 그렇지만 우리 동지들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단결하자고 하였다. 그때 우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리는 파벌싸움을 보면서 그에 진절머리가 났다. 우리는 절대로 종파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우리 혁명가들은 하나로 단결되였는데 지금도 굳게 단결되여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당은 강위력한 당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당을 믿고 우리 당은 인민을 믿는다,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핵심들을 가지고있어야 튼튼해질수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우수한 핵심들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튼튼하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복숭아와 망고

우리 당건설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기네통일진보당대표단이 평양에 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2(1993)년 5월 18일 대표단을 접견해주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단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요즘 서방에서 우리들에게 다당제를 강요하고있습

니다.

주석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어떻게 건설하시였습니까? 집권당은 어떻게 건설해야 리상적입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방안을 둘러보시더니 면담탁우에 놓인 복숭아를 손에 드시고 당은 철저하게 복숭아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단장은 의아해하며 복숭아를 넋없이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에 드신 복숭아를 가리키시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해야 혁명과 건설을 잘 해나갈수 있다, 이 복숭아에 비유하면 살은 인민대중이고 씨는 당이며 씨속에 있는 알은 수령과 같다고 하시였다.

단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비유가 하도 신통하여 대번에 리해가 되는듯 연방 머리를 끄덕이였다.

《알겠습니다. 주석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조선의 복숭아와 비슷하게 생긴 씨속이 없는 과일인 아프리카의 망고를 생각하는것 같아 그에게 그렇지만 씨속이 없는 아프리카의 망고처럼 핵이 없는 단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씨속이 없는 망고를 생각하고있던 단장은 수령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데 놀라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복숭아를 들고 혼자소리처럼 되뇌였다.

《씨속이 있는 복숭아와 씨속이 없는 아프리카의 망고…》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설득력있는 몇마디의 말씀에서 당건설사상리론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기쁨에 넘쳐 말씀드리였다.

《주석동지께서 내놓으신 당건설리론이야말로 모든 나

라 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독창적이고 위대한 사상리론입니다.

저는 돌아가면 조선의 복숭아처럼 당을 건설하겠습니다.》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

주체62(1973)년 10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조류는 우리 당안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사람에 비유하면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가진 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안에는 주체형의 피만 있어야지 다른 형의 피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람의 몸에 수혈을 할 때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몸에 맞는 피를 넣어야지 그러지 않고 B형의 피를 넣으면 몸에서 열이 나거나 죽을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혈통을 가진 우리 당안에는 주체형의 피만 흘러야지 그렇지 않고 사대주의형의 피나 수정주의형의 피가 들어오면 우리 당은 혁명적당으로 될수 없으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한사람의 몸에는 오직 한가지 형의 피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의 혁명적당안에는 오

직 하나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외교대표》가 되였던 아이들

해방직후 이전 쏘련무역성에서는 우리 상업대표부 일군들을 위해 연회를 차린적이 있었다.

연회에는 부인들도 초청되였다.

성수가 난 부인들은 치마저고리를 다린다, 화장을 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그런데 한 녀성이 울상이 되여 대표부 책임일군을 찾아왔다.

《저… 젖먹이는 어떻게 할가요?》

《그렇지,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 어쩐다?》

론의끝에 그들은 젖먹이들을 업고가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되여 말못하는 애기들까지 《외교대표》가 되여 연회장으로 떠났다.

얼마후 우리 대표단이 연회장에 나타나자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 일을 알게 된 우리 외무성일군들은 큰일이 났다고 법석 떠들며 나라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어쩌면 그리도 무식한 행동을 할수 있는가고 하였다.

이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되였다.

외무성일군들은 자초지종을 보고드리면서 곧 대표부일군들을 비판하고 주재국 무역성에도 사과를 하겠다고 말

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공식외교대표》가 되였단 말이지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그들의 민족적자존심이 마음에 든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는 우리 풍습대로 아이를 업고간다. 그 배짱이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는 조선사람의 정신이 있다. 우리야 조선사람들이 아닌가!

그이의 말씀을 받고서야 일군들은 그들을 조국에 불러 비판하려던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이미 지시를 떨구었던 본국소환전보문을 취소하였다.

사라져버린 《씨비리의 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어느 한 휴양소를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당시 휴양소에는 흰눈이 덮인 씨비리수림속으로 곰이 기여가는것을 그린 그림이 붙어있었다. 물론 그 그림은 잘 그린것이였다. 그러나 그 그림은 인민군군인들을 교양하는데는 별로 의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께 갔던 일군들에게 이 그림이 국제미술전람회에 나붙었다면 몰라도 우리 인민군대의 휴양소에 붙여서는 인민군전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없다,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는것이 아니

라 바로 우리 나라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다, 그런것만큼 그림을 하나 그려붙여도 인민군전사들이 자기의 향토와 조국의 일목일초를 사랑하도록 교양하는데 필요한 그림을 그려붙여야 한다, 그런데 씨비리수림속으로 곰이 기여가는 그림이나 그려붙여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 우리 나라에는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경치좋은 금강산과 묘향산도 있는데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붙이면 인민군전사들을 교양하는데 좋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언제인가 그때의 일을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공산주의가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살아야지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는 않을것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인민들이 언제나 조국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더우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들과 군인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고 하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당이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을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전법을 창조하였기때문에 우리는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현대적인 무기를 가진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는것, 바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 시종일관 틀어쥐고나가신 항구적인 지침이였다.

주체44(1955)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선전선

동일군들앞에서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연설하시면서 우리가 물론 협애한 민족주의자가 되여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잊어서는 안되며 한폭의 그림을 그려도 우리 인민을 위하여 그리고 한가락의 노래를 불러도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겉보기가 속보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너절하게 일하거나 생활하는것을 새 세대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에게도 그런 습관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들이 자기가 맡은 일도 잘할수 없고 자기 일터도 잘 거두지 않게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에 오기섭이 프로레타리아식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너절하게 하고다니기때문에 그를 비판하면서 로동계급을 모욕하지 말라, 로동계급은 머리도 깎지 않으며 면도도 하지 않고 너절하게 하고다니는 사람들인것이 아니라 비행기와 현대적인 자동차도 만들고 고층건물도 건설하는 세상에서 제일 문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여주었다, 너절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상상태도 좋지 못하며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생활하여야 정신상태도 좋아지고 좋은 제품도 만들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리라고 강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명언 ☆

《령도예술이란 별다른것이 아닙니다. 령도예술이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하고 아래를 장악하며 지도하는 군중지도방법입니다.》

사람과의 사업

주체72(1983)년 6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협의회에서 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은 당일군만이 하는것이 아니라고, 행정경제사업도 사람이 하는것만큼 행정경제일군들도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행정경제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군중을 발동하여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독불장군이라고 아무리 능력있는 일군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혁명투쟁과 건

설사업을 령도하는것은 어느 고전이나 교과서에도 씌여있지 않은 문제이며 내가 50여년동안 혁명투쟁을 령도하여오는 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얻은 혁명의 원리이고 법칙이라고,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사업하면 군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쏘일중립조약에 대한 분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0(1941)년 4월에 체결된 쏘일중립조약에 대하여 이렇게 분석평가하시였다.

일본외상 마쯔오까는 도이췰란드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모스크바에 들려 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체약쌍방이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는것, 호상령토의 보존과 불가침을 존중한다는것, 어느 일방이 제3국과 분쟁상태에 들어가는 경우 중립을 지킨다는것이 이 조약의 골자였다.

일본은 쏘일중립조약을 체결하고나서 그것을 요란스레 광고하였다. 그들은 쓰딸린과 마쯔오까가 만나는 사진을 신문에 실었다.

일본외상이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쏘련사람들과 중립조약을 체결한것은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한것이였다. 일본은 그때 자나깨나 쏘련을 칠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일본과 도이췰란드는 쏘련을 칠 때 서로 합작하기로 밀약하

였으며 우랄을 경계로 하여 쏘련의 광활한 령토를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한쪽씩 차지한다는 분배안까지 짜놓았다.

그런데 국력이 딸리는 일본으로서는 아직 쏘련침공이 시기상조였다. 그래서 남진론이 득세하게 되였다. 동남아시아를 타고앉아 전략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해두었다가 히틀러도이췰란드가 쏘련에 치명상을 입힌 다음 원동으로 쳐들어가 우랄계선까지 단숨에 집어삼키자는것이 일본의 속심이였다.

말하자면 감이 무르익기를 기다려 따먹자는 숙시주의적인 책략이였다.

쏘련과의 중립조약은 이 시간표에 따르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였다.

중립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두달이 지난 후 도이췰란드군이 쏘련을 침공하자 일본은 지체없이 《관동군특별연습》이라는것을 발령하였는데 이것은 대쏘전쟁예령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이 연습때 쏘만국경에 배치된 관동군병력이 2배로 증강됐다고 하니 일본의 속심을 잘 알수 있는것이다.

중립조약체결의 주역이였던 마쯔오까자신이 앞장에 서서 쏘련에 대한 즉시적인 개전을 주장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일본지배층이 얼마나 교활하고 파렴치한자들이였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당시 쏘련은 일본의 책략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제발로 찾아와 평화관계의 유지요, 령토존중이요 하니 일본과 도이췰란드의 합작에 의한 동서협공을 몹시 경계하고있던 쏘련으로서는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 당시 쏘련은 히틀러도이췰란드의 침공이라는 미증유의 대국난을 눈앞에 두고있었다.

서부국경일대에 집결되여있는 도이췰란드군의 대병력이 어느 순간에 밀려들지 모르는 형편에서 씨비리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일본이 중립을 표방한것은 쏘련으로 하여금 동서량면전쟁을 지연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해주었다.

일본의 마쯔오까외상이 모스크바를 떠날 때 쓰딸린이 역에까지 나가서 바래준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쏘도전쟁을 눈앞에 둔 쏘련지도부의 심리상태를 가늠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은 중립조약체결을 계기로 결코 쏘련이 일본의 우방으로 되였다는것을 말하지 않는다, 정세가 긴장할수록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잘해야 한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돌이킬수 없는 착오를 범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윌슨의 《민족자결론》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 토머스 우드로우는 1918년 1월 8일 미국회에 제1차 세계대전종결후의 강화조건으로 《14개조항》이라는 《교서》를 보냈다.

윌슨은 《교서》에서 식민지민족의 주권을 식민지종주국의 요구와 동등하게 중요시하면서 식민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민지국가의 그 무슨 《자치》와 《평화》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들을 통칭하여 《민족자결론》이

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자결론》은 미제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력을 막고 세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내놓은 위선적구호였다고 하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족자결》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다민족국가인 쏘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식민지약소국가인민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는 한편 전패국들을 희생시켜 그 령토를 차지해보려고 획책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패배자의 행각

주체60(1971)년 7월 15일 당시 미국대통령 닉슨의 중국방문계획이 발표되자 세계는 죽가마처럼 마구 끓어번졌다.

《공산중국》을 100년숙적으로 선포하고 대만의 산송장 장개석을 끼고돌면서 끊임없이 반중국소동을 벌려오던 미제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베이징으로 찾아간다니 그럴만도 하였다.

부르죠아언론들은 닉슨을 《평화의 사도》로 극구 찬양하면서 그의 중국방문이 《랭전》으로부터 《평화》에로, 《대결》로부터 《협조》에로의 정책전환으로 된다고 요란스러운 선전깜빠니야를 벌려놓았다.

잇달아 세계는 정치적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렸다. 《해빙기의 도래》요, 《시대의 변천》이요 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반쏘》를 위한 중미결탁이라고 하

면서 중국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손맥을 놓고 나앉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는 아무리 불리한 정세라도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역전시킬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며칠후 8월 6일 평양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한 국가수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면서 닉슨의 중국방문사태의 본질을 명철하게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위대한 혁명적변혁과정을 《힘》으로써 저지시켜보려고 스무해이상이나 무모하게 추구하여온 미제의 중국적대시정책이 마침내 완전히 파산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미제가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의 압력앞에 드디여 굴복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국 닉슨은 지난날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제침략자들이 판문점에 흰기를 들고 나온듯이 베이징으로 흰기를 들고 찾아오게 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닉슨주의》

《<닉슨주의>는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입니다.》

그러시면서 닉슨의 중국방문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이며 미제국주의의 서산락일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하는것이라고, 이것은 중국인민의 큰 승리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격변하는 세계정치정세의 추이와 도처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는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미제의 두목 닉슨의 교활한 술책을 비범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시고 날리신 명중탄이였다.

미국놈들의 《승리》는 순간에 진창속에 구겨박혀 만신창이 되였다.

《세계정세의 지축은 평양에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그 지축을 지팽이다루듯 마음대로 움직이신다.》고 세계가 격찬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외국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새 세계전쟁, 핵전쟁을 반대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을 다그치며 세계인민들을 분렬리간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여 세계를 통치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써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옛날 중국의 증국번이라는 사람이 《이이쯔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은 오랑캐의 힘을 빌어 오랑캐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그런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미제는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사람들을 내세워 아시아나라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나라사람들을 내세워 아프리카나라들을 통제하려고 하며 중근동에서는 중근동나라사람들을 내세워 중근동나라들을 통제하려 하고 유럽에서는 유럽나라사람들을 내세워 유럽나라들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다른 나라들을 등에 업고 살아온 일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은 원래 다른 나라를 등에 업거나 다른 나라의 본을 잘 따는 나라이라고 하시면서 일본의 과학기술은 거의다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모방하여 발전시킨것이다, 일본은 지난날 영국이 한창 세력을 확대할 때에는 영국과 동맹하여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히틀러도이췰란드와 한짝이 되여 아시아를 먹어보려고 하였으며 오늘은 미제와 결탁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 하고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 위대한 명언 ☆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민족의 내부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참한 처지를 면할수 없습니다.》

《갓》정권

주체70(1981)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또고공화국대통령과 담화를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남조선정세와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유명무실한 남조선의 《정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시였다.

남조선《정권》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원조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는 괴뢰정권이다. 비유하여 말하면 남조선《정권》은 옛날 조선사람들이 쓰고다니던 갓과 같다. 갓이라는것은 머리우에 올려놓고 두 끈으로 매놓아야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괴뢰정권을 유지하고있는 두 갓끈가운데서 한끈은 미국이고 다른 끈은 일본이다. 남조선《정권》은 이 두 끈가운데서 미국끈이 끊어져도 거꾸러지고 일본끈이 끊어져도 무너지고만다.

《갓》정권.

참으로 이것은 외세에 의해 유지되고 외세에 매달려 매국배족만을 일삼는 남조선괴뢰정권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고 응당한 귀결이였다.

력사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주체56(1967)년 3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만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상과 큰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사상을 철저히 없애지 못한다면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봉건통치배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싸우기를 싫어하며 사대주의에 빠져 자주성을 잃어버린 때로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은 일본놈들에게 먹히우기까지 하였다.

고구려때에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으며 무장을 하고 외래침략자들과 싸우기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장하고 평시에 늘 훈련되여있었기때문에 싸움마당에 나가면 다 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고구려때에는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혹시 쳐들어왔다가는 다 쫓겨가고말았다. 그리하여 고구려때 우리 나라는 강대한 나라로 이름을 떨쳤다.

☆ 위대한 명언 ☆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굴종사상이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업수이 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입니다.》

그러나 리조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유교사상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과 량반들이 《호무》가 아니라 《호문》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이 무장을 들고 싸우는것을 너절한 일로 여기고 공자왈, 맹자왈 하고 글싸움이나 하는것을 즐기기 시작하였다. 무관들을 내쫓고 문관들이 올라앉아 쓸데없이 봉건유교도덕을 숭상하면서 자기의것은 다 버리고 남의것을 본따는 놀음을 하였다.

글도 한자를 썼고 이름도 남의 나라 이름을 따다 붙이였다.

서울에 궁전을 하나 지어도 다른 나라것보다 더 큰것은 짓지 못하였으며 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에 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고구려때의 좋은 말들은 다 다른 나라에 공물로 바치고 그대신 조그마한 하늘소를 타고다녔으며 무장을 갖추고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하고 갓쓰고 들어앉아 밤낮 시나 읊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한쪽에서는 강도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군비를 늘이면서 한창 싸움준비를 하고있을 때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은 군대도 준비하지 않고 줄곧 이따위짓만 하고앉아있다가 결국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말았다.

그때 만일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좋은 총을 구해다가 정규군을 단 몇만명이라도 꾸려놓았더라면 일제놈들과 얼마든지 싸울수 있었을것이며 그렇게 쉽사리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나시여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체 인민이 다 무장을 하고있기때문에 먹지 못하고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중문경무》정책

주체50(1961)년 5월 28일 전국병기공업부문 당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우리 인민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강도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고말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회의참가자들에게 리조봉건통치배들이 실시한 《중문경무》정책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중문경무》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중문경무》라는 말은 문관을 중요시하고 무관을 경시한다는 뜻인데 리조봉건통치배들은 갓쓰고 하늘소를 타고 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시나 쓰는 문인들을 량반이라고 하며 높은 직위에 올려앉히고 군인들은 천한 사람으로

여기며 높은 직위에 등용하지 않았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이 그런 정책을 쓴것은 인민을 무서워하고 정권을 빼앗길것을 두려워하였기때문이다.

리조최초의 왕이였던 리성계는 무력으로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탈취한 다음 누가 또 무력으로 자기를 내쫓고 정권을 빼앗을가봐 두려워하였다.

그는 인민들이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될수록 군대는 적게 두었으며 군인들을 천시하였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극도로 약화되고 무기 한자루 변변한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였다.

리조때 특히 리조 말기에 와서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이 정권쟁탈에 눈이 어두워 당파싸움만 일삼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았기때문에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먹히우고말았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한 다음 급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썩어빠진 리조봉건통치배들은 현대적공업을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시나 읊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리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그놈들은 5련발총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조선사람들은 화승대밖에 없었다.

화승대라는것은 총에다 화약을 다져넣고 불을 달아서 한방 쏘고는 또 화약을 다져넣고 불을 달아서 쏘고 하는 그런 총이다.

5련발총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화승대를 가지고 어떻게 막아낼수 있었겠는가.

만일 그때 우리 나라에서 병기공업이 발전되여 인민들에게 좋은 무기를 메워줄수 있었더라면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높은 애국적열의를 보지 않았으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무기 하나 만들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말았으며 우리 민족은 수십년동안이나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일장기말소사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중엽에 있은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서간도로 진출하고있을무렵에 국내에서는 일장기말소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 소식이 백두산밀에까지 날아왔다.

이 사건의 발단으로 된것은 신문 《동아일보》가 1936년 8월에 베를린에서 있은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종목의 1등 수상자인 손기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린것이였다. 베를린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의 마라손경기에서 일본선수로 참가한 조선사람 손기정(신의주출신, 당시 서울 양정고보학생)이 1등으로, 남승룡(전남 순천출신, 당시 명치대학 학생)이 3등으로 입상하여 조선민족의 기개를 떨친 이 희소

☆ 위대한 명언 ☆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련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식을 접한 《중앙일보》(사장 려운형)와 《동아일보》(사장 송진우)는 손기정선수가 우승하고 월계관을 쓴 사진을 게재할 때 그의 가슴에 달린 일본국기《일장기》를 말소(지우고)한 신문을 발행하였다.

《중앙일보》의 8월 25일 석간에 이러한 손기정선수의 사진이 나가자 온 민족이 통쾌함으로 법석 끓었다.

이에 노발대발한 총독부당국은 8월 29일 《동아일보》에 무기정간처분을 내리고 그 관계자 11명을 구금하였다.

《중앙일보》도 휴간하고 사장 려운형은 자진사퇴하는것으로써 일제의 폭압에 맞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일장기말소사건을 소개하는 강연을 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 부대의 모든 대원들은 강연을 듣고 《동아일보》편집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립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갑신정변》과 김옥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봉건사가들과 일제어용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되였던 근대부르죠아개혁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께서는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조선의 부르죠아개혁운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것을 여러번 들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이 지도한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개화당이 내놓은 혁신정강중, 인권평등, 문벌페지, 인재등용,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페절을 암시한 독립사상 등은 모두 진보적인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조선력사를 배워주던 선생들은 대체로 김옥균을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학계에서도 오래동안 김옥균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였다, 그가 정변준비과정에 일본사람들의 도움을 받은것이 친일의 표적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것을 공정한 평가라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력사학자들에게 김옥균의 개혁운동에서 인민대중과의 결합에 주의를 돌리지 않은것은 물론 잘못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힘에 의거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친일로 평가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진다, 그가 일본의 힘을 리용한것은 친일적인 개혁을 단행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당시의 력량관계를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개화당의 편에 유리하게

전환시키자는데 있은것이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전술이였다고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의 정변이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개혁파들이 백성들의 힘을 믿지 않고 궁성내부세력에만 의존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고 회고하시였다.

이처럼 봉건사가들과 일제어용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되고 파묻혀있던 《갑신정변》과 김옥균이 비로소 옳바로 해명되고 력사학에서 주체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력사문제들을 주체적으로 고찰하시고 바로잡아주시였기때문이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105인사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17년 가을에 유명한 《105인사건》이라는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105명이나 한꺼번에 일제경찰에 체포된 사건이였다, 일제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선국민회의 성원들이였다, 조선국민회의 조직자였던 나의 아버지도 그때 체포되여 1년나마 감옥생활을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21세기는 아시아중심의 세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과학적인 선견지명과 신비한 통찰력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의 먼 앞날까지도 환히 꿰뚫고계시였다.

언제인가 공화국창건 36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명하고 근면하며 이악한 아시아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아시아사람들이 옛날에는 문명하였다. 그런데 근세에 와서 뒤떨어졌다. 이에 대하여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인디아학자들도 나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옛날에는 아시아사람들이 아주 문명하였는데 지금은 유럽사람들보다 뒤떨어졌다고 하였다.

아시아사람들이 유럽사람들보다 뒤떨어지게 된것은 지난날 아시아나라들에서 봉건세력이 너무 강하였기때문이다. 아시아나라들에서는 봉건세력이 강하다보니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유럽나라들에서 한창 부르죠아혁명을 하고있을 때 아시아나라들에서는 완고한 봉건세력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부르죠아혁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중국에서는 강유위를 비롯한 적지 않은 학자, 정치가들이 19세기 말엽에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따서 부르죠아혁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봉건세력들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아시아사람들은 머리가 좋은데다가 근면하고 이악하며 탐구심이 강하다. 아시아나라들에는 지하자원도 많다. 그렇기때문에 아시아나라들이 정책을 바로세우면 빠른 속도로 발전할수 있다. 나는 아시아나라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한다면 다음세기는 아시아중심의 세기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래일에 대한 과학적예견은 오늘 새 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고도로 장성강화되는 아시아나라들의 눈부신 발전과 세계경제전략구조의 변화과정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2. 비범한 군사적안목

《인류력사는 그 어느 시대에도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군사사상과 령도예술을 한몸에 지니신 군사의 거장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김 정 일

☆ 위대한 명언 ☆

《나는 동지애를 혁명가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인격의 핵이고 도덕적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인간들과 구별하게 하는 하나의 뚜렷한 징표이다.》

전쟁은 힘의 대결,
도덕과 륜리의 대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9월에 있은 동녕현성전투때 구국군사병들이 내버리고간 사충항려단장을 구출하던 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무릇 군대는 상관을 자기 아버지에도 비기고 어머니에게 비기기도 한다. 그러니 구국군은 부모를 사경에 내던지고 도주한셈이다.

나는 그때까지 전쟁일화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효막심한 행실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전투는 일상생활의 연장이며 총화라고 할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성과는 싸움마당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의

생활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법이다. 전투는 그 일상생활의 반영이고 단적인 표현일따름이다.

력사는 도덕적으로 락후한 군대가 승리자의 단상에 오른 전례를 알지 못한다.

히틀러도이췰란드의 나치스군대가 패전의 시궁창에 구겨박힌것도 주요하게는 인륜을 저버리고 무한궤도로 선과미를 짓뭉개버린 도덕적인 패배자들이라는데 있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일본군의 운명이 서산락일로 된 주되는 리유 역시 그 군대의 도덕적부패성에 있었다.

일본은 일본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파렴치한 군대라고 규탄하며 증오하고있는 수십억의 선량한 인민들과 국제적련합군의 포위속에서 질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쟁은 힘의 대결일뿐아니라 도덕과 륜리의 대결이기도 하다.

전쟁행정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도덕자체를 불필요한 치장품으로 여긴다면 그런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오물더미와 같은것이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큰 가마》, 《작은 가마》

《〈큰 가마〉, 〈작은 가마〉라는 말은 원래 장개석의 국민당군대에서 생겨난것이다. 국민당군대에서는 장교만 되면 일반 병사들이 끓여먹는 큰 가마와는 별도로 작은 가마에 별식을 해먹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고있었다.》

《일부당관 천부막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백두산은 군사지형학적견지에서 볼 때 일부당관 천부막개한 천연요새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밝혀주시였다.

일부당관 천부막개란 한사람이 지키는 관문을 천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아군이 지키기에는 유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유격전을 확대하는데서 백두산보다 더 적중한 기지는 없었다. 고려의 윤관과 리조의 김종서도 바로 이 백두산지구를 타고앉아 보국개척의 중임을 수행하였다. 남이장군 역시 백두산부석우에서 천하를 평정할 웅대한 꿈을 꾸었다.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해야 할 지상제일의 보루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꾸리고 국내진출을 강화한다고 하여 지난날 만주땅에서 모처럼 개척해온 활동무대를 버리는 일은 있을수 없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거점으로 삼고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지경을 들락날락하며 종횡무진의 싸움을 벌리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천험의 백두산을 군사적요새로 중시하였을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있는 정신적의미를 또한 특별히 중대시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숭상해온것은 조선민족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높이 솟은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인 동시에 광복거사의 상징으로 되였다.

백두산을 타고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력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수 있고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는 사상은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투쟁이 가져다준 총화이며 응당한 귀결이기도 하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첫 녀성중대

《1936년 4월 만강부근의 수림속에서는 녀성중대의 탄생이 정식으로 선포되였다. 우리는 이 중대를 사령부 직속으로 두고 소대와 분대들을 직접 편성해주었다. 첫 중대장으로는 박록금이 임명되였다.

녀성중대는 우리 나라 군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녀성전투구분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5(1936)년말경에 발표하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행동규범과 준칙을 말한다.

잠행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사명, 지휘관, 병사들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들과 행동준칙들이 자세히 밝혀졌다.

조례의 조항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무어진 진정한 군대임을 밝혔다.

또한 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군대, 옹간애병, 관병일치의 정신에서 군기와 풍기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혁명군대임을 명기하였다.

잠행조례에는 일제와 그 주구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항일전쟁경비로 충당하며 그 일부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한다는 조항, 조선인민혁명군과 협동작전을 하려는 부대들과 본군을 동정하려는 나라와 인민들과의 공동전선을 도모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밖에도 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편제와 각급 지휘관의 임면에 관한 사령부의 권한, 입대자격과 입대 및 탈대절차, 처벌대상에 관한 범위, 기발

과 휘장, 군모의 별도 규정되였다.

잠행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인민의 리익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군민이 하나로 되고 관병이 하나가 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인민이 학수고대하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 위대한 명언 ☆

《유격전쟁은 투사들을 키워내는 용광로였고 군정대학이였다. 이 용광로에서는 순수한 강시만 뽑아냈다. 돌발이나 지주집 외양간에서 굴러다니던 떡쇠도 이 로에만 들어가면 번쩍번쩍하는 강시가 되여나왔다.》

잠행조례를 관통하고있는 기본정신은 사랑이였다. 다시 말하여 인민에 대한 사랑, 병사들에 대한 사랑, 지휘관들에 대한 사랑을 철칙으로 삼으라는것이였다.

결국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는 그 누구를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규칙이나 법문서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 지휘관과 병사들사이를 뜨거운 정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법전, 사랑의 헌장인것이다.

축 지 법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외국대표단과 회담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를 때려부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무쌍한 전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항일유격대는 일제침략군에 비할바없이 적은 인원이였지만 달려드는 일제침략군을 이쪽저쪽으로 끌고다니면서 치군 하였다. 항일유격대는 그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전화의 해 1941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1년은 우리 혁명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지만 세계적판도에서 볼 때에도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해였다고 하시면서 6월에 히틀러군대가 쏘련(당시)을 침공했고 12월에는 일본군의 진주만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되였다. 참으로 1941년은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준 불행한 해였다. 수천년을 두고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땅크와 대포앞에서 형체도 없이 박살나던 수난의 해, 전화의 해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때 백두산동쪽에 있는 일제침략군을 때리는척 하면서 실지로는 백두산서쪽에 있는 적들을 때리기도 하고 반대로 백두산서쪽에 있는 적들을 때리는척 하면서 백두산동쪽에 있는 적들을 때리기도 하였다. 다시말하여 백두산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백두산서쪽에 있는 일제침략군을 족치기도 하고 반대로 백두산서쪽에서 소리를 내고 백두산동쪽에 있는 일제침략군을 족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장구한 기간 일제침략자들과 싸웠다.

그때 항일유격대는 일제침략군을 끌고다니다가 족쳐버릴수 있는 기회만 조성되면 지체없이 족쳐버리고 만일 적들이 수적으로 너무 우세하여 족쳐버리기 힘들면 따라오던 적들을 감쪽같이 떼여버리고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때 적들은 내가 축지법을 쓴다고 하였다. 축지법을 쓴다는것은 땅을 주름잡아다닌다는 뜻이다. 적들이 그때 내가 축지법을 쓴다고 한것은 이곳에 있던 유격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저곳에 나타나거나 또 저곳에 있던 유격대가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곳에도 나타나군 하였기때문이였다.

피실격허의 전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소왕청유격구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원래 나는 왕청에 온 초기부터 유격구사수에만 매달리는 방어일변도의 경향을 반대하였다,

다시말하여 적들의 력량이 분산되였을 때에는 유격대가 힘을 합쳐 적들을 습격소멸하고 적들이 력량을 집결하여 쳐들어올 때에는 반대로 유격대가 력량을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자는것이였다.

이러한 전법을 피실격허의 전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활동해야 근거지도 고수하고 부대의 력량도 보존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다니전술》과 갈지자전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고난의 행군의 간고성에 대하여 들려주시면서 적들의 《다니전술》과 유격대의 갈지자전법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적들은 처음부터 《맹공장추전술》을 썼다. 사납게 공격하고 검질기게 추격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맹렬한 공격에다가 지꿎은 추격을 배합한 전술이였다.

《맹공장추전술》에서 기본은 진드기처럼 검질기게 달라붙어 상대를 못살게 구는 《다니전술》이였다. 일본말로 진드기를 《다니》라고 한다. 《다니전술》은 《토벌대》를 요소마다에 미리 배치해놓고있다가 유격대가 나타나면 치고 또 일단 발견한 유격대는 꼬리를 물고 끝까지 따라가며 소멸한다는 전술이다. 그 전술은 유격대가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줄창 쫓겨다니며 언어맞

다가 기진맥진해서 녹아나게 하기 위하여 고안해낸것이였다. 적들은 서로 교대하면서 얼마든지 쉴수 있었지만 유격대는 쉴짬도 먹을짬도 없이 계속 싸워야 하기때문에 그 간고성이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그때 일을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 병서에 우세한 적의 교대식장거리추격전에 걸려들면 반드시 패하는 법이니 그런 궁지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장수가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고 쓴 대목이 있다, 말하자면 그런 함정에 빠져들면 용빼는 수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함정속에 빠져들었다, 적들이 사처에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떨어질줄 모르는데 정말 야단이였다, 우리는 깊숙이 빠져들어간 함정에서 빠져나올 묘술을 찾아내야 하

○ 알려주신 토막상식 ○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것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하나의 심각한 투쟁이 동반되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였습니다. 초보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나아가서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투쟁이 바로 고난의 행군의 기본내용이였습니다.》

였다, 그래서 궁리해낸것이 갈지자전법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대장들을 부르시여 이제부터 행군로를 갈지자모양으로 잡아나가자, 그리고 굽인돌이마다에 되돌아앉아 지키고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기관총으로 적들을 쳐갈기자, 그래야 일본《다니》를 떼여버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갈지자전법은 눈이 몇길씩 쌓인 만주산지에서 뒤따라오는 적들을 타격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법이다. 그해 겨울은 특별히 눈이 많이 내려서 앞사람이 눈을 다지며 길을 내야만 행군할수 있었다.

적들은 어차피 유격대가 낸 갈지자길을 졸졸 따라오는수밖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전투들을 회고하시면서 오중흡은 행군종대의 맨뒤에서 갈지자모양으로 길이 꺾이는 대목마다 기관총을 휴대한 2～3명의 전투소조를 매복시켰다가 적을 때리게 하였다고, 그리고는 적들이 죽은 놈의 시체를 처리하는 사이에 매복타격조들을 이동시켰다가 적들이 다가오면 다시금 같은 방법으로 소멸하군 하였다고, 적들은 우리가 낸 외통길을 따라왔기때문에 매번 얻어맞는 신세를 면할수 없었다고, 그대신 우리는 주도권을 쥐고 적들에게 련속 강타를 먹일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명언 ☆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입니다.》

가장 악착하고 파렴치한 미일제국주의침략군대

주체72(1983)년 2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나라 정부대표단과의 담화에서 세상에서 가장 악착하고 교활하고 파렴치한 미일제국주의군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구한 기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도 싸워보았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도 해보았기때문에 일본제국주의군대가 얼마나 악착한 군대이며 미제침략군이 얼마나 교활하고 파렴치한 군대인가 하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 그전에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사무라이정신이 골수에 배긴 일본제국주의군대는 우리가 저들의 총을 사용할가봐 죽으면서도 자기의 총을 마사버리군 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자동차를 타고 도망칠수 있는 준비까지 해놓고 싸우다가 저들에게 불리하면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리고 미제침략군은 죽는것이 두

려워 총알받이로 흑인군인들이나 다른 추종국가 군인들을 내세우고 제놈들은 그뒤에 서있군 하였다.

《라와전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일만군경들은 천변만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법에 걸려 꼼짝달싹 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제일 무서워한것은 《라와전법》이였다고 가르치시였다.

적들은 그때 출판물과 내적인 훈령을 통하여 산악지대에서 《라와전》의 함정에 빠지지 말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일단 《라와》에 걸리기만 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수 없다는 공포심리가 일만군경들속에 열병처럼 만연되였다.

《라와전법》이란 조선인민혁명군의 가장 대표적인 유격전법의 하나인 매복전에 대하여 일만군경들이 붙인 이름이다. 《라와》라는것은 라망의 중국식발음인데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빠질 곳이 없는 천라지망 즉 포위망, 함정이라는 뜻이다.

주체25(1936)년말부터 주체26(1937)년초에 이르는 《동기대토벌》에서 패배한 적들은 그때의 《토벌》경험에 대하여 떠들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라와전법》에 걸려서 혼이 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주체26(1937)년 5월호의 만주경찰잡지 《철심》은 혼성려단 군사교관 이시자와가 쓴 《**김일성**빨찌산 기습전에 대

하여》와 《이번 토벌에 대한 소감》 그리고 그후의 좌담회기사 《토벌체험을 이야기하다》 등의 글에서 《라와전법》의 전술적완벽성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빨찌산의 전법은 이번 《토벌》기간을 통하여 보면 대체로 《라와전법》을 쓰고있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글에서는 빨찌산은 우리보다 병력이 적을 때에 이 전법을 쓸뿐아니라 병력이 많을 때에도 이 전법을 쓰는것을 상투적수단으로 삼고있다, 올해 2월 무송현성 서남방 대쟈피거우부근에서 있은 **김일성**빨찌산과의 조우에서 모두가 용전분투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영예의 전사를 한것은 무엇보다도 빨찌산의 전술 《라와전법》에 빠졌기때문이다, 그러한 다른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라와》를 경계할데 대한 경종을 울리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상등의 용병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등의 용병법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병서들에도 강한 적의 예봉은 피하고 교란하여 피로케 만들며 적이 동요하면 드센 공격을 들이대고 적이 퇴각하면 맹렬히 추격하며 강한 적을 약한 적으로, 아군의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것이 상등의 용병법이라고 하였다.

《3광정책》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일전쟁때 일제가 적용한 《3광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중일전쟁때 화북주둔 일본군사령관인 오까무라 야스지가 화북지방의 해방구들을 공격할 때 적용했다는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략탈하는 정책)은 사실상 1920년대의 간도《토벌》에서 벌써 감행되였고 193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유격구들을 초토화하는 본격적인 실천행동으로 그 진면모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닭싸움명절

《한번은 주보중이 운남성의 자기 고향마을에서 성대하게 쇠군 한다는 닭싸움명절을 소개한적도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음력 2월 8일만 되면 새옷단장을 하고 나와 제 집 수탉의 목에 붉은 띠를 매여놓고 닭싸움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닭은 그 지방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되고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지방의 선조들은 닭을 기르면서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닭을 믿고 가정을 추세운다는 말까지 전해온다고 하였습니다.》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일제가 제창한 《3광정책》과 이른바 《비민분리》를 목적했던 집단부락정책은 알제리의 항쟁세력을 탄압하는 군사작전에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용되였고 웰남땅에서 미군에 의해 더욱 완성되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적의 기도를 꿰뚫어보시고

주체38(1949)년 6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비국의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지금 적 《호림부대》가 양양계선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일군은 종합된 정찰자료를 보고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보고를 심중히 들으시고나서 적 《호림부대》가 양양계선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정찰부대성원들을 내보내여 적들을 소탕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적《호림부대》의 침략기도를 사전에 분쇄할데 대한 그이의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일군은 즉시 전투원들을 파견하여 놈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린제와 양구계선의 큰길을 차단하고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경비대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린 다음 무력을 동원하여 양양계선을 돌파하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였다.

적들의 이러한 음흉한 기도를 예리하게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원들을 양양계선전방에 매복시켰다가 놈

들이 침입해오면 제때에 소멸할데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실로 비범하고 령활한 지략이였다.

적들이 총포사격을 가하면서 당장 달려드는 린제와 양구계선이 아니라 거기에서 100여리나 떨어진 아직은 조용한 양양계선에 매복진을 치도록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비범한 령군술에 일군들은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하신 판단과 예측은 한치의 드팀도 없었다.

적들은 경비무력이 린제와 양구계선에 배치되여있을것이라고 타산하고 며칠후 마음놓고 양양계선에 기여들었다가 말그대로 무리죽음을 당하고말았다.

양양계선에서 섬멸적타격을 받은 적들은 이번에는 《호림부대》놈들에게 보안대옷을 입혀가지고 수색에 동원된 보안대원들처럼 행세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깊은 산악지대를 장악하려고 책동하였다.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일군들은 작전을 어떻게 벌렸으면 좋을지 론의만 거듭했다.

바로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새로운 정황에 대처할 전술적대책을 제때에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적들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강원도의 린제, 양구를 비롯한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유격전》을 벌리려고 하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경비보안처장을 빨리 강원도에 내려보내여 도내무부 보안대와 이미 동원되여있는 경비대와의 협동작전을 기동적으로 벌려 적들을 소멸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전하시고 이끄신 비범하고 령

활한 지략에 의하여 미제와 리승만괴뢰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품을 들여 길러낸 악질적인 적 《호림부대》는 그 더러운 이름만 남기고 모조리 전멸되였다.

주문진해전

주체39(1950)년 6월 30일 저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군사령부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일군에게 동해에서 준동하는 미제침략군의 해군함대를 한번 단단히 답새겨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힘으로 미제의 대형함선들을 요정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본것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아직 그런 전투방안을 연구해보지 못하였다고 사실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대형함선집단을 때리자면 얼마만한 력량이 필요한가고 물으시였다.

해군사령부의 일군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어느 한 나라의 해군전투교범을 례증하면서 중순양함집단에 돌입하자면 적어도 수십대의 비행기와 수십척의 어뢰정들이 합동타격에 참가해야 한다고 자기 견해를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우리 나라에는 아직 어뢰정이 그렇게 많지 못하고 또 해군에 비행기를 줄 형편이 못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놈들이 조선동해에서 마음대로 날

치면서 야수적인 함포사격을 감행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나는 오늘 제2어뢰정대로 미국놈들의 중순양함을 까부실데 대한 명령을 주자고 동무를 불렀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 일군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우리 해군의 제2어뢰정대에는 단 네척의 어뢰정이 있을뿐이였다.

그런데 적의 대형함선집단은 1만 7 000t급의 중순양함 《볼티모》호와 1만 2 000t급의 경순양함, 3 000t급의 원양구축함에 각종 포가 근 200문이나 되고 유생력량도 3 000여명이나 되였다.

그는 정녕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와하는 그를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물론 우리의 해군력량을 다 동원하여도 대비조차 할수 없는 적의 중순양함을 때리라고 하니 놀랄수 있다, 그러나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인민군대는 미국놈들의 원자무기에도 이길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구에 벌어지게 될 대담한 해상공격작전의 령활한 전술방안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놈들이 방심하고있는 약점을 리용하여 중순양함을 까부실데 대한 전술방안을 받아안은 일군은 배심이 든든해지고 신심이 생겼다.

《장군님, 한번 본때있게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고무해주시면서 대담한 공격정신만 가지고있으면 무서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며칠후 우리의 제2어뢰정대 해병들은 주문진앞바다에서 적의 중순양함집단에 대한 대담한 공격전을 단

행하였다.

정황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측하신 그대로였다.

우리 어뢰정대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놈들은 손써볼새도 없었다.

이날 우리 해병들은 적의 1만 7 000t급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1만 2 000t급의 경순양함을 격상시키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주문진해전의 승리는 놈들의 허장성세와 그로 하여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적의 전술적약점을 손금보듯 꿰뚫어보시고 적함대를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단숨에 소멸하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의 령활한 작전과 슬기로운 지략의 빛나는 승리였다.

대전해방작전

대전해방작전은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 3차작전시기 전선서부에서 행동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들이 대전지역에서 미제침략군 24보병사단과 괴뢰1군단관하 부대들을 섬멸한 대포위작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금강계선의 방어가 허물어지게 되자 적들은 청주 남쪽계선에서 악랄하게 저항하는 한편 미제침략군 24보병사단의 전체 력량을 대전주위방어에 집중하였다.

또한 적들은 이미 부산에 상륙한 미제침략군 25보병사단과 1기병사단을 대전방향으로 급히 내몰았다.

전선정황을 살피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론산계선에 진출한 련합부대를 재빨리 대전시 남쪽으로 우회기동시켜 대전—금산, 대전—영동사이의 도로를 각각 차단하는것과 함께 대전의 적을 서쪽으로부터 타격하도록 하시였으며 유성방향에 진출한 보병 및 땅크련합부대들도 대전의 적을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타격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대전지역에서 적을 결정적으로 포위소멸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였다.

론산계선에 진출하였던 련합부대는 주체39(1950)년 7월 18일 저녁 대전 서남쪽으로 우회기동을 개시하였다.

부대들은 하루밤사이에 40㎞의 거리를 이동하여 19일에는 지정된 도로들을 각각 차단하였다.

대전 서북쪽에서 공격하던 련합부대들은 19일 유성을 해방하고 대전 북쪽 5㎞ 지점에 각각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아군련합부대들은 대전지역에서 적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이 시기 서해안을 따라 행동한 아군련합부대는 전주와 김제를 해방함으로써 포위에서 외부전선을 공고히 형성하였으며 청주방향에서 행동한 련합부대는 저항하는 괴뢰군부대들을 소탕하면서 보은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우리의 비행대들은 적군용렬차를 습격하는 한편 적의 증원과 퇴로를 막고 련합부대들의 대전포위작전을 지원하였다.

대전에서 적을 포위한 련합부대들은 포위환을 더욱 좁혀 나중에는 적들을 대전시가의 좁은 지역에 압축한 다음 대전시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7월 20일 새벽 대전 서북쪽에서 보병과 함께 적의 진지를 돌파한 땅크병들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쳤다.

시가에서 더는 저항할수 없게 된 적들은 대전—금산, 대전—영동사이의 도로를 따라 빠져나가려고 발광하였으나 퇴로를 차단하고있던 아군부대들에 의하여 모조리 소멸되였다.

아군련합부대들은 7월 20일 낮 12시 대전시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대전해방작전에서 미제침략군 24보병사단장 띤을 포함하여 2만 4 200여명의 적병을 살상포로하고 150여문의 각종 포, 49대의 땅크, 32대의 비행기, 2만 80정의 저격무기, 10대의 장갑차, 1 000여대의 군용자동차, 수십대의 군용화차 등을 로획파괴하였다.

대전해방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세련된 령군술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대전지역에서 미제침략군의 완전한 괴멸은 놈들이 침략전쟁력사에서 당한 첫 대참패로서 미제의 멸망을 알리는 서막이였다.

실패한 《모범전투》

주체75(1986)년 12월 29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책임일군협의회 참가자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었던 하나의 전투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나라를 단숨에 점령하겠다

고 호언장담했던 미제호전광들의 침략기도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전쟁시작부터 완전히 부서졌다.

이에 바빠맞은 당시 미제침략군 사령관이였던 밴플리트는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작전을 하나 고안해냈다. 그것이 바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밴플리트의 《모범전투》였다.

우리의 방어연선에 대한 저들의 산수적인 타산에 근거하여 제일 약하다고 생각되는 한 고지를 지목한 밴플리트는 면밀한 작전계획밑에 거기에 현대적인 중장갑전투기술기재로 장비한 방대한 무력을 은밀히 집결시켰으며 《공산군을 소멸》하는 《모범전투》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기자들을 많이 모여놓았다.

우리가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전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 오후 5시였다.

작전일군들은 여러가지 작전계획을 세워보았지만 시간이 모자랐다.

다음날 새벽 5~6시경에 적들이 공격하여올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우리의 증원부대들을 적어도 새벽 3시나 4시까지는 전투가 예견되는 지역에 다 도착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부대들이 너무 멀리에 떨어져있었으므로 보통때의 행군속도로 타산하면 증원부대들을 도저히 제시간안에 그 지역에 도착시킬수 없었던것이다.

밴플리트도 바로 그것을 타산했던것이다.

하지만 밴플리트는 오산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음흉한 술책과 기도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꿰뚫어보시고 적들을 일거에 섬

☆ 위대한 명언 ☆

《강한자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한자앞에서는 포악해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입니다.》

멸할수 있는 령활한 전술적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전투원들을 굳게 믿으시고 도보행군명령을 내리시였다. 교활한 적의 두뇌진들은 기동기재를 리용할수 없었던 당시의 환경조건에서 하루밤사이에 아군의 강력한 증강무력이 불의에 전개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서둘러 승리의 쾌재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러한 자만도취와 과대망상증을 옳게 판별하시고 기민하고도 신속한 기동전술로 증강무력을 전개하고 일부 력량을 우회시켜 적들의 배후를 타격하는 전술적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전투명령을 받은 인민군군인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기적같은 강행군속도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부대들이 다어김없이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날 밤에 인민군부대들은 100리이상 되는 거리를 최대의 속도로 달려왔다. 그때 200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온 부대들도 있었다.

이것을 알리없는 적들은 세계의 《보도진》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미친듯이 포를 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적들이 포를 쏘기 시작하자 장거리포까지 동원하여 적진지에 대한 맵짠 타격을 들이대고 적들이 공격할 때에는 일부 력량을 우회시켜 적배후

를 타격하는 전투행동을 벌리였다.

밴플리트의 《모범전투》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졸지에 밴플리트는 패전장군의 신세가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은 우리가 하루밤사이에 몇백리 밖에서 증원부대를 끌어오리라고는 전혀 타산하지 못하고 그저 이미 방어하고있는 적은 력량밖에 다른 부대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밴플리트는 우리의 힘을 몰랐다.

전쟁력사에 기록된 전투부대들의 일반적인 행군속도는 알수 있어도 우리 인민군대의 정신적위력은 알수 없었다.

《크리스마스총공세》를 총반격전으로

미제가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단숨에 점령하겠다고 호언하면서 《크리스마스총공세》를 발광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주체39(1950)년 11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군단을 맡게 된 한 지휘관을 부르시여 놈들의 총공세를 총반격전으로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알려주시면서 그에 맞게 제2전선을 형성하고 적후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다.

총반격전, 그것은 전국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였다.

지휘관은 흥분을 금할수 없어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우리의 총반격전은 언제 시작합니까?》

☆ 위대한 명언 ☆

《싸움이란 결국 지혜와 지혜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신념의 대결, 의지와 의지의 대결, 용기와 용기의 대결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그것은 적들이 새 공격을 개시하는 그때 다시말하여 이달 24일이나 25일경으로 예견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놈들의 기도를 환히 꿰뚫고계시면서 작전승패의 열쇠라 할수 있는 작전날자까지 딱 찍어 알려주시는 그이의 확신에 찬 말씀에 군단장은 천백배로 힘이 솟는것 같았다.

그날이 11월 17일이였다.

그때로부터 한주일이 지난 11월 24일 놈들은 《크리스마스총공세》를 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예견하신 다름아닌 그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인 11월 25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인민군부대들에 총반격전에 진입하도록 명령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선서부의 청천강, 대동강상류지역에서 그리고 전선동부의 장진호반과 그에 잇닿아있는 개마고원의 골짜기들에서 총반격전, 대소탕전이 진행되였다.

멋모르고 정신없이 덤벼치며 공격전에 나섰던 침략자들은 가차없는 징벌을 받고 만신창이 되였으며 《크리스마스총공세》는 불과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총퇴각전으로 되여 38°선 이남에로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이어졌다.

당시의 역전된 정황을 평하면서 서방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11월 24일은 잘못 택한 날자였다. 미군은 이날 총공격을 개시하자마자 다음날로 인민군대의 총반격전에 부딪쳤던것이다. 미군의 총공격날자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인민군대가 그렇게 즉시적으로 반공격을 단행할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인민군최고수뇌의 작전능력에 실로 한계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미군의 총공격날자를 면바로 알아맞힌것도 상상밖의 일이지만 모든것을 빈틈없이 잘 타산한 반공격시간의 선택도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미군의 총공격이 한창 고조에 이르렀을 때 단행된 총반격전은 권투선수가 링에 부딪쳤다가 튕겨나오는 상대방을 맞받아치기 순간강타로 꺼꾸러뜨리는것과 같은 효과를 노린 묘한 전술이였다.

그것은 그대로 완전한 성공이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요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외국대표단과의 담화석상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요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은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였다. 적들은 많은 비행기와 로케트, 함선을 가지고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있는 무기는 정말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

서 승리하였다.

우리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중요한 요인은 첫째로 해방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통하여 당과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었기때문이며, 둘째로 오랜 기간 항일무장투쟁을 벌린 경험있는 지휘관들을 많이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군사지휘관들은 싸움을 아주 잘하였다.

대오안에 변절자가 생긴 후과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강성하던 고구려군대에는 명장 연개소문장군이 있었다.

연개소문이 어떻게나 군대를 잘 훈련주고 싸움을 잘 지휘하였던지 고구려군대를 당하는 군대가 없었다.

그때 고구려를 엿보던 당나라군대는 고구려군대한테 계속 패전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죽고 그의 아들이 군대를 통솔한 때부터 당나라 설인귀는 미인계를 써서 그를 투항시켰다.

투항변절한 연개소문의 아들을 앞세우고 당나라군대가 공격해오는 바람에 기수를 잃은 고구려군대는 료동지방과 봉황성, 집안을 내놓고 마지막에는 평양성까지 적들에게 내놓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이 고구려 말기에 넓은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된것은 연개소문의 아들이 투항변절한것과

☆ 위대한 명언 ☆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을 쉽게 배반하는것은 신념이 없이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불평분자들, 우연분자들, 탐위분자들, 의지박약자들, 행세식운동자들이였습니다.

일을 태공하는 사람들, 임무수행에서 무책임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맡기면 얼굴부터 찡그리면서 이다발, 저다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혁명이다 뭐다 하고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제주머니를 채우느라고 여념이 없는 사람들, 남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서슴없이 만드는 사람들, 거짓말을 식은죽먹기로 하는 사람들, 이런 류형의 인간들도 기회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붉은기를 팽개치고 적진으로 뺑소니를 칠수 있습니다.》

도 관련되여있다.

중국력사에도 대오안에 변절자가 생겨 나라가 망한 실례들이 적지 않다.

명나라가 청나라에 먹히우게 된것도 산해관을 지키고있던 오삼계가 청나라에 변절하였기때문이다. 송나라의 진회라는 사람도 적에게 투항하여 나라와 민족을 금나라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싸움하는 지휘관들속에서 적에게 매수되여 투항하는자가 있으면 군사는 물론 나라의 문도 서슴없이 열어주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일단 유사시에 싸움을 조직지휘하여야 할 당안에 한놈의 이색분자, 투항분자도 끼여들어서는 안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전쟁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9(1950)년 11월 어느날 어느 한 회의에서 연설하시면서 전쟁의 운명은 결코 무기나 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력사적으로 볼 때 혁명군대는 언제나 자기보다 우세한 무기와 기술을 가진 적들과 싸워이겼다고 하시면서 그 실례를 드시였다.

로씨야로동계급은 10월혁명시기 렬등한 무기를 가지고도 최신군사기술로 무장한 짜리군대를 때려부시였다. 10월혁명직후에 붉은군대는 자기보다 몇배나 우세한 무기와 기술을 가진 14개 나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간섭을 물리치고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수호하였다.

중국혁명의 력사를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제2차 국내혁명전쟁때 로농홍군은 정강산의 농촌혁명근거지에서 락후한 무장을 갖춘 몇천명의 병력으로 수십만명을 헤아리는 장개석군대의 토벌을 격파하였으며 항일혁명전쟁시기 팔로군은 렬등한 무기와 적은 병력을 가지고 현대적인 기술로 무장한 수십만의 강도 일제침략군대와 8년간이나 싸워 승리하였다.

그후 중국인민해방군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수백만 대

군을 무장시켜가지고 장개석도당을 반대하는 국내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과거 우리 항일유격대는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엄혹하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100만의 일제관동군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 위대한 명언 ☆

《국력도 총대에서 나오고 민족적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옵니다. 군대가 강해야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도 륭성번영합니다.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이 노예가 됩니다.》

《살수대첩》에 대한 해명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구려인민들이 수나라침략군을 격파한 《살수대첩》에 대하여 옳바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이라는 굳어진 견해는 군사적으로 볼 때 리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그 론거를 명백히 하시였다.

그것은 당시의 기본전선이 료하지방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때의 수나라군대의 기동수단을 가지고서는 기

본전선으로부터 천수백리나 되는 청천강까지 30만 대군을 그처럼 신속히 들이밀수 없다는것이였다.

론거는 명백하고도 정확하였다. 그이후 력사학자들이 기성의 사료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료들을 발굴한데 의하면 수나라침략군을 격파한 살수는 청천강이 아니라 중국동북지방에 있는 소자하라는것이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되였다.

리순신장군과 울돌해전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함을 타고 항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의 바다를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해군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리순신장군과 울돌해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리순신장군은 우리 나라의 해양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울돌해전에서 12척의 병선으로 수십배나 되는 적함선을 격파하고 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그때 거북선이 유명하였다.

거북선은 세계최초의 철갑선이였는데 당시에는 거북선보다 위력한 함선이 없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수군은 거북선을 타고 적진에 대담하게 육박하여 적함선들을 들이받기도 하고 화포집중사격으로 소멸하기도 하였다.

왜적들은 거북선이 나타나기만 하여도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치군 하였다.

당시 왜놈들은 거북선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였으나 끝내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 수군이 울돌해전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리순신장군이 우리 나라 해구와 해양조건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전술을 잘 썼기때문이다.

☆ 위대한 명언 ☆

《죽음은 적아를 가리지 않으며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그 죽음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뿐이다. 한명의 죽음으로 열명을 살리고 열명의 죽음으로 백명을 살리며 백명의 죽음으로 천명을 살리는것이 바로 혁명군대의 죽음이다.》

리순신장군은 300척이 훨씬 넘는 적함대가 밀물때 물길을 따라 우리 나라 수군이 진을 치고있는 울돌해협으로 달려들자 울돌해협의 좁은 골목에서 썰물때를 리용하여 적함대를 족칠 결심을 하고 적들을 깊숙이 끌어들였다.

이것을 알리없는 적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기세등등하여 덤벼들었다.

이때 일부 지휘관들은 적들의 기세에 겁을 먹고 배머리를 돌려 퇴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리순신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적정을 살피면서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 수군이 적지휘함을 비롯한 여러척의 함선을 격침시키자 적들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때 썰물이 시작되였다. 리순신장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군을

총돌격에로 이끌었다.

적들은 달아나려고 하였지만 썰물에 밀리워 좁은 울돌해협에서 미처 빠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이 싸움에서 우리 나라 수군은 12척의 함선을 가지고 30여척의 적함선과 4 000여명의 적들을 바다에 처넣고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나시여 리순신장군은 시도 여러편 썼는데 그가 쓴 시들에는 왜적을 물리치고 조국강토를 지키려는 애국감정이 잘 반영되여있다고, 이처럼 리순신장군은 높은 애국심과 군사적지략을 가진 명장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추운 지방에서 단련된 씨비리사람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래 추운 지방에서 단련된 사람들은 체질이 강하기때문에 싸움을 잘한다고 하시면서 쏘도전쟁시기 추운 지방에서 단련된 씨비리사람들이 싸움을 잘하였다, 모스크바가 도이췰란드군에게 점령당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씨비리지방에서 훈련된 사단들이 맹활동을 벌렸는데 그들은 모스크바를 포위한 도이췰란드군이 강추위에 떨고있을 때 드센 타격을 들이대여 적들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그들은 반공격때에도 퇴각하는 도이췰란드군을 추격하여 베를린까지 들어갔다, 이것은 추운 지방에서 단련된 부대가 전투력이 강하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시였다.

3. 다재다능의 박식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계시며 지어 종교교리에 대하여서까지 잘 알고계십니다.》

김 정 일

☆ 위대한 명언 ☆

《우리는 금부자보다도 쌀부자가 되여야 합니다. 금만 가지고서는 먹고 살수 없습니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도상나라의 어느 한 대표단과 담화를 하시면서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먹을것이 없는 사회는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헌장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가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헌장을 실시하려면 먼저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쌀을 생산하려면 비료와 물이 있어야 한다, 비료와 물은 곧 쌀이라고 말할수 있다, 비료와 물이 없이는 쌀을 생산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구호는 우리가 수십년전에 내놓은 구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주체섬유 비날론

주체72(1983)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서 천생산을 늘이려면 비날론공업을 발전시켜 섬유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날론은 우리 나라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비날론의 기본원료는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만드는 카바이드인데 우리 나라에는 석회석과 무연탄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데트론이나 나이론 같은 화학섬유는 원유를 가공하여 만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섬유문제를 푸는데서 데트론이나 나이론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원유를 사다가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다 세계적인 원유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있다고 심중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비날론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명하고 우리의 기술로 생산하는 주체적인 화학섬유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비날론은 우리 나라의 리승기박사가 발명하였다. 리승기동무는 해방전에 일본에서 비날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론문을 써서 발표하였다. 아마 그 론문이 다른 나라의 이름있는 도서관들에 비치되여있을것이다. 리승기동무는 나라가 해방되자 남조선으로 갔으나 그때 리승만통치배들

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자체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립적인 공업을 건설하려 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예속공업을 건설하려 하였기때문에 리승기동무에게 연구사업조건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리승기동무는 남조선의 혁명조직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올 의향을 여러번 표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데려오도록 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에게 실험실을 꾸려주고 연구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 비날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비날론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여 비날론생산을 공업화할수 있게 되자 우리는 대담하게 결심하고 달라붙어 함흥에 비날론공장을 건설하였다.

비날론은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이미 20여년동안 생산하여온 파악있는 화학섬유이다.

《흰쌀밥》의 유래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다가 자신께서 친히 지으신 《흰쌀밥》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벼를 심기는 하였지만 그때에 흰쌀밥은 왕들만 먹었으며 리조시기에는 리씨왕족만 먹었다고 한다, 그때 왕족들은 재령나무리벌과 연백벌, 호남벌에 벼를 심었는데 그것을 한알

도 남김없이 다 걷어갔다고 한다, 흰쌀로 지은 밥을 처음에는 왕만 먹는다고 하여 《왕밥》이라고 하였으며 리조시기에는 리씨왕족만 먹는다고 하여 《이밥》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흰쌀로 지은 밥을 리씨성을 가진 사람만이 먹는것이 아니라 김씨성이나 박씨성을 가진 사람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다 먹고있다, 나는 흰쌀로 지은 밥을 누구나 다 먹기때문에 이밥이라고 하지 않고 《흰쌀밥》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세도와 특세의 식품이였던 《이밥》은 이렇게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이 즐겨먹는 《흰쌀밥》으로 고쳐졌다.

식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한때 과학자들은 강냉이잡종이름을 호수를 달아 《잡종30호》, 《잡종91호》라는 식으로 짓거나 그저 수자《5－9》, 《5－9－2》라는 식으로 짓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실무일군들조차도 그 이름을 듣고는 강냉이품종을 잘 알수 없어 수첩을 펼쳐들기가 일쑤였다.

주체76(1987)년 8월 어느날 농업과학원의 어느 한 시험포전을 찾으시여 새 품종의 강냉이들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강냉이잡종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기때문에 삭갈려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어떤 나무이름을 쥐똥나무라고 지었기때문에 바로잡도록 하였는데 며칠전에 어느 단위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백당나무라는 나무이름이 씌여져있었다고, 백당이라는 말은 백정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집짐승을 잡는것을 업으로 하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을 가리켜 백정이라고 하였는데 나무이름을 왜 그런 천한 말과 비슷한 말을 골라 짓는지 알수 없다고, 차라리 흰당나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백당나무라고 하니 나무이름이 천하게 들려 좋지 않다고, 식물의 이름을 천한 말로 짓거나 그와 비슷한 말로 짓는것은 무식한 표현이며 아주 옳지 않다고, 과학자들이 식물의 이름을 잘 짓지 못하는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되는대로 짓는것과 관련되여있다고, 식물의 이름을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망탕 짓게 해서는 안된다고 매우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책이 어린 눈길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렀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물의 이름을 잘 짓는것은 그리 힘든 일도 아니라고, 강냉이잡종이름은 호수를 달아 짓거나 수자로 짓지 말고 부르기 좋고 누구나 들으면 인차 알수 있게 《강원호》, 《평남호》, 《평남1호》, 《태평호》, 《태천호》라는 식으로 지방의 이름을 달아 짓는것이 좋다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낮아진 해발고

주체70(1981)년 8월 10일 량강도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량강도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려면 남새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금 량강도에서 통배추와 가두배추, 호무우같은 남새를 심고있기는 하지만 외그루로 심기때문에 도안의 인민들에게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있다고, 량강도에서 남새를 외그루로만 심어가지고서는 긴장한 남새문제를 원만히 풀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주시였다.

량강도에서 통배추를 심으면 서리가 내릴 때에야 먹을수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남새를 먹을수 없다. 량강도인민들에게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자면 박막온실을 만들어야 한다. 시험하여본데 의하면 량강도에서도 박막온실을 만들면 남새를 3모작까지 할수 있다. 박막온실에서 남새를 3모작하면 정보당 200～250t씩 생산할수 있을것이다. 박막온실을 만들면 배추, 도마도, 오이, 가지, 고추같은것을 다 심을수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남새를 먹을수 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량강도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부대들에서도 박막온실을 만들고 남새를 자체

로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박막온실을 1정보쯤 만들고 거기에서 남새를 한 200t씩 생산하고 산나물과 버섯도 뜯어다 보태먹으면 군인들의 부식물문제를 풀수 있다고, 한개 대대에 남새밭을 한 서너정보씩 주어 한정보에는 박막온실을 만들고 두정보에는 통배추를 심으면 군인들에게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해줄수 있을것이라고, 박막온실은 나무로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박막을 씌우면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그후 량강도에서는 해발고가 높고 추운 기후조건에서도 남새온실들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배추, 무우 등 잎남새는 물론 오이, 도마도와 같은 열매남새도 거두어들이는 희한한 전변이 일어났다.

이 경이적인 현실을 목격한 한 외국인사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봤지만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남새를 생산하는것은 처음 본다, 전설적위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이곳의 해발고를 1 000m나 낮추어주신것이나 같다고 놀라와하였다.

간석지개간에 유리한 조선서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간석지를 개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깊은 바다를 내막고 간석지를 개간하지만 우리 나라 서해는 그리 깊지 않다,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처럼 바다를 깊이가 80m 되는데까지 내막는다면 지도에 희슥희슥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다 막을수 있을것이다, 지도에 희슥희슥하게 표시된 부분은 바다깊이가 기껏하여 10～15m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간석지를 개간하는데 필요한 돌도 많다, 어떤 나라에서는 간석지개간에 쓸 돌이 없기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다쓰고있지만 우리 나라에는 돌이 많아 걱정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객토작업》과 흙깔이

《밭에 떼장을 떠다 펴는것을 한때 한자말로 객토작업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밭에 손님흙을 가져다 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객토작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흙깔이라는 말로 다듬어쓰고있는데 흙깔이를 하는것은 밭에 미량원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강철공업의 혁명—초고전력제강법

1980년대 말엽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7개년 계획수행의 장엄한 전투가 힘있게 진행되고있었다.

이 시기 중요 기간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야금공업 특히 강철공업은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고있었다.

어디서나 철과 기계를 요구하였으며 더 많은 강재를 사회주의대건설장들마다에 보내줄것을 절실히 바라고있었다.

이러한 현실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민감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철생산능력이 제한되여있는 종래의 낡은 제강법에 매달려서는 날로 높아지는 강철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는것을 내다보시고 우리 나라의 야금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명철한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주체77(1988)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중요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콕스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버리고 초고전력제강법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초고전력제강법에 의한 강철생산!

장내는 크나큰 격정과 흥분에 휩싸였다.

당시 우리 나라 야금공업에서 콕스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은 절대적인것으로 인정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콕스를 가지고 선철을 만들어 강철

을 생산하는 방법은 낡은 방법이다, 콕스를 가지고 강철을 생산하자면 로만 하여도 해탄로, 소결로, 용광로 하여 세가지 로가 있어야 하며 송풍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큰 부대설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금공업부문에서 콕스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버리고 초고전력제강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초고전력제강법은 전기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야금공업부문에서 초고전력제강법을 받아들이면 콕스를 쓰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콕스탄을 사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나라에서 초고전력제강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고전력제강법을 받아들이는데서 크게 걸릴것은 없다고, 초고전력제강법을 받아들이자면 피치전극과 용량이 큰 변압기,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자동화설비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리가 초고전력제강법으로 강철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피치전극과 용량이 큰 변압기,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동화를 실현할수 있는 설비를 자체로 만들면 우리 나라의 야금공업을 완전히 주체화할수 있다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야금공업의 완전한 주체화, 이것은 남의 원료, 남의 기술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써 완비된 주체적야금공업을 창설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였다.

오늘 나라의 대야금공업기지들마다에 현실로 펼쳐진 초고전력전기로의 도입과 주체철생산체계의 확립은 벌써 20여년전에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천명하신 우리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과학적예지와 비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으며 그 생활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기적적인 신통력

서해갑문건설을 시작할 때의 일이였다.

갑문을 어디에 건설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론의가 분분하였다. 위치를 어디에 정하는가 하는것이 갑문건설과 그 운영관리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이였다.

많은 론의끝에 설계일군들은 대동강하구의 당시 은률군의 압도와 메추리끄리사이를 택하였다. 그들은 즉시 자료를 묶어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제기에 결론을 주지 않으시였다. 일군들과 전문가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이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였다.

그러던 주체70(1981)년 5월 22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남포앞바다로 나가시였다. 친히 갑문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였다.

그이께서 내정하신 갑문위치는 은률군의 끝살뿌리와 피도, 광량만입구사이를 련결하는 선상에 놓이였다.

거기는 남포항에서 무려 40여리나 떨어져있는 날바다였다.

일군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뜻밖의 곳이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였

는지 헤아릴길 없었던 일군들이였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무렵 갑문을 건설할 위치문제를 놓고 누구보다 사색과 탐구를 깊이 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대동강물에 의한 퇴적물의 운반과 침적문제, 바다감탕의 형성과 대동강하구에서의 퇴적문제, 밀물, 썰물현상과 갑문건설과의 관계문제, 갑문건설이 침적현상에 주게 될 영향과 그것이 미치게 될 후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의 갑문건설에서 제기되였던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시였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갑문건설경험은 갑문위치를 잘못 잡으면 바다에서 밀려오는 감탕과 강에서 흘러내리는 퇴적물이 뒤섞여 쌓이면서 갑문운영에 엄중한 후과를 주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압도와 메추리끄리사이는 이미 쌓여진 감탕층이 두터운데다가 감탕퇴적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바다밑이 서로 다른 암반의 단층으로 되여있어서 갑문기초공사도 매우 어려울수 있었다.
물론 압도와 메추리끄리사이를 막으면 공사량은 적어질수 있었다.
그러나 작업량만 가지고 만년대계의 갑문위치를 정할수는 없었다.
마침내 배가 갑문건설예정위치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통히도 대동강과 바다물이 경계를 이루는 곳이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신기한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던것

이다. 마치 자를 대고 줄을 긋기나 한것처럼 대동강물과 바다물의 계선이 뚜렷한데 바다물은 바닥이 들여다보이게 맑고 린접한 대동강물은 흘러내리는 퇴적물로 하여 흐려있었다.

참으로 기적같은 광경이였다.

바로 여기다. 여기에 갑문을 건설하면 감탕퇴적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군들과 전문가들은 억제할수 없는 기쁨과 경탄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시선을 모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토록 드넓은 바다와 강기슭을 살피시다가 만족하신 어조로 갑문위치가 확실히 명당자리이라고 호탕하게 말씀하시였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참으로 명당자리입니다.》

《여기에 갑문을 건설하면 피도를 지탱점으로 하여 공사도 헐하게 할수 있습니다.》

《갑문언제가 륙지와 섬에 의탁하게 되기때문에 그야말로 만년대계의 든든한 구조물로 될수 있습니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연풍호》

《연풍호라는 저수지의 이름도 내가 지어주었습니다. 연풍호라는 말은 해마다 풍년을 가져오는 저수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감탕퇴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였습니다.》

기쁨속에 올리는 그들의 대답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과학적인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기적적인 신통력으로 순간에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의 분출이였다.

조선사람의 장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님을 환대하는것은 조선사람들의 장점이다, 쫓지 않고 재워주는것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풍속이고 인심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비록 남의 묘를 봐주고 살아가는 산당지기의 가문이였으나 우리 집에서는 손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쌀이 없으면 죽솥에 맹물을 한바가지 더 부어서라도 끼니를 마련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의 어머니와 삼촌어머니한테는 거죽에 뜬 멀건물이 차례지군 하였다. 설사 한끼나 두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집안 녀성들은 절대로 시집타발, 신세타발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린시절부터 내 눈에 새겨진 조선민족의 참모습이고 참표상이였다.

괴춤에 동전 한푼 없는 장돌뱅이도 마음만 먹으면 조선팔도를 무전려행으로 죄다 편력할수 있는것이 저 아득한 삼국시대에서부터 전해내려온 우리 나라의 관례였다.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조선의 려염집에서 손님대접을 받

아본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동방례의지국이라고 격찬하였다.

《삼익우》와 《삼손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날 로인들이 즐겨쓰던 《삼익우》와 《삼손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였다.

《삼익우》라는것은 사귀여서 도움이 되는 세가지 리로운 벗이라는 뜻이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문어집》과 《문어방》 그리고 《반도방》

《구일본을 형상한 문학작품들가운데 〈다꼬베야〉란 말이 더러 나오는데 〈문어집〉, 〈문어방〉이라는 뜻입니다. 문어는 돌짬에서 삽니다. 북해도의 토목로동자들은 콩나물시루같은 자기네 합숙을 〈다꼬베야〉라고 불렀습니다. 〈감옥방〉이라고 부르는게 위험하니까 에둘러서 〈문어집〉, 〈문어방〉이라고 한것입니다.

조선로동자들이 드는 막사는 〈반도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도땅에서 온 사람들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꼬베야〉보다 더 한심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여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은 《삼익우》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여도 좋다는것이다.

《삼손우》라는것은 사귀면 손해를 보게 되는 세가지 벗이라는 뜻이다.

즉 편벽한 사람, 착하기는 하나 주대가 없는 사람, 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절　　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고사인 《절류》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시였다.

《절류》라는 말은 버드나무가지를 꺾는다는 뜻으로서 그 고사는 한나라때부터 전해온것이다.

이 고사는 한나라의 도, 읍이 있던 곳 가까이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친우와 리별할 때 언제나 앞날의 행운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버드나무가지를 꺾어주었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리별마당에서 버드나무가지를 꺾어주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였다.

그 고사속의 버들은 아마도 고향을 상징하고있었던것 같다.

갈라지더라도 푸른 버들가지를 보며 자기를 낳아준 고향과 고향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도 그런 고사가 생겨났을것이다.

말사슴과 대마록구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삼지연일대에 찾아오군 하는 말사슴떼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삼지연일대의 이깔나무밑에는 풀이 많기때문에 중국에서 겨울나이를 한 말사슴떼가 여름철이 되면 우리 나라로 넘어오군 한다.

원래 말사슴은 중국 안도현일대에 많이 살고있다. 송화강류역에 말사슴이 많다고 하여 대마록구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다. 대마록구라는 지명은 큰 대자에 말 마자, 사슴 록자를 쓰는데 이것은 말사슴이 많이 사는 골안이라는 뜻이다. 대마록구에는 나무가 없는 풀판이 많기때문에 말사슴이 많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부대가 대마록구를 지나다니군 하였는데 어떤 때에는 말사슴이 70～80마리씩 무리지어 가는것을 보군 하였다.

유격대원들이 행군하다가 말사슴떼를 만나면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몇마리씩 잡아오군 하였다.

서산대사와 묘향산

주체73(1984)년 8월 29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까

메룬공화국 국회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대표단단장은 수령님께 이번에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고 참으로 많은것을 느끼게 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묘향산경치가 이를데없이 아름답고 황홀하다고 경탄의 심정을 그대로 아뢰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당신들이 묘향산의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묘향산은 우리 나라 5대명산의 하나이라고, 우리 나라 5대명산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지리산이라고, 5대명산가운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은 공화국북반부에 있고 지리산은 남조선에 있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묘향산에 깃든 서산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애국적중이였던 서산대사는 5대명산가운데서 묘향산이 제일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하면서 묘향산에서 중으로 살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는 백두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세종대왕

《동명성왕기적비는 리조시기 세종때 세운것이라고 하는데 리조의 력대 왕들가운데서 나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왕은 세종대왕이였습니다. 그는 우리 나라 민족글자인 훈민정음도 만들어냈고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 력대 왕들가운데서 세종대왕을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산은 너무 높아서 올라가보지 못한것 같다. 옛날에는 백두산이 높고 천고의 밀림으로 둘러싸여있어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었을것이다. 지금은 백두산지구에 답사자들을 위한 숙영각들이 꾸려져있다.

서산대사는 우리 나라 5대명산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면서 백두산은 웅장하기는 하나 지나치게 높고 금강산은 아름답기는 하나 웅장하지 못하며 구월산은 아름답기는 하나 너무 작으며 지리산은 웅장하기는 하나 아름답지 못하며 묘향산은 아름답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다고 하였다.

묘향산에서 살던 서산대사는 1592년에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의 승려들에게 우리 나라를 침략한 왜놈들을 반대하는 의병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전국의 수많은 승려들이 그에 호응하여나서자 그는 중들로 의병부대를 무어가지고 평양성탈환전투에 참가하여 큰공을 세웠다. 우리 나라에는 서산대사와 관련한 전설이 많다.

해방후에 고쳐진 이름

해방전 우리 나라에는 《진남포》, 《되다리》라고 불리우는 지명과 다리이름이 있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해방전에 불리우던 《진남포》와 《되다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것이 해방후에는 어떤 이름으로 고쳐지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해방전에 불리우던 《진남포》와 《되다리》라는 이

름은 다 청일전쟁때 나온것이다.

《진남포》란 강도 일본놈들이 남포에 있던 청나라군대를 진압한데서 생긴 이름이며 《되다리》란 평양의 순화강에 있던 다리에서 청나라군대가 녹아나고 되돌아선데서 생긴 이름이다.

이런 이름들은 다 좋지 않은데서 유래된것이기때문에 해방후에 《진남포》는 남포로 고쳤고 《되다리》는 순화강에 다리를 새로 놓은 다음부터 《순화강다리》라고 하였다.

《리조실록》 구출작전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서울이 해방된지 며칠 안되던 주체39(1950)년 7월초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몇 교육일군들이 최고사령부에 도착하였다. 비록 군인들은 아니였지만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군사임무도 반드시 해낼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군사임무》는 참으로 예상밖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나서 《리조실록》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무들을 서울로 파견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들은 귀를 의심하였다.

500여년간의 리조봉건국가의 《정부일지》라고 할수 있

는 《리조실록》이 아무리 귀한것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문화재일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시련을 겪고있으며 우리 민족이 이룩한 모든 귀중한것들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조국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이고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민족의 귀중한 재보를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구원하지 않고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구출하여와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도에 《리조실록》구출로정이 힘있게 그어졌고 전선으로 내달리던 군용차가 수송기재로 돌려졌다. 해당 기관 군부대들에 《리조실록》구출작전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서가 하달되였다.

그리하여 전쟁의 동란속에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먼지속에 나딩굴던 《리조실록》은 드디여 구출되였다.

그후 《리조실록》은 최고사령부 문서고에 보관되였다. 그것은 력사에 류례가 없는 일이였다.

린회석매장지

현지지도의 길로 낮과 밤을 이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해 평안북도의 산간벽지 삭주군의 어느 험한 령길로 승용차를 타고 지나실 때였다.

운전사는 가파로운 고개길로 조심스럽게 승용차를 몰고 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운전사더러 차를 천천히 몰라고 하시면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강냉이비탈밭을 내다보고계시였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차창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윽고 차를 멈춰세우라고 이르시고 그곳 지형을 둘러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찌는듯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땅김이 확확 풍기는 강냉이밭 한가운데로 들어서시여 탐스러운 강냉이이삭을 만져도 보시고 손수 따서 껍질을 벗기시여 알알이 여문 강냉이이삭의 길이며 둘레를 뽐으로 재여보기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무게를 가늠해보시면서 강냉이포기들이 뿌리내린 자갈밭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운전사도 수원들도 모두 영문을 몰라하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수원들을 향하여 여기에 린회석이 매장되여있는것 같다, 비탈밭에 류달리 강냉이가 잘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린성분이 있기때문이라고 확신에 넘치시여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자갈밭의 흙을 한줌 쥐여보시며 여기를 탐사해보라고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그후 탐사일군들이 그곳을 탐사해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린회석이 매장되여있지 않는가. 수많은 탐사대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길로 오고갔고 이고장에서 대를 두고 농사로 늙었다는 농

☆ 위대한 명언 ☆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땅, 물, 비료, 이 세가지 조건만 충분히 갖추어져있으면 어디에서나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장원들도 무심히 스쳐지나던 그 골짜기 돌밭에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린회석이 매장되여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골짜기 비탈밭에서 류달리 잘된 강냉이를 보시고 린회석을 찾아주시였으니 정녕 우리 수령님은 얼마나 놀라운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위인이신가!

《유아등》과 《유화등》

어느해인가 한 단위의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문건을 올리였을 때의 일이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일군들은 문건을 받아안고 설레이는 가슴을 가까스로 눅잦히며 그것을 펼쳐보았다. 그러던 그들은 놀라움에 앞서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중요대목마다 표식을 하시며 보아주신 문건의 어느 한 페지에는 《유화등》이라는 부분에 《유아등》이라고 고쳐주시고 달랠 유(꾈 유), 누에나

비 아, 등불 등이라고 뜻풀이까지 써주신 그이의 활달한 필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 올릴 문건을 검토하면서도 《유화등》이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벼가 한창 자랄 때 개구리울음소리 높은 논두렁을 따라 밤길을 가느라면 밝게 켜놓은 기름등불을 보게 된다. 일군들은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라는 뜻에서 《유화등》으로 알고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고쳐주신 《유아등》이라는 말의 뜻을 새겨보고서야 일군들은 자기들의 지식이 너무 얕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알고보니 《유화등》이란 어휘는 우리 말사전 올림말에도 없었던것이다.

일군들은 커다란 자책에 잠겨 하나의 사물현상에 대해서도 수박겉핥기식으로가 아니라 깊이있게 알아야 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을 실속있게 하지 못한 자기들을 엄하게 탓하실 대신 어휘표현을 바로 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일깨워주시며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목이 메였다.

농사에 해로운 나비를 꾀여잡는 등—유아등.

참으로 우리 인민이 전설적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는 어버이수령님의 다방면적인 지식의 깊이와 폭은 그 무엇으로써도 잴수 없는것이였다.

건강에 좋은 다시마와 조개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시다가 수산부문에서는 다시마, 미역을 비롯한 바다나물과 밥조개, 대합조개 같은 조개들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람들이 다시마를 먹으면 몸안에 있는 독성물질이 없어지기때문에 아주 좋다고 한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시마가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많이 먹고있다, 그전에 내가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수반이 식사를 한 다음 시꺼먼 알약을 먹군 하기에 그것이 무엇인가고 하니 그는 다시마가루로 만든 알약인데 의사들이 이것을 먹으면 좋다고 권고하기때문에 먹는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우리 조선사람들은 옛날부터 다시마를 가지고 국도 끓여먹고 쌈도 싸먹고 료리도 여러가지 만들어먹는다고 하니 그는 매우 놀라와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개도 사람의 몸에 아주 좋다고, 사람의 몸안에 있는 독성물질을 없애는데 조개가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조개에는 항암물질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대합조개에서 항암물질을 뽑

아가지고 암세포를 가지고있는 토끼에게 실험을 하였는데 항암물질을 넣어준 토끼는 죽지 않고 넣어주지 않은 토끼는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에 그리스의 어느 왕은 오래 살기 위하여 섭조개를 가지고 50여가지의 료리를 만들어먹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마, 미역, 조개 같은것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어 그들이 오래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이 다시마, 조개 같은것을 많이 먹고 건강하여 오래 살면 아주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바다가양식에 좋은 우리 나라 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바다는 바다가양식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바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명사십리 해당화》

《원산에는 바다가에 좋은 백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명사십리 해당화〉라는 노래가사도 있는데 그것은 십리나 되는 바다가의 깨끗한 모래밭에 해당화가 피여있다는 뜻입니다.》

는 물흐름과 물온도가 바다가양식을 하는데 좋다, 바다가양식을 하는데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황해남도 앞바다도 좋고 함경북도 앞바다도 나쁘지 않다, 함경북도 앞바다는 다른 도의 앞바다보다 물온도가 좀 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다가양식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번합과 바이올라의 탄복

주체72(1983)년 12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번합과 회담을 하시고 그 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배를 나누신 다음 번합의 부인 바이올라를 바라보시며 부인은 귀국에서 우리 나라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부인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부인은 우리 나라 의사로부터 침을 맞을 때 겁이 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바이올라는 처음 침을 맞을 때에는 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번 맞은 다음부터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니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거리는 번합과 그의 부인을 바라보시며 우리 나라 의사들은 침과 부항으로 병치료를 잘한다, 지금 우리 고려의사들은 오스트리아에 병원을 차려놓고 고려치료방법으로 그 나라 사

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있는데 반영이 아주 좋다, 우리 고려의사들은 홍콩에 가서도 병원을 차려놓고 그곳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흥미있게 듣고있던 번함은 부항으로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부항치료라는 것이 특별한것은 아니다, 환자의 몸에 난치나이주사를 놓고 부항을 붙이면 효과가 있다, 일본에 살고있는 한 자본가가 홍콩에 가서 우리 고려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았다는 선전을 하여 많은 일본사람들이 홍콩에 있는 우리 고려의사들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가운데서 거의 70%가 고려의학의 우월성을 믿고있습니다, 신의사들은 고려의학을 깔보면서 주로 살균제로 병을 고치는 방법과 병이 난 사람들을 수술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고려치료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고려의사들은 수술하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것이 아니라 기본은 보약을 많이 써서 사람들의 원기를 돋구어주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합니다라고 설명해주시였다.

번함은 호기심이 바싹 동하여 말씀올렸다.

《고려치료에서 기본이 보약을 많이 쓰는것이라면 보약재로는 무엇을 씁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치료에서는 인삼, 당귀를 비롯한 여러가지 약초들과 록용을 리용한다고, 도이췰란드 녀류작가인 린저도 우리 고려의사들로부터 눈치료를 받

고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단을 정확히 받은 다음에는 고려의학적치료방법으로 치료를 받는것이 더 낫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이때 바이올라가 병원에서 고려의학적방법으로 치료를 받겠는가 아니면 현대의학적방법으로 치료를 받겠는가 하는것을 환자가 결심하는가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겠는가 하는것은 의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주로 현대의학적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고려의학적치료방법을 배합할수도 있고 또 고려의학적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현대의학적방법을 배합할수도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번함은 무척 놀라운 눈길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렀다.

오찬이 끝난 후였다.

번함은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바이올라에게 이렇게 터치였다.

《놀랍소. 아니 탄복을 금할수 없소. 주석각하께서는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의학에도 완전히 도통하신 희세의 영재이시오.》

바이올라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약효가 큰 인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약은 강장제작용을 하고 병을 이겨내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중에서도 인삼은 약효가 크

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삼정액은 사람의 몸에 좋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인삼은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삼은 항암제로 많이 쓰인다고 하시면서 인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인삼은 술에 담그어 먹기도 하고 인삼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며 닭의 배속에 인삼을 넣고 곰을 해서 먹기도 한다.

인삼술은 술로서도 좋지만 보약이기때문에 더 좋다. 지금 고려약들에는 거의다 인삼이 들어간다. 보약으로 쓰이는 고려약에는 인삼이 들어가야 한다. 인삼을 약재로 쓰자면 6년은 길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성인삼이 제일 유명하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인삼의 원산지

《인삼의 원산지는 우리 나라입니다. 인삼은 우리 나라의 개성지방에서 많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 000년전인 고려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에 많은 인삼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 국 풀

주체56(1967)년 6월 19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경남도 광업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협의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산들에서 고기와 알을 자체로 생산하여 로동자들에게 공급하자면 애국풀을 많이 심어 집짐승먹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풀은 집짐승먹이로 아주 좋다고, 나는 오늘 협의회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이 애국풀에 대한 자료를 상식적으로 아는것이 나쁠것 같지 않아 그 자료를 소개하자고 한다고 하시며 친히 애국풀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지금 애국풀은 세계적으로 집짐승먹이로서 이름난 풀이다.

애국풀은 다년생식물로서 한번만 심어놓으면 오래동안 계속 수확할수 있으며 이른봄부터 초겨울까지 자라기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하여 생육기간이 길고 빨리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애국풀은 심은 다음 3～4년이면 뿌리가 땅속 2～3m의 깊이에까지 들어가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므로 가물도 타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한다. 애국풀은 기후조건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여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에서

다 재배할수 있다. 애국풀은 특히 메흙땅층이 깊고 배수가 잘되며 해볕이 잘 쪼이고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지대의 땅에서 잘된다고 한다.

배수가 잘되지 않는 땅에는 배수로를 치고 척박한 땅에는 퇴비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퇴비로는 닭똥이나 오리똥이 좋다고 한다.

애국풀을 심을 때에는 땅을 깊이 갈고 포기당퇴비를 적당히 넣고 거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약간 덮은 다음 그우에 길이 5～8㎝, 굵기 1～1.5㎝되는 종근을 굵은쪽이 우로 올라가게 수직으로 심는다.

만일 종근의 뿌리쪽을 잘 알수 없을 때에는 종근을 수평으로 놓고 3㎝정도의 두터이로 흙을 덮은 다음 그우에 짚을 씌운다고 한다.

애국풀은 포기사이의 간격을 좀 넓게 심어야 기계로 거름도 주고 김도 매며 수확도 할수 있다.

애국풀을 기계로 재배할수 있게 심으면 뜨락또르 1대가 애국풀밭을 수십정보 다룰수 있다.

애국풀은 4월과 8월사이에 심는것이 좋다. 애국풀은 심은 다음 8～10일이면 눈이 트는데 이때 온도는 10℃가 좋다. 애국풀은 심어 2년 지나면 완전히 성숙되므로 그때부터는 뿌리를 갈라내여 번식시킬수 있다.

애국풀은 온도가 적당히 보장되고 해볕이 잘 쪼이는 곳에 심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주면 한달에 한번씩 수확할수 있는데 우리 나라 조건에서는 1년에 한 너덧번 수확할수 있다.

애국풀은 심어서 첫해에는 정보당 50t, 다음해에는 150t, 그 다음해부터는 200～300t씩 수확할수 있다. 정

보당 애국풀을 300t씩 수확하면 대단하다.

애국풀은 심을 때 품이 많이 들지 않을뿐아니라 한번 심어놓으면 여러해동안 다시 심지 않아도 되므로 로력도 적게 든다. 그리고 애국풀을 심은 밭에는 다른 풀도 얼마 나지 않고 벌레도 끼지 않기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애국풀은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과 같은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먹이작물이다. 애국풀에는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뿐아니라 철분, 망간, 칼시움도 포함되여있다.

애국풀에는 집짐승에게 필요한 영양물질이 다 들어있으므로 돼지, 젖소, 양, 토끼, 닭 같은 집짐승들의 먹이로 아주 좋다.

애국풀은 돼지먹이로 좋다.

돼지에게 애국풀을 많이 먹이면 다른 먹이를 얼마 먹이지 않아도 될것이다.

1정보에서 나는 애국풀로 돼지를 30～40마리 기를수 있는데 30마리만 기르는것으로 보아도 고기를 2.4～3t 생산할수 있다.

애국풀은 젖소먹이로도 좋다. 젖소먹이량의 50%를 애국풀로 충당할수 있다.

1정보에서 나는 애국풀로 젖소를 30마리 기르는 경우에 거친먹이를 내놓고 애국풀만 먹이는것으로 환산하면 15마리의 젖소를 기르는것으로 된다. 한해에 젖소 한마리에서 젖을 4t 짜는것으로 보아도 1정보에서 나는 애국풀을 가지고 60t의 젖을 짤수 있다.

애국풀은 토끼먹이로도 좋다.

1정보에서 나는 애국풀로 1 500마리의 토끼를 기를수 있

는데 토끼 1마리에서 고기가 2㎏씩 나는것으로 보아도 정보당 토끼고기를 3t씩 생산할수 있다.

애국풀은 양먹이로도 좋다. 양에게는 애국풀에다 말린 풀을 좀 섞어먹이면 된다.

애국풀은 닭에게 먹여도 좋다.

애국풀은 섬유질이 적고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여있는 시기에 베여 닭에게 먹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애국풀을 남새로도 먹고 화장품원료로도 쓴다고 한다.

애국풀을 집주변에도 심고 도처에 다 심어야 한다.

《기자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였는가

주체48(1959)년 4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란봉의 청년공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다가 일군들에게 《기자묘》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일군들은 《기자묘》가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사상에 의하여 생겨난것이라는데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기자묘》가 생겨나게 된 유래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B.C. 12세기에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조선에 와서 나

라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없는것이다.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기자가 살았다는 때로부터 천년이나 지난 B.C. 2세기초에 이르러 고조선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생겨난 랑설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천수백여년이 지난 12세기초에 와서 봉건통치배들은 마치 조선은 기자에 의해서 생겨나고 발전하여온듯이 력사를 외곡하면서 모란봉에 《기자묘》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숭배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일군들에게 일깨워주시고나서 조선민족을 기자의 후손으로 보면서 전혀 무근거한 《기자묘》까지 만들어놓은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슬기로운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자는 조선사람과 아무런 인연도 없고 《기자묘》는 기자의 실지무덤도 아니기때문에 파보아도 아무것도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이번 기회에 파헤쳐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을 받은 일군들은 청년들을 동원하여 《기자묘》를 파헤칠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자묘》를 파헤칠 준비가 다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청년들을 동원하여 며칠사이에 와닥닥 파헤치려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렇

게 하지 말고 먼저《기자묘》앞에서 로인잔치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인차 알아차릴수 없어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것 같은데 로인잔치부터 차려 그들을 납득시킨 다음 파헤치자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까지도 평양사람들, 특히 로인들가운데는 《기자묘》가 자기들의 조상의 무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만큼 무작정 파헤치는것보다 그들의 머리에 뿌리박힌 사대주의를 가셔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로인잔치를 어떻게 하겠는가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사상의 산물에 불과한 가짜무덤 하나를 놓고도 그처럼 심중히 생각하고 처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량있는 고매한 풍모에 다시금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 다음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시내에 있는 200여명의 로인들을 참가시키고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한창 고조를 이루자 그들은 《기자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로인들은 진짜라거니 가짜라거니 하면서 두패로 갈라져 론쟁을 벌렸다.

그들은 한참동안 론쟁을 벌리던 끝에 스스로 《기자묘》를 시원히 한번 파보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로인잔치에서는 그것을 파헤쳐보고 기자의 무

덤이라고 인정할만 한것이 나오면 다시 묘를 수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없애버리자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묘》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과학적으로 해명하도록 유능한 고고학자들을 현장에 보내주시였다.

드디여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기자묘》를 파헤치는 작업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깊이 파헤칠수록 더욱더 숨을 죽이고 묘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의 밑창이 드러나도록 파헤쳤는데도 무덤이라고 인정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마침내 기나긴 세월을 두고 허울속에 묻혀있던 《기자묘》가 가짜라는것이 확증되였다.

《기자묘》를 진짜로 믿고있던 로인들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앉았다.

그들은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면 가짜도 진짜로 보는 머저리로 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금수산과 릉라도

《평양에 금수산과 릉라도가 있는데 금수산이라는것은 비단실로 수놓은것과 같이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며 릉라도라는것은 비단섬이라는 뜻입니다.》

고 구 려

주체81(1992)년 1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살을 에이는듯한 대한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동명왕릉을 찾으시였다.

동명왕릉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척 기쁘신 표정으로 손세를 써가시며 고구려력사이야기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둘러선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고구려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였을뿐아니라 제일 오래 존재하였던 국가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내가 그전에 중국에 갔을 때 모택동을 만나 력사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 있는데 그는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것은 고구려의 힘이 강하였기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당시 강대한 나라였을뿐아니라 중국의 첫 통일국가였던 진나라보다 먼저 세워졌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B. C.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다음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쌓은것이므로 고구려국가는 응당 중국의 진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졌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의 력사학자들이 고구려국가가 B. C. 277년에 세워졌다는것을 고증하였다는데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고구려건국년대를 B.C. 1세기초로 알고있었다. 고조선이 멸망한 B.C. 108년이후 고구려사람들의 치렬한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10여년만인 B.C. 1세기초에 건국되였다고 보는것이 공인된 사실로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옛 력사책인 《삼국사기》와 중국의 력사책 《후한서》에 쓴 기록에 근거한것이였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국가가 B.C. 37년에 성립되였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이 책의 편찬자인 김부식의 사대주의적립장에 기인한것이였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구려력사를 깎아내린것을 무비판적으로 옮겨썼던것이다.

또한 중국의 력사책 《후한서》에서는 B.C. 3～2세기의 고구려를 고조선에 속한 한개 속국으로 보고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실로만 인정하고있었다.

이처럼 천수십년동안 기정사실로 인정되였던 고구려건국년대를 처음으로 정확히 해명할것을 발기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고 또 그 해명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하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아득히 흘러간 2 000여년의 세월속에 사라져버린 고구려의 건국년대를 론리적인 추리와 반증자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도출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이시야말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력사의 대가이시라는것을 끝없는 경탄속에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구려가 동방의 강성대국이였다는 또하나의 력사자료를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아침에 중국의 지도를 보니 중국사람들이 개평현이라는 지방이름을 개현이라고 고쳤

다고 하시면서 그 유래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개현이라는것은 중국 금주부근의 어느 지방이름이다.

당시 동방의 천년강국이였던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의 명성은 우리나라 주변아근에 자자하게 퍼져있었다.

그가 얼마나 명성이 높은 사람이였던지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꺼소문이 온다.》(연개소문이 온다는 뜻임)고 하면 영악스럽게 울어대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연개소문의 진격을 막고 나라의 평정을 이룩하였다는 의미에서 금주부근의 지방이름을 개평현이라고 지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중국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은래에게 그것은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였다.

원래 고구려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실이 없고 또 연개소문은 645년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 당나라 태종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성스러운 공을 세웠다.

그때 중국의 당태종이 안시성전투에서 우리 군사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 외눈깔신세가 되고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 위대한 명언 ☆

《력사란 먹으로 지울수도 없고 불로 태울수도 없으며 검으로 찢을수도 없는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의 력사는 력사대로 남아있을것이다.》

거의나 혼백이 다 빠져 자기 나라로 도망쳐갔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력사적사실이다.

그러니 중국사람들이 연개소문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평정을 이룩하였다는 의미에서 개평현이라고 지방이름을 지은것은 전혀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개평현을 은현이라고 고쳤는데 그후 다시 은현을 개평현이라는 말에서 《평》자를 없애버리고 개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현이라는것은 결국 개소문현이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뜻을 풀어서 말씀해주시였다.

말하자면 연개소문이라는 이름에서 성을 떼버리고 이름만을 따내여 자기들이 사는 곳 이름을 명명하였던것이다.

결국 이것은 고구려가 그 옛날 얼마나 강대한 국가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례증자료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하신 기분으로 은빛눈속에 싸인 왕릉건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높은 하늘에서 태양이 정다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 수령님 가시는 앞길에 눈부신 해살을 펼쳐드리였다.

동명왕릉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동명왕의 무덤을 두고 학계에서는 그것이 진짜라느니 가짜라느니 하면서 오래동안 론의가 분분하였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이 고

구려의 도읍이였던 중국 동북지방의 집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평양에 있겠는가고 하면서 룡산리무덤은 썩 후세에 와서 만들어놓은 가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매사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로부터 시조숭배심이 강하였던 우리 조상들은 수도를 옮길 때마다 왕의 무덤을 함께 옮기는 관습이 있었는데 고구려왕실도 평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건국시조의 무덤을 옮겨왔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력사학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룡산리무덤도 허공 띄워놓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관습에 기초하여 연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러던 1970년대 중엽의 어느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한편의 기록영화를 보시였다.

재일동포들이 꿈결에도 그리던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오는 력사적인 장면들을 수록한 영화였다.

화면에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는 동포들의 감격과 환희, 그들을 맞이하는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가 넘쳐흐르는 가운데 유골함을 안고 배에서 내리는 동포들의 모습이 실리였다.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라도 가고싶다던 조국, 그 조국이 그리워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혈육들의 유골함을 안고 조국을 찾아오는 그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몹시 흥분된 어조로 그리고 확신에 넘치시여 자, 보시오, 조선사람들은 저렇게 이역만리에서도 자기 조상의 유골을 가지고오지 않는가, 하물

며 강대했던 고구려사람들이 자기들의 건국시조의 묘를 버리고 올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력사학자들에게 기록영화에서 재일동포들이 귀국할 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관습대로 선조들의 유골함을 안고오는 장면을 보신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동명왕릉도 고구려사람들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올 때 가져다만든 시조왕의 무덤이 틀림없으니 대담하게 한번 발굴해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력사학자들은 곧 왕릉발굴에 달라붙었으며 이미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나갔다.

과연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이 맞을것인가?

얼마 있지 않아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한두점이 아니라 수십점이 나졌는데 어느것이나 다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임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들이였다. 이 과정에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한 《정릉사》도 새로 발굴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학계에서 론쟁거리로 되였던 동명왕릉은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으로 명백히 고증되게 되였다.

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명왕릉에 몸소 나오시였다.

머리흰 력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그이앞에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한생을 두고 풀지 못했던 력사의 비밀을 밝혀주신 그이의 과학적인 통찰력과 판단력,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립장과 숭고한 민족애에 대한 경탄과 감사의 큰절이였다.

그들의 마음이런듯 왕릉의 아름드리나무들도 끝없이 설레이였다.

왕 가 성

주체81(1992)년 5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건국자 왕건의 릉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태조왕인 왕건의 릉을 그의 력사적지위에 맞게 크고 훌륭하게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그외에도 우리 나라 력사연구에서 흥미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재미있게 설명해주시였다.

그윽한 꽃향기를 머금은 봄바람이 아지랑이에 실려오는데 수령님께서는 왕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원래 왕가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느닷없이 왕가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처럼 생겨날수는 없는것이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속에는 왕가성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고려 이전시기에는 왕가성이 없는것을 보면 왕건이 자기가 왕가성을 달았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왕건이 개성지방의 유력한 신흥봉건세력출신이였으므로 자기의 성을 왕가로 달고 후손들이 다 왕가성을 가지게 하여 왕가성이 생겨났을수 있으며 그가 왕가성의 조상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 왕가성을 가진 사람이 개성지방에만 있었고 다른 지방에는 없었던것만 보아도 왕건이 자기 성을 단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시였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왕가성을 가진 조선사람이 2명 있었다.

처음에 그들이 왕가성을 가졌기때문에 중국사람인가 하고 생각하였는데 후에 알고보니 모두 개성사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자못 흥미있게 이야기를 듣고있던 일군들은 그이를 우러러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성씨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깊이 생각해본 일이 없는 문제였다.

만일 있다면 그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력사학자들속에서나 있었을것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도 이처럼 깊은 조예를 가지고계시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를 다 알고계시는 위대한분이시였다.

총각김치

주체62(1973)년 11월 26일 저녁이였다.

이날 저녁식사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김치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치의 고향은 우리 나라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무우와 배추를 심어 김치를 담그어 한겨울동안 주요부식물로 리용해왔다, 우리 본을 따서 이제는 일본이나 유럽나라들에서까지 김치를 담그어먹

는데 일본사람들은 우리 김치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기무치라고 부르고있다, 김치는 그 종류만도 여러가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엮어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일군에게 총각김치를 먹어본 일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총각김치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다고 일군이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료리사들에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이르신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한 북쪽지방에서는 총각김치라는것도 담그어먹고있다, 총각김치라는것은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무우로 김치를 담근다고 하여 이름지은것이다, 총각김치는 잎이 달린 무우를 소금에 절구었다가 여러가지 양념을 버무려 담그고 김치물을 조금 해붓는데 동치미와 함께 김치의 원종이라고 할수 있다, 옛날 북쪽지방에는 기후가 차서 무우가 채 자라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확하여 김치를 담근것이 맛이 좋아 전지역에 퍼졌다, 총각김치물로 메밀국수를 비롯하여 국수를 말아먹으면 제격이다, 가슴이 후련해지고 머리도 상쾌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일군은 상에 오른 음식 그 어느것에 대해서든 단순히 상식정도가 아니라 전문가이상으로 조예가 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해박한 식견앞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본궁과 반룡산

주체80(1991)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흥에서 열린 어느 한 회의를 지도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때 회의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이 기업소에서 그전에 본궁화학공장이라고 하던 그 공장의 계통을 따로 떼내여 또하나의 화학련합기업소를 조직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조직하는 화학련합기업소를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 본궁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살려 본궁화학련합기업소라고 부르려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본궁이라는 말의 유래를 풀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래 본궁이라는 말은 왕이 왕으로 되기 전에 살던 집을 말하는데 함흥에 있는 본궁은 리성계가 리조봉건국가의 왕으로 있다가 내려와 살던 집이라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였다. 함흥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일군들도 모르고있는 사실이였다. 그러니 본궁이란 원래부터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불리워진 지명이 아니라 리성계가 자기 아들인 리방원과 결별하고 내려와서 살던 때부터 불리워진 이름이였다.

리방원은 리성계가 정권을 잡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리방원은 은근히 자기를 다음번 왕위계승의

당당한 후보로 자처하고있었다.

그러나 리성계는 리방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맏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였다. 결국 이것이 화단이 되여 리성계는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내려와버리였고 력사에 유명한 《함흥차사》라는 전설아닌 이야기를 남기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성계는 력사적으로 보면 매국노라고 하시면서 그는 고려정부에서 빼앗긴 고구려땅을 되찾아오라고 군사를 주어 료동지방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도중에서 정변을 일으키는 반역행위를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명나라에서는 란리가 일어나 내부가 혼란상태에 빠져있었기때문에 쉽게 고구려땅을 찾을수 있었으나 리성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변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리성계를 매국노라고 욕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개성지방 사람들은 리성계를 제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들은 설명절에 떡을 해먹을 때에 떡으로 사람의 머리를 자그마하게 만들어놓고 리성계의 목을 자른다고 하면서 그것을 잘라먹었다고 하시였다.

개성으로 말하면 고려의 태조 왕건의 고향으로서 송악산이 웅건히 자리잡고있는 곳이였고 또 수도였던것만큼 리성계를 도대체 용납할수 없었을것이였다. 더우기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모략으로 손에 피칠을 할대로 한 리성계가 왕건의 일가친척들에게 가한 치떨리는 형벌과 압력은 온 개성의 분노를 자아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리성계와 관련되여있는 본궁이라는 이름을 다 없앤것만큼 새로 조직하는 화학련합기업소의 이름을 본궁화학련합기업소라고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새로 조직하는 화학련합기업소의 이름은 본궁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의미에서 《새 신》자와 《홍성할 흥》자를 붙여 신흥화학련합기업소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함흥지방에는 그전에 이밖에도 반룡산이라든가 영흥 등 리성계와 관련된 지명이 많았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의 책임일군에게 반룡산이라는것이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하고 식당이름을 반룡각이라고 달았는가고 물으신 일이 있었다.

그 일군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식당이름을 그렇

○ 알려주신 토막상식 ○

《행주치마》의 유래

《권률장군이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치고 산성을 포위한 3만여명의 왜병과 힘에 부치는 결사전을 하고있을 때 그고장 부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담아 석전을 하는 우리 군사들에게 부지런히 날라다주었다. 행주산성녀성들의 그 짧은 애국치마들은 후날 조선의 모든 가정부인들이 동자질할 때도 띠고 치레거리로도 띠는 맵시있는 앞치마가 되였다. 행주산성싸움에서 유래된것이라고 하여 그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한다.》

게 달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벌써 몇해째나 이곳에서 사업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였던 문제였다. 그저 함흥시에 반룡산이 있으니 이름높은 국수집이라는 의미에서 산의 이름을 따다 붙이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름을 하나 지어도 인민의 요구와 취미에 맞도록 뜻이 깊게 짓지 못하고 그저 생각나는대로 지어버리는 그의 그릇된 사업태도와 관점을 비판하시고 반룡각이라는 이름을 신흥각으로 고쳐주시였다.

그리고 반룡산이라는 이름을 동흥산으로 고쳐부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날로 온 함흥시에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이의 해박한 력사지식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선 죽 교

주체81(1992)년 5월초 어느날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건왕릉으로 가시던 길에 선죽교를 찾으시였다.

선죽교는 왕건이 919년에 개경을 수도로 정하고 도시를 꾸릴 때 화강석을 다듬어 만들어놓은 너비 3.36m, 길이 8.35m의 크지 않은 돌다리였다.

선죽교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선죽교는 원래 선지교라고 하던것을 1392년 4월에 고려의 대학자이며 최고위관리였던 정몽주가 리성계일파에 의하여 철퇴에 맞아 살해된 다음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대가 돋아났다고 하여 선죽교라고 불리웠다는데 독립군들이 부르던 노래에도 선죽교피다리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고려시기에 고위관리였던 정몽주는 왕에게 충의를 다하였다.

당시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을 가지고있던 리성계일파는 정몽주가 우환거리로 생각되였다.

이들은 왕에게 충실한 정몽주를 끌어당겨야 자기들의 야심을 쉽게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타산하고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하던중 하루는 리성계의 다섯째아들이 그를 청해다가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리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충신은 불사이군

《우리 나라에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얽어져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것은 너하고 나하고 결탁해서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부귀영화를 백년까지 누리자는 뜻이였다. 그러자 정몽주는 이런 시조를 읊었다고 한다.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여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줄이 있으랴

여기에는 자기가 죽어서 먼지와 흙이 될지언정 왕에 대한 충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깃들어있었다.

정몽주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알게 된 리성계의 아들은 졸개놈을 선죽교밑에 숨겨두었다가 정몽주가 다리를 건늘 때 그곳에서 살해하게 하였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정몽주가 리왕조를 반대한 사람이였지만 그를 내세워 인민들과 봉건관료들을 왕에 대한 충의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이곳에 정몽주표충비까지 세워놓았다.

일군들에게 선죽교에 깃든 사연을 들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표충비앞에 이르시여 돌을 쪼아만든 거북의 잔등우에 세운 비를 바라보시며 귀중한 력사유물인것만큼 잘 보존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양귀비를 골탕먹인 리태백

주체71(1982)년 7월 29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도이췰란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를 만나시여 담화를 하시였다.

담화장에는 청량음료들과 함께 리즈(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열대과일)를 비롯한 다과들이 놓여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린저에게 리즈를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린저가 좋아한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 중국의 당나라 황제 현종의 후처였던 양귀비도 리즈를 무척 좋아하였다고, 그가 리즈를 지나치게 좋아하였던탓에 당대의 뛰여난 문장가였던 리태백이 양귀비를 조롱하고 골탕까지 먹였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린저는 호기심이 부쩍 동하여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청을 드리였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린저의 호기심을 더욱 돋구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한 천여년전 중국에 당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양귀비라는 아주 예쁜 녀자가 있었다.

양귀비의 본명은 양태진이였다.

그는 중국 섬서성의 몰락한 귀족의 딸로서 뛰여난 미모와 예술적재능으로 하여 현종의 아들 수왕의 마음에 들어 그의 안해가 되였다. 그런데 현종은 자기 처가 죽은 후 며느리의 미모에 탐이 나 양태진에게 귀비라는 지위를 주어 애첩으로 삼았다.

양귀비는 리즈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광동성에서부터 리즈를 날라다 먹었다. 특별한 운수수단이 없었던 그때에는 리즈를 하늘소로 날랐다. 단백질이 많은 리즈를 광동성에서부터 먼거리를 하늘소로 실어오느라면 거의다 썩군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리즈를 실어날랐다.

양귀비의 눈길 한번에 수십, 수백명의 뭇생명들이 버러지처럼 목을 잘리우던 세상이였던것이다.

양귀비는 인민들에게 이처럼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 현종 역시 양귀비의 미모와 애교에 푹 빠져 국사는 돌보지 않고 방탕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리태백은 양귀비를 천하 둘도 없는 요괴라고 하면서 몹시 미워하였다.

어느날 현종이 리태백을 급히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이웃나라에서 글월을 보내여왔는데 하루이틀내로 회답서신을 쓰라는 어명을 내리였다.

리태백은 술에 푹 취하여 살았다. 하지만 문장을 만드는데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어명을 받은 리태백은 이 기회에 현종과 양귀비를 한번 골탕먹이리라 마음먹었다.

리태백은 현종에게 자기가 한번 글을 쓸 때에는 한사람은 먹을 갈아주고 한사람은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수염을 잡고있어야 하며 또 한사람은 자기의 다리를 받들고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글의 품위가 오락가락한다고, 이웃나라에 보내는 회답서신은 왕의 얼굴이자 나라의 얼굴과 같은 것이기때문에 자기가 회답서신을 쓸 때에는 양귀비가 먹을 갈고 그의 녀동생은 수염을 잡고있어야 하며 그의 남동생은 다리를 받들고있어야 한다고 조건부를 내놓았다.

현종은 그만 아연해졌다.

양귀비와 그의 형제들에게 그처럼 추한 일을 맡겨야 한다는것도 기막힌 노릇이였지만 더우기 그 소문이 항간에 새여나가는 날에는 뒤간냄새보다 더 구린내나는 망신을 들쓰게 될판이였다.

하지만 편지 한장 쓸 재간이 없었던 현종은 울며 겨자먹기로 리태백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리태백이 회답서신을 쓸 때 그처럼 요염방자한 양귀비는 은초대처럼 새하얀 손에 검은 칠갑을 하며 먹을 갈았고 그의 녀동생은 술내에 푹 절은 리태백의 어지러운 수염을 잡고있었으며 양귀비를 등대고 거들먹거리던 그의 남동생은 하루종일 리태백의 다리살밑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자 린저는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이윽하여 린저가 말씀올렸다.

《중국의 리태백은 유럽에도 많이 알려져있기때문에 저도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처

럼 재미있는 일화는 모르고있었습니다. 혹시 주석각하께서는 중국력사책들을 원문을 가지고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나는 중국책과 쏘련책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있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명언 ☆

《작가는 사회생활의 대변자이며 인간정신의 기사입니다.》

그러자 린저는 크게 감탄해마지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을 많이 만나본 그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다른 나라의 력사를 그처럼 도통하고있는 사람은 없었던것이다.

그는 작가로서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참으로 주석님은 한 나라의 령수이시기 전에 인류문학예술의 대가이시구나. …)라고.

력사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주체76(1987)년 7월 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중국력사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중국 촉나라때 의형제를 무은 세 장수가 있었다. 한

사람은 류현덕이라고 불렀고 다른 한사람은 관운장, 또 다른 한사람은 장비라고 불렀다.

류현덕은 지식은 없지만 포옹력이 있는 사람이고 관운장은 지혜와 무술을 겸비한 사람이였다. 그들은 군벌주의를 부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비는 싸움은 잘하지만 아주 포악한 사람이였다.

그는 부하들이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무조건 목을 잘랐다. 그러므로 부하들은 장비를 무서워하고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날 장비는 관운장이 적들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에게 오늘밤중으로 백의백마를 구해놓으라고 하였다. 장비가 백의백마를 구해놓으라고 한것은 흰옷과 흰말을 구해놓으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장비부하는 백의백마를 구해놓으라는 말을 흰말 100마리를 구해놓으라는것으로 잘못들었다.

하루밤사이에 흰말 100마리를 구해놓으라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는 흰말 100마리를 밤중으로 구해놓지 못하면 다음날에 자기 목이 떨어질것 같아 온밤 근심하던 끝에 장비를 죽여버렸다.

결국 장비는 포악하게 놀았기때문에 자기 부하한테 죽고말았다.

삼 복

주체81(1992)년 6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윌리암 테일러일행과 담화를 하시였다.

한없이 인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끌려 마음이 한껏 흥그러워진 테일러는 조선에 와보니 날씨가 무덥다고 하면서 이런 날씨가 오래동안 지속되는가고 그이께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온대성기후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여름 한철에는 날씨가 덥다고, 특히 7월과 8월사이에 20～30일동안 삼복더위가 있는데 그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말씀하시였다.

테일러는 자기 나라에는 삼복이라는것이 없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삼복을 리해할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삼복이라는 말이 있다. 삼복이란 세번 엎디여있으라는 말이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눈다. 초복부터 중복사이는 10일간이고 중복부터 말복사이도 10일간이다. 그러나 어떤 해에는 중복부터 말복사이가 20일간일 때도 있다. 세번 엎디여있으라는 말은 그늘밑에 들어가 휴식하라는 뜻이다.

테일러는 두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그러면 삼복기간에는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가고 하면서 의아해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음을 지으시였다.

테일러의 얼굴엔 더욱더 의아한 표정이 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일러의 의문을 풀어주시려고 할 일도 많은 혁명가들이 날씨가 덥다고 그늘밑에 앉아 맘편히 쉴수 있는가, 삼복기간에 휴식하라고 책에 씌여져있는 것은 그때 당시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였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운 삼복기간에도 휴식할 짬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민들은 삼복기간이 되면 휴식도 한다, 세번 엎디여있으라는 말은 삼복기간이 그만큼 몹시 무덥다는 뜻이라고 하시며 테일러의 의혹을 풀어주시였다.

그제서야 테일러는 조선민족이 그 어느 민족보다 근면하고 부지런하다는것을 알고있었는데 주석각하께서 삼복이 그늘밑에 들어가 휴식을 하라는 소리라고 말씀하시니 의아스러웠다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순간 장내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일러일행에게 사계절에 따르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현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테일러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은 전문가이상의 해박한 식견으로 계절별에 따르는 날씨의 특성을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알기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경모의 눈길로 우러렀다.

고쳐주신 고장이름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의 최북단에는 아오지라고 불리운 고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고장에서 대대로 태를 묻고 산 로인들도, 한동안 그곳에서 사업해온 일군들도 아오지라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었다.

주체70(1981)년 8월 22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면서 자신께서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아오지라는 이름도 우리 말로 고쳐주었다, 아오지라는 말이 우리 말같지 않아 그곳 일군들에게 아오지라는 말의 유래를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회과학원에 알아본데 의하면 아오지라는 말은 다른 나라 말인데 불타는 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아오지라는 말을 계속 써왔다, 그래서 전번에 아오지라는 이름을 우리 말로 고치면서 아오지화학공장도 7월7일화학공장으로 고쳤다고 말씀하시였다.

수수년년 기나긴 세월속에 누구나 무심히 부르군 하던 자그마한 고장의 이름을 오직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바로잡아주신것이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최북단에는 주체적인 안목과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가르치심

에 의하여 뜻도 모르고 불리우던 아오지라는 지명대신에 로동당시대의 빛나는 새 이름이 새겨지게 되였다.

해독제로 좋은 호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호박은 아주 좋은 남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호박과 녹두는 사람의 몸에서 해독작용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주 먹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어느해인가 조선인민혁명군이 소금이 떨어져 애를 먹은 일이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대원의 부모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에게 집에 내려가 소금을 구해오도록 하시였다. 그 대원이 아버지를 만나 소금을 구하러 온데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자 아버지는 소금을 혼자 살수 없어 옆집로인과 의논하였다. 사정을 들은 옆집로인은 협력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로인이 친분이 두터운 다른 로인에게 **김일성**장군이 산에서 소금을 구해오라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자기도 한몫 하기로 약속했다는것을 자랑삼아 말하면서 당신도 조선인민혁명군을 돕고싶은 생각이 있거든 재간껏 소금을 사보라고 하였다. 바로 거기서 사달이 났다.

그 세번째 로인이 자기 아들이 일제의 밀정인줄 모르고

비밀을 루설하였던것이다. 그 로인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사실을 곧바로 자기 상전에게 가서 알려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늙은이를 통하여 많은 량의 소금을 사들이려 한다는것을 알게 된 적들은 경찰기관들에 명령을 떨구어 그 일대의 상점들에 있던 소금을 몽땅 사들이게 하고 그대신 독약을 친 소금을 급히 실어다 여러 상점들에 넘겨주게 하였다. 그 독약을 친 소금은 사람이 먹으면 인차 죽는것이 아니라 점차 머리가 아프고 다리맥이 없어지게 된다는것이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한 다음 사로잡으려고 이런 흉계를 꾸미였다. 그런데 로인들은 소금에 독약이 들어있는것을 모르고 소금을 사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숙영지에 들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많은 대원들이 그 소금을 먹고 기습전에 나갔다가 맥이 없이 돌아왔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지휘성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적들의 간계에 빠져들었다, 움직일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투준비를 갖추고 시급히 해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나 그때 부대에는 해독제로 쓸 약이 없었다. 얼마후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적들이 달려들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과 이틀동안이나 치렬한 전투를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을 물리친 다음 수림속에 병원을 차려놓고 독약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은 대원들에게 녹두도 달여먹이고 호박도 삶아먹이면서 얼마동안 치료전을 벌리였다. 그랬더니 독약을 친 소금을 먹은 대원들모두가 깨끗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때 일을 회고하신 수령님께서는 호박이 사람의 몸

에서 해독작용을 한다는것을 이렇게 어려운 투쟁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호박은 삶아먹어도 좋고 단떡을 만들어먹어도 좋다고, 호박단떡은 호박에 찹쌀가루를 좀 섞어 기름에 튀기면 된다고, 호박은 아무곳에 심어도 잘된다고 하시며 그 가공방법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신발꾸리는 법

위대한 수령님께서 삼지연 림산마을을 찾으셨던 주체47(1958)년 5월 12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삼지연 림산로동자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목공들에게 겨울에는 신발을 잘 꾸려야 한다, 산에서 일하는 동무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목공들은 아침에 신발을 꾸리고나면 하루일의 절반은 한셈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기심에 잠겨있는 벌목공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유격대원들은 겨울에는 눈이 들어가지 않게 신발을 잘 꾸리는것을 혁명과업으로 여겼다고 하시며 혹 발이 시려도 우등불에 절대로 쪼이지 않았다고, 왜 그런가, 발이 시리다고 하여 발을 우등불에 들이대면 오랜 시간후에야 미지근한 열이 발에 감촉되는데 그때면 벌써 신바닥이 거의 타거나 또는 구멍이 인차 뚫어질만큼 고무가 나빠지기때문이라고 하

시였다.

벌목공들은 그이의 말씀에 저저마다 고개를 끄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지방에 울로초라는 풀이 많다, 그걸 말리워 잘 두드리면 솜과 같이 부드럽게 되는데 그 울로초를 신바닥에 깔고 발싸개를 한 다음 그 짬에도 드문드문 넣고 끈을 단단히 조이면 절대로 발이 시리지 않는다, 만약 정 추우면 우등불곁에 와서 발을 비비적거려 눈속에 파묻고 손과 얼굴을 쪼이면 발이 녹는다, 발을 눈속에 파묻는것은 신발에 붙은 눈이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눈이 녹으면 일하는 사이에 신발은 동태갈

○ 알려주신 토막상식 ○

통나무우등불을 피우는 묘리

《우리 대원들중에는 우등불명수들이 많았다. 그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통나무우등불을 피우는 묘리를 발명하여 그것을 전부대에 보급하였다. 그 방법이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비스러운것이였다. 같은 길이로 알맞춤하게 자른 통나무를 밑에는 5~6대, 그우에는 4~5대, 또 그우에는 3~4대씩 피라미드식으로 층을 올리쌓고 2~3대를 올린 마감층우에 불쏘시개감으로 마른 나무가치들을 놓고 거기에 불을 다는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등불을 피우게 되면 불이 오래 갈뿐아니라 젖은 나무도 마른 나무처럼 잘 타들고 불찌가 튀여나지 않았다. 그리고 화력이 세서 좋았다.》

이 얼고만다, 그러면 꺾이운 자리가 부러지기때문에 이렇게 하면 발도 얼지 않고 신발도 오래 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신발을 꾸리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세심히 알지 못했던 벌목공들은 경탄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렀다.

언감자국수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량강도에서 감자농사를 잘 지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언감자국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시였다.

감자를 많이 생산하면 감자를 얼구었다가 언감자떡을 해먹어도 좋고 언감자국수를 눌러먹어도 좋다. 언감자에서는 가루가 23% 나온다. 언감자국수는 소화도 잘되고 맛도 구수한것이 아주 좋다. 언감자국수는 농마국수보다 더 맛이 있다. 언감자국수는 깨국에 말아먹는것이 제일 좋다. 언감자국수를 깨국에 말아먹으면 별맛이다. 언감자국수는 천하제일미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이다.

언감자국수는 만들기도 힘들지 않다. 언감자국수는 언감자를 말리워낸 가루를 익반죽하여 국수분틀에 넣고 누르면 된다.

평양《무오단》

주체66(1977)년 2월 2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교시를 하시면서 평양《무오단》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해방전에 평양에 《무오단》이라고 불리우는 축구단이 있었는데 그 축구단은 직업적인 선수단이 아니였다. 그렇지만 평양《무오단》은 조선의 중등축구단가운데서 제일 센 축구단이였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전선축구대회》라는것을 하였는데 《무오단》이 세기때문에 다른 축구단은 평양에 와서 그 축구단과 경기를 하는것을 두려워하였다.

《무오단》의 축구선수들은 평양과 그 주변에서 교원을 하는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전선축구대회》를 앞두고 한열흘씩 훈련을 한 다음 경기에 참가하군 하였다.

암방지와 버섯

주체78(1989)년 9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공화국영웅인 안동수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였다. 그때 식탁에는 버섯료리가 올

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버섯을 들어보라고, 버섯은 암을 방지하는데 좋다고 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어느해인가 의사들이 두마리의 토끼를 가지고 암치료실험을 하였다. 두마리 토끼에게 다같이 암균을 주사한 다음 한마리는 버섯을 먹이고 다른 한마리는 버섯을 먹이지 않았다.

그후 1년이 지나자 버섯을 먹인 토끼는 살고 버섯을 먹이지 않은 토끼는 암균이 퍼져 죽고말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재미나게 들려주시고나서 모든 버섯이 다 암방지에 좋지만 그중에서도 송이버섯이 더 좋다고, 송이버섯은 소나무밑에서 자라는데 우리 나라에 많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안동수의 가족들과 일군들은 우리 수령님의 다문박식에 다시금 깊이 머리숙이며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당분이 들어있는 나무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은 밀영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에서 진을 받아먹군 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작나무진과 고로쇠나무진에는 당분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한 고뿌만 먹어도 살아갈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생선국은 어떻게 끓여야 하는가

언제나 인민들의 식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생선국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언제인가 한 일군에게 평양시안의 식당들에서 숭어국을 어떻게 끓여 파는가고 물으니 그는 고추와 마늘로 양념장을 만들어넣고 얼벌벌하게 하여 파는데 별맛이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숭어국을 양념장을 넣고 끓이면 숭어국의 독특한 맛이 없어지고 함경도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재미매운탕처럼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숭어국은 돌가마에 찬물을 붓고 끓여야 제맛이 난다, 숭어국을 쇠가마에 넣고 끓여도 되지만 돌가마에 넣고 끓여야 숭어국의 독특한 맛이 변하지 않는다, 숭어국은 숭어를 비늘을 벗기고 썰어 돌가마에 넣은 다음 찬물을 붓고 후추알을 여라문알 약천에 싸서 넣는다, 그렇게 하고 푹 끓이면 노란 기름이 둥둥 뜨는데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숭어국이 된다, 숭어국을 손님들에게 들여갈 때에는 그릇에 고기 한토막을 놓고 국물을 부어서 들여가면 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붕어탕을 끓이는것도 숭어국을 끓이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붕어를 잡아서 비늘을 벗기지 않고 잘 씻어 한사람이 먹기 좋을

만큼 자그마한 돌가마에 넣고 찬물을 부은 다음 후추만 몇알 넣고 다른것은 넣지 않고 끓인다고, 붕어탕이 다 끓은 다음 돌가마를 그대로 매 사람들한테 가져다놓으면 저가락으로 비늘을 벗기고 고기를 조금씩 먹으면서 국물을 먹는다고, 붕어탕물이 숭어국물과 맛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일군들 누구나 무심히 대하고있던 생선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언제나 맛좋은 생선국을 먹이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은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였으며 다문박식하신 생활의 스승이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정 장 어

《정장어는 우리 나라의 토배기물고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을 정장어라고 부르게 된것은 그 물고기가 정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잡아먹은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옛날에 정장이라는 늙은이가 하루는 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 그 물고기의 이름을 정장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금당마을이 생겨나게 된 유래

주체74(1985)년 8월 어느날 총련일군들과 함께 담화를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천군에 금당리라는 곳이 있는데 《금당》이라는 말은 금당나귀라는 말에서 딴것이라고, 이전에는 하늘소를 당나귀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금당마을이 생겨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포수가 살았다.

그는 어느 하루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을 만나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사슴의 다리에 박혔다.

포수는 사슴을 쫓아 달려갔다. 그런데 문득 사슴의 주위에 안개가 뽀얗게 피여났다.

사슴은 안개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잠시후 안개가 걷히자 사슴이 있던 자리에 놀랍게도 금하늘소 한마리가 나타났다.

포수는 그만 어리둥절하여 활을 쏠 생각도 못하는데 금하늘소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화살맞은 사슴이 다시 나타났다.

사슴은 피흐르는 다리를 절며 걷다가 앞에 있는 샘물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였다. 그리고 샘물에 피흐르는 상처도 씻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금까지 피를 흘리며 다리를 절던 사슴이 언제 상처를

입었는가싶게 몸을 쭉 펴더니 산마루를 향해 껑충껑충 달려가는것이였다.

포수는 너무도 신기하여 사슴이 상처를 씻은 샘물을 한모금 마셔보았다.

샘물은 이를데없이 시원하고 향기로왔다.

금시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구쳤다.

그후 포수는 이 신기한 샘터옆에 집을 옮겨짓고 살았다.

그때부터 그는 이상하게 힘이 솟구쳐 그가 쏘는 화살은 백리밖까지 날아갔고 칼을 들어 나무를 찍으면 아름드리나무도 단번에 베여졌다.

이 소문은 삽시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와 살게 되였고 그렇게 생겨난 마을은 금당리라고 부르게 되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록 채

《그때 사냥군들은 이른봄부터 가을철까지 록채를 놓는 방법으로 사슴사냥을 하였습니다. 록채란 사슴을 잡는 함정을 말합니다. 깊은 구뎅이속에 쇠로 만든 뾰족한 창들을 촘촘히 세워놓고 그우에 사슴이 밟으면 쉽게 부러질수 있는 가느다란 나무가지들을 가로지른 다음 새초를 펴고 소금을 뿌립니다. 사슴이 소금을 먹으려고 새초풀우에 올라서기만 하면 구뎅이속에 빠져 뾰족한 창끝에 찔리게 되여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덕샘물》

주체61(1972)년 11월 29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철도운수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연설을 하시다가 신덕샘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나는 약수와 샘물은 그 조성에 있어서나 맛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것보다 훨씬 좋다. 신덕샘물같은것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샘물이다. 다른 나라의 잡지들에 프랑스샘물이요, 이딸리아샘물이요 하고 세계에서 이름난 샘물이 많이 소개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의 신덕샘물보다 더 좋은 물은 없다.

시하누크는 자기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다고 하는 물은 다 마셔보았지만 신덕샘물만한것은 없다고 하였다. 시하누크를 진찰하려 중국에 온 프랑스의사도 신덕샘물을 보고 시하누크에게 이 물이 프랑스샘물보다 더 좋다, 당신이 이 물만 마시면 한 천년은 살수 있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사실 신덕산근방에 사는 사람들가운데 백살이 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금 거기에 백열살난 로인이 있는데 그는 아직도 정정하여 바구니를 겯고있다.

이것은 확실히 거기에서 나는 물이 좋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신덕산뿐아니라 이르는 곳마다에 좋은 샘물이 있다.

《고려성균관》

주체81(1992)년 5월 초순 어느날이였다.

이날 개성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문화유적중의 하나인 성균관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시기에 성균관은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국가의 최고교육기관이였으므로 그를 계승한 대학을 내오면 대학력사는 고려시기부터 계산되므로 세계에서 제일 오랜 력사를 가진 대학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의 이름은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던것만큼 《고려성균관》이라고 하며 경공업종합대학으로 만드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개성성균관이라 불리우던 이 건물이 어느 시대에 건설된 건물이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게 하고 세계적인 력사를 창조한 고려의 업적이 더욱 빛날수 있게 《고려성균관》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였다.

포도주와 제사례법

주체72(1983)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온 총련일군들과 오찬을 같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회상에 놓여있는 류달리 크고 먹음직한 포도를 가리키시면서 어서 맛보라고 권하시였다.

총련일군들은 꿀처럼 달고 향기로우면서 새큼하고 싱그러운 독특한 맛에 어려움도 잊고 자꾸만 포도에 손이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본에서는 어디서 포도가 잘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총련일군들은 이전에는 야마나시가 포도의 주생산지였으나 지금은 오까야마가 주요산지로 되였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은 옛날부터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조선사람은 30% 이상 되는 소주를 먹어야 술을 먹었다고 하지 포도주같은 것은 술로 치지 않았다고, 우리 사람들은 포도주는 서방술이라고 하여 잘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독한 술을 마시는것을 장려하지 않지만 제사를 지낼 때에는 비교적 독한 소주를 쓰고있는데 포도주같은것을 제사상에 놓으면 늙은이들이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에 좌중에 웃음이 터져 단란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총련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서 이국땅에 살아도 민족의 고유한 풍속을 잊지 말고 귀중히 지키라는 그이의 간곡한 당부를 받아안았다.

헛기침의 유래

주체69(1980)년 9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전 위원장이며 이 당산하 사회주의리론연구소 소장인 가쯔마다 세이이찌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그때 대표단성원인 중의원 의원 시자마끼 유즈루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겸허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매혹되여 그이께 이번에 조선에 와서 아주 흥미있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흥미있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시자마끼는 그이의 소탈하신 물으심에 주저없이 말씀드리였다.

《저희들은 어제 조선예술영화 〈춘향전〉을 감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앞에서 헛기침을 여러번 하군 하였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관료들이 아래사람들에게 세도를 쓰거나 으

름장을 놓을 때 헛기침을 하군 하는데 조선에서는 그와는 달리 누가 왔다는것을 알리기 위하여 헛기침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척 흥미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에게 그런 관습이 있다고, 헛기침을 세번 하는데 남의 방문앞에 가서 헛기침을 하는 관습은 유교풍습에서 나온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유래를 들려주시였다.

어느날 맹자가 자기 부인의 방에 들어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부인은 웃옷을 벗고 가슴을 드러낸채 앉아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맹자는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맹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녀자가 례절이 너무 없다고 서운해하였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주 총명한 녀성이였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 너의 부인이 례절이 없는것이 아니다, 부인이 필시 옷을 벗을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것일진대 사람이 나타나면 제때에 옷을 입을수 있도록 기침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간 네가 오히려 례절이 없다라고 하면서 맹자를 꾸짖었다.

맹자는 어머니의 꾸짖음을 듣고 자기를 크게 뉘우쳤다. 그리고 이후로는 남의 방에 들어갈 때 문앞에서 헛기침을 세번 한 다음에야 들어가군 하였다.

이렇게 되여 남의 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헛기침을 세번 하는 유교풍습이 생겨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유교를 반대하지만 남의 방문앞에 가서 례절을 지키는 관습은 나쁜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고있던 시자마끼는 조선사람들이 헛기침을 하게 된 유래를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도 유교를 믿지 않지만 례절을 지키는 관습만은 나쁠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긍정하시면서 우리는 유교교리를 덮어놓고 나쁜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것을 사회주의리념에 인위적으로 대치시키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우리는 봉건적인 유교교리의 반인민성을 반대하는것이지 인간의 도덕적기초를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원리적측면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시자마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한없이 넓은 견문의 무한한 세계에 탄복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고유한 미풍량속에 대하여 더욱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되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중국의 설풍속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래 중국사람들에게는 음력 정월초하루부터 2월 2일까지 한달동안 계속 노는 풍속이 있다고, 그들은 음력 2월 2일을 룡대두(룡이 대가리를 쳐든 날)라고 하면서 정월에 잡은 돼지대가리를 다 삶아먹어야 명절놀이를 끝낸다고 말씀하시였다.

《부동녀서》와 《좋을 호》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그의 무덤을 력사적 기념비로 개건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 10월 20일 친히 단군릉개건관계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였다.

단군릉개건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덤칸안공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덤칸안에 단군의 유골은 오른쪽에 놓고 부인의 유골은 왼쪽에 놓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무덤칸안꾸리기에서 유골위치문제가 일정에 올라 이런저런 의견들이 제기되고있었으나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있던 시기였다.

우리 나라 풍습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살아있을 때와 반대로 유골위치를 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알고있었지만 그때까지 남녀의 위치문제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같은것을 실례로 들면서 남자의 위치는 녀자의 오른쪽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력사전문가들도 정확한 해명을 찾지 못하던 유골위치문제를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시였으니 일

군들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날 우리 나라의 풍습에는 결혼식이나 환갑잔치를 할 때 남자와 녀자의 서는 자리를 남쪽을 향하여 부동녀서로 정하고 남자는 동쪽에 서고 녀자는 서쪽에 서게 하였다고, 이것은 한문글자 《좋을 호》(好)자만 보아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력사자료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강희황제시기에 글을 많이 고쳤는데 《좋을 호》자는 바로 강희황제가 만들었다는 글자이다.

남자와 녀자가 같이 있으면 좋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좋을 호》자는 《녀자 녀》자와 《아들 자》자가 결합되여 이루어진 한자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자의 오른쪽에 녀자가 있는것으로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중국에서 공부하실 때 중국선생들과 사람들에게서 듣고 그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남자가 왼쪽에 서고 녀자가 오른쪽에 서는것을 남좌녀우라고도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그 어느 력사가도 따를수 없는 해박한 력사지식과 민족적풍습까지도 다 정통하고계시는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시였으며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우수한 민족의 전통을 더욱 아름답게 계승발전시켜주시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시였다.

쟁반국수의 유래

주체81(1992)년 4월 15일이였다.

이날 금수산의사당(당시)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의 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의 마감으로 쟁반국수가 식탁에 올랐을 때였다.

국가수반들은 금빛이 도는 놋쟁반에 소담하게 차려놓은 국수를 보자 호기심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무슨 음식인가고 문의하였다.

연회에 참가한 국가수반 거의 모두가 국수를 처음 보았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며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 즐겨먹는 국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쟁반국수에 재미있는 유래가 깃들어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는가고 좌중에 물으시였다.

구미가 부쩍 동한 연회참가자들은 저저마다 이야기를 듣고싶어 청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기심에 넘쳐있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국수는 원래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음식이지만 쟁반국수는 리조봉건통치시기 관료배들

이 기생들과 함께 입을 마주대고 먹기 위해 만든것이다.

평양쟁반국수는 예로부터 큰 놋쟁반에 국수를 무드기 담아놓고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마주앉아 함께 먹었다.

돈많은 부자들은 뜨뜻한 온돌방에 기생들과 마주앉아 큰 놋쟁반에 국수와 함께 여러가지 맛있는 꾸미를 놓은 다음 국수가 식을세라 육수를 계속 부어가며 먹었다.

그들은 꾸미로 놓은 닭고기나 소고기, 버섯, 녹두나물 같은것을 안주삼아 기생들이 부어주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껏 취기가 오르면 기생들과 이마를 마주대고 서로 국수를 당겨가며 먹었다. 그러다보니 량반의 입으로 들어갔던 국수오리가 기생의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생의 입으로 들어갔던 국수오리가 량반의 입으로 들어갔다.

이렇듯 부패타락한 봉건관료들은 쟁반국수를 해먹는것을 한갖 유흥거리로 삼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자 좌중에서는 웃음이 피여올랐다.

국가수반들은 쟁반국수를 어서 맛보고싶어 성급히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국수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국수는 저가락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쟁반국수를 먹고난 외국수반들은 저마다 감탄하며 말하였다.

《조선의 쟁반국수는 정말 별식입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

대박산기슭의 단군릉

주체82(1993)년 9월 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동군 강동읍에 있는 옛 단군릉을 찾으시였다.

크지 않은 무덤은 오랜 세월 눈비를 맞으며 거칠어지고 낮아져 볼품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릉을 돌아보시다가 단군릉이 요란한줄 알았는데 실지 와보니 작다고 하시면서 나는 그래도 리조 500년시기에 무엇을 좀 꾸려놓은것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릉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단군릉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단군릉자리를 좋은 곳에 정하고 잘 개건해야 하겠다고, 내가 릉의 자리를 보아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자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행과 함께 대박산기슭에 이르시여 차를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대박산기슭의 봉긋한 야산을 한동안 유심히 살피시였다.

대박산을 끼고앉은 야산은 앞이 탁 티여 시원하고 다듬어놓은듯 자태가 방정하고 아름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족해하시며 단군릉을 개건할 자리로는 문흥리고인돌유적이 있는 이 야산마루가 제일 좋은것 같다고,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같이 앞이 탁 티여 멀리까지 바라보이고 도로에서도 가

까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참관하러 오기도 편리하기때문에 여기에 단군릉을 건설하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 로학자가 격정을 금치 못해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 여기가 참으로 명당자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 명당자리야, 여기에 단군릉을 척 앉히면 참으로 멋있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단군릉을 잘 개건하는것은 우리 나라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오랜 력사국이고 우리 민족이 생겨난 때로부터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며 혁명의 수도 평양이 단군의 태가 묻힌 조선민족의 원고향이라는것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단군릉복구위원회까지 조직해주시고 릉개건공사의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형성안을 조선민족의 시조왕의 릉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배달민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달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최덕신선생이 미국에 망명하여가서 살 때 조선사람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면서 《배달신보》라는 신문을 발간하였는데 배달민족이라는 말은 단군의 후손이라는 뜻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답게 손색이 없이 잘 만들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단군릉복구위원회에서 제기한 최종형성안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고 친히 비준해주시였다.

그날이 바로 주체83(1994)년 7월 6일이였다.

친필존함의 그 비준문건은 7월 7일의 조국통일문건과 함께 우리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준해주신 친필문건이였다.

그것은 성스러운 조국애, 민족애의 위대한 정화였다.

단군릉개건공사가 끝난것은 피눈물의 그해 10월 11일이였다.

그날에 성대한 단군릉개건식이 진행되였다.

중국과 일본, 남조선에서는 물론 멀리 아메리카주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오세안주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평양으로 달려왔다.

단군릉개건비비문을 읽는 해설원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사람들을 울리였다.

동방의 유구한 나라
옛 조선의 기상을 안고
주체조선의 푸른 하늘아래
거연히 솟아오른 단군릉
여기에 내 나라 우리 민족을 내세우신
수령님의 숭고한 뜻 깃들어있어라
…
단군릉에 이끼푸를 먼 후날에도
애국애족의 높은 뜻
로동당시대의 전설로 빛나리니

수령님 칭송하는 겨레의 한마음
여기 삼가 비에 새겨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노라

신비한 관찰력

강원도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천재적관찰력이 비껴있는 한그루 감나무가 있다.

주체50(1961)년 10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푸른 하늘도 높이 들린 풍요한 가을날, 오곡백과가 설레이고 구수한 낟알향기가 실려오던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삼농업협동조합(당시)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마을어귀의 수수한 농가에도 들리시여 자애로운 어버이심정으로 살림살이를 따뜻이 보살펴주신 수령님께서는 관리위원회 사무실곁에 있는 한그루 감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알알이 붉게 익은 탐스러운 감알들로 가지가 휘여든 감나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곁에 있던 조합원들과 일군들에게 저 감나무에 감이 얼마 달렸을것 같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관리위원장은 한 500알 달렸을것이라고 말씀올렸고 수행한 일군들은 저마다 600～700알 달렸을것 같다고 자기 생각을 말씀드렸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던 수령님께서는 가벼이 머리를 저으시며 아니 한 800알 좀더 되게 달렸을것 같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감나무도 많이 심고 재배관리를 잘하면 현금수입도 높이고 아이들에게 감을 실컷 먹일수 있을것이라고 다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가신 얼마후 그 사연깊은 감나무의 감을 수확하게 되였다.

온 조합사람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모여든 가운데 정성껏 감을 따면서 한알두알 그 수를 세여보았다.

마지막 감알을 놓는 순간 온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탄성을 터쳤다.

꼭 803알이 되였던것이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산 로인들은 800알하고 복삼자수를 합한 803알이 되였은즉 이것은 앞으로 우리 조합의 감농사가 길할것이라는것을 예언하신것이라고 무릎을 치며 이야기하였다.

한생 감을 가꾸어온 로인들도 짐작하지 못한 감알의 수를 우리 수령님께서 알아맞추시였으니 과시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온 마을사람들은 자리를 뜰줄 몰랐다.

몸소 가르쳐주신 명안

예로부터 황해남도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소문이 났지만 바람피해 또한 많이 입는 곳이라고 하여 풍해도라고도 불리웠다.

특히 바다를 끼고있는 옹진과 강령군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그고장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곡작물대신 바람이 불어도 아무 일없는 고구마를 많이 심어왔다.

주체77(1988)년 12월 어느 한 농업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에는 태풍이 자주 불기때문에 논밭에 키낮은 알곡작물을 심어야지 키큰 알곡작물을 심어서는 재미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조상들은 태풍피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때문에 옹진반도와 같이 태풍이 자주 부는 지방에는 바람이 불어도 아무 일없는 고구마를 많이 심었다. 옛날에 옹진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여 배에 싣고 인천이나 서울에 가져다 팔군 하였다. 그때 서울에서 파는 고구마는 거의다 옹진반도에서 나는것이였다. 옹진사람들이 평양지방에도 고구마를 가져다 팔았다.

태풍이 자주 부는 중국의 산동지방에서도 고구마를 많이 심는데 그 지방사람들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고있다. 중국말에 《싼둥츠디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산

동사람들이 고구마를 주식으로 한다는 말이다. 중국말로 《디과》라는것은 고구마라는 말이다. 산동지방사람들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고구마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은 고구마를 드문드문 맛으로나 먹는다. 그러므로 황해남도에서는 옹진반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에 태풍이 분다고 하여도 알곡을 심어야지 옛날처럼 고구마만 심어서는 안된다. 황해남도에서 태풍이 부는 지대에 고구마만 심어가지고서는 식량문제를 풀수 없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에서는 태풍이 부는 지대에도 알곡을 심되 태풍에 견딜수 있는 키낮은 종자를 심어야 한다고, 황해남도농사에서 키낮은 종자를 심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며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몽골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주체75(1986)년 11월 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당시)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해주시였다.

회의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는데 거기에는 남새통졸임과 과일통졸임, 수산물통졸임 같은 가공품을 몽골에 많이 팔데 대한 문제도 반영되였다.

일군들의 토론도 들으시고 그들의 의견도 받아주시며 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에 접하

시자 1956년도에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시다가 몽골에 들렸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는듯 감회깊은 눈길로 회의장안을 둘러보시며 몽골사람들은 원래 남새와 과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추도 잘 먹지 않고 남새도 잘 먹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시 몽골인민혁명당 제1비서를 하던 쩨덴발의 말에 의하면 몽골사람들은 남새는 잘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밀도 조금씩 생산하지만 잘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다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몽골사람들은 짐승사냥과 집짐승을 방목하는것을 제일 좋아하기때문에 강에 나가서 낚시질같은것은 거의나 하지 않는다고, 더우기 물고기를 잘 먹지 않아서 낚시질이나 물고기잡이에는 흥심이 없다고, 그래서 몽골의 강들에는 낚시군들이나 물고기《사냥군》들에게 잡힐 념려가 없는 물고기들이 욱실거려서 어쩌다 나타나는 낚시군들에게는 경기가 좋다고, 몽골사람들은 지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낚시군을 보면 저 사람이 고기가 얼마나 먹고싶으면 물속에 있는 쪼끄만 고기를 잡으러 다니겠는가고 생각하면서 통양불고기를 해놓고는 이것을 먹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말라고까지 하였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몽골사람들은 물고기를 먹는것보다 통양을 구워먹는것을 더 좋아하였다고 가르쳐주시면서 몽골사람들의 특이한 습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몽골사람들은 예로부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싸움도 하고 방목도 해온 유목민이여서 말을 타고 하는 일외에 다

른 일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농사나 낚시질은 그들의 습관이나 특성에 맞지 않는 일이였다.

한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쩨덴발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무연한 초원을 지나가시게 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세워놓고 그밑에 마대를 깔고 누워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낮에 길가에 누워있는 그들이 하도 이상스러워 쩨덴발에게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무엇을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쩨덴발은 저들이 바로 유목민들인데 말그림자를 리용하여 자고있다고 하였다. 일행이 승용차를 타고 돌아올 때도 그들은 그대로 누워있었다. 다만 말그림자를 따라서 이쪽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자리를 옮겼을뿐이였다. 쩨덴발은 저들이 그늘이 없어 말을 세워놓고 말그림자를 따라 자리를 옮기면서 자고있는데 풍을 치기 싫어 그런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여 열심히 듣고있던 일군들은 그만에야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를 스스로 깨달았다. 그들은 몽골이라는 나라를 그저 지리책에서 알고있던바그대로 깊은 연구없이 피상적으로 대했던것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1 000m이상의 고원과 사막으로 되여있고 바다를 끼지 않은 나라여서 과일과 남새가 잘되지 않을것이며 수산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을뿐이였다.

만일 일군들이 구체적인 연구와 파악이 없이 이처럼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국가에 참으로 커다란 손실을 주었을것이다. 헤아릴수없이 많은 량의 식료가공품이 팔리지 않아 막대한 자금이 순환되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생산에 주는 피해는 또 얼마나 클것인가.

일군들은 자책되는바가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몽골사람들이 남새와 과일을 잘 먹지 않는 조건에서 남새통졸임과 과일통졸임 같은 가공품은 몽골에 파는것보다 이웃나라의 원동지방에 많이 파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해결방도에 대해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하늘닭고기》

1940년대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군정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해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쏘련군(당시)측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연회를 차렸다.

그때 동석했던 쏘련원동군 정찰국장이 슬그머니 우리 수령님께 다가왔다.

《**김일성**동지! 제가 개구리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간청하듯이 몰래 여쭙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고 왜 그러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자기 부인쪽을 힐끔 바라보고는 그걸 알면 처가 입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통사정》을 하였다.

얼마전 그가 조선인민혁명군부대에 왔을 때였다. 그는 배가 몹시 고팠던지 첫마디에 먹을것부터 청하였다. 그런데 부대에도 식량이 떨어져 모두들 얼음을 까고 개구리

를 잡고있는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것은 없는데 개구리료리라도 먹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그는 한순간 굳어졌다. 《개구리를 먹으면 자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온 그였던것이다.

하지만 이미 배고픔이 한계를 넘었던지라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시면 먹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께름했던지 술 한잔만 같이 달라고 하였다.

잠간사이에 그는 술과 함께 기름에 튀긴 개구리료리를 한사발이나 먹었다. 정찰국장은 바로 그 일을 두고 말하는것이였다.

속담에 감추려고 하면 더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 어느틈에 알았는지 원동군사령관 쥬꼬브가 상우의 닭고기를 집으면서 슬쩍 말꼭지를 떼였다.

《**김일성**동지! 우리 정찰국장에게 이것보다 더 맛있는걸 대접하셨다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처하시여 정찰국장과 부인을 번갈아보시였다.

그러시더니 웃음을 띄우시고 《하늘닭고기》라는것이 있다, 그건 보통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먹는데 돈을 많이 내야만 준다, 정찰국장이 특별손님으로 우리한테 왔기때문에 내가 《하늘닭고기》를 대접했다, 그 《하늘닭》이 어떻게 우는가 하니 하시고는 말씀을 끊으시였다.

사람들은 《하늘닭고기》가 무엇인지 몰라 눈이 둥그래졌다. 개구리를 《하늘닭고기》라고 하셨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이께서 낮게 《하늘닭》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시였다.

순간 좌중엔 폭소가 터졌다. 정찰국장 한사람만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도 인차 웃음판에 합류되고말았다.

그의 부인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있었던것이다. 부인은 물론 연회참가자들모두가 우리 수령님의 기발하신 유모아에 매혹되여 그이를 우러르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그들부부는 평양에 와서 사업하면서 첫아들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부인에게 당신이 개구리고기를 먹은 남편하고 말할 생각도 없고 입도 안맞추겠다고 했다는데 그 사람과 입을 맞추니까 아들만 낳지 않았는가고 말씀하시였다.

부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가지고 어쩔줄 몰라하며 말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어쩜 유모아도 그렇게 잘하십니까. …》

위인에 대한 카터의 탄복

주체83(1994)년 6월 17일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의 우리 나라 방문때에 있은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흰 물갈기를 날리며 대동강하류를 따라 경쾌히 내달리는 유람선우에서 카터와 이야기를 나

누시였다.

유람선이 도시를 벗어나 어느 한 곳을 지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한 수원을 부르시여 배의 속도를 늦추라고 하시였다.

조선말을 모르는 카터는 갑자기 배의 속도가 떠지는 것이 이상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사유를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시며 저길 보라, 지금 근로자들이 강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결을 세차게 일구어주면 방해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저들에게 방해를 주지 말자고 말씀하시였다.

카터는 그이의 말씀에 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자기로서는 생각도 못했고 또 생각할수도 없었던 일을 눈앞의 현실로 보았기때문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와 함께 배를 타고 서해갑문으로 가시면서 그를 위해 오찬을 차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를 식탁에 청하시고 어서 많이 들라고 친절히 권하시였다.

카터는 놀랐다.

음식들이 자기를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는것이 첫눈에 알렸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이 콩알레르기체질이라는것을 알고 그에 맞게 음식들을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어서 들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카터는 어떻게 자기의 식성까지 다 알고계시는가고 말씀드리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자신께서는

세상에 모르는것이 없다고 허물없이 롱담을 하시였다.

그이의 소탈하신 말씀에 카터도 흥겹게 따라 웃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우에서 카터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평양거리에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로부터 공해를 모르는 신선한 자연의 혜택으로 무병장수하는 인민들의 수명에 이르기까지, 세계굴지의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전설같은 기적담으로부터 푸르러가는 전야의 농사작황 그리고 현국제관계의 발전추이에 이르기까지 화제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견도 피력하시였다.

카터는 위대한 수령님의 해박한 지식과 넓은 식견에 매혹되였다.

뜻깊은 시간이 흘러 배는 남포항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는 남포항기슭의 전경을 부감하다가 두개의 크지 않은 싸이로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몹시도 알고싶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주석각하, 저기 보이는 싸이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실수 없습니까?》

그 싸이로에 그 무슨 《핵》이라도 들어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했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혹을 품고 묻는 카터에게 이쪽 싸이로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저쪽 싸이로에는 무엇이 차있다고 상세히 설명해주시였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계에 국가수반들이 많지만 자그마한 싸이로에 무엇이 들어있다는것까지 알고있는 국가수반은 없을것입니다. 정말 주석각하는 세상에 모르시는것이 없습니다.》

핵전문가로 자처하는 그였지만 전날에 있은 담화석상에서 이미 핵문제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계시는 그이께 완전히 매혹되였던 카터는 다시금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애기들의 《직업》

어느해 여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군의 직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다가 탁아소를 꼭 보고 가야겠다고 하시면서 공장탁아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지적발전은 몇살부터 시작되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적발전은 5~6살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50살이 넘은 다음에도 5~6살때에 겪은 일을 기억하고있는것을 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공장탁아소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먼저 갓난애기들의 방을 돌아보시였다.

젖먹이시간이 되여서인지 애기들이 울어대며 보채고 있었다.

(이걸 어쩌나. 수령님께서 애기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가셔야겠는데…)

급해난 보육원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애기들이 울어대는것이 자기들의 탓인것만 같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돋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을 달래려고 울상이 되여 애쓰는 보육원들을 이윽토록 지켜보시다가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지 마시오, 아이들은 좋아도 울고 싫어도 울며 잠이 와도 웁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보육원들에게 애기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보육원들은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할지 몸둘바를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들에게 아이들은 우는게 직업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보육원들은 그 말씀이 너무도 신통하여 《아이, 어쩌면…》 하고 탄성을 터치였다.

보육원들의 마음을 한껏 밝게 해주신 그이의 말씀은 누구나 처음 듣는 명답이였다.

조선의 《민족식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추장과 장절임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만들어 먹는 《민족식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가을에 겨울김장을 하면서 무우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썰어 말리웠다가 깨끗이 씻어 양념을 하여 겨울과 봄, 여름에 반찬이 부족할 때 밑반찬으로 리용하여왔다, 말린 무우속에는 사람들의 건강에 필요한 여러가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여있고 그 맛도 또한 좋다, 고추장과 간장, 된장도 조선의 자랑이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콩에 많은 단백질을 그대로 먹은것이 아니라 삶아서 발효시켜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만들어 먹었다,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면 맛도 있고 소화흡수도 잘된다, 옛날부터 장만 먹어도 건강해진다고들 하지 않는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장을 조금씩 만들어 먹는다고 하

○ 알려주신 토막상식 ○

감　　주

《감주는 맛이 좋고 독특합니다. 옛날부터 조선사람들은 가정에서 감주를 만들어 마시였습니다. 감주는 밥갈은데 길금가루를 넣어 발효시킨것을 밝아서 만듭니다.》

지만 우리 인민들이 먹는 고유한 간장, 된장, 고추장에는 비교도 할수 없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문명하고 슬기로운 인민이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의 특산음식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앞둔 어느 따뜻한 봄날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승용차를 타시고 평양시내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시야에 안겨오는 국수집이며 온반집이라고 쓴 식당들의 이름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뒤자리에 앉은 젊은 일군들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며 옛날부터 평양사람들은 대동강에서 숭어를 잡아 숭어국을 끓여먹었다, 숭어국은 평양특식의 하나이다, 평양사람들은 지난날 랭면과 온반, 숭어국, 녹두지짐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랭면과 온반, 숭어국, 녹두지짐은 평양사람들이 만들어 먹은 음식들가운데서 제일 이름있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평양의 특산음식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시였다.

평양온반은 흰쌀밥에 볶은 닭고기와 버섯을 두고 닭고기국물에 말아먹게 만든 음식이다.

말만 들어도 구미가 당겨서 젊은 일군들은 서로 마주보고 군침을 삼키며 눈웃음을 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의 세부도 놓치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시 숭어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어국은 랭수로 끓여야 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숭어국을 고추장을 넣고 끓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랭수에 끓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랭수에 끓인 숭어랭수탕을 맛보이자고 합니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하여 나는 평양음식가운데서 랭면과 온반, 숭어국, 녹두지짐이 특식이기때문에 당중앙위원회 해당부문 일군에게 평양시안의 식당들에서 랭면과 온반, 숭어국, 녹두지짐을 만들어 파는것을 장려하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월의 풍상속에서 잊어버리거나 다 알지 못하고있던 평양의 특산음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우리 인민이 마음껏 먹도록 크나큰 심혈과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류 경

《옛날에 평양에 버드나무가 많다고 하여 우리 조상들이 버들류자에 서울경자를 써서 평양을 류경이라고 하였는데 그후에 봉건통치배들이 서도사람들을 헐뜯기 위하여 기생이 많아 류경이라고 한다고 허튼소리를 하였습니다.》

개성특식 추어탕

어느해 9월이였다.

개성시를 찾으시여 새로 건설한 백화점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개성시 일군들에게 개성의 특식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상밥인것 같다고 자신없이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가벼이 웃으시며 그런것은 특식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이번에는 한 일군이 설렁탕인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렁탕은 서울특식이라고 하시며 또 《퇴짜》를 놓으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백화점을 다 돌아보시고 갓 지은 자남산려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층 휴계실에 이르시여 일군들에게 개성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개성시에서 일러주는 여러가지 민족음식들을 아는껏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그이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개성에서 오래 산 로인을 찾으시여 개성특식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로인은 예로부터 개성에서는 추어탕을 별식으로 일러왔다고 말씀올렸다.

그제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옳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개성사람들은 추어탕을 좋아하였다.

추어탕이라는것은 두부와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국이다.

지난날 개성사람들이 만들어 먹던 이런 특식을 다 찾아내여 인민들에게 만들어 봉사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자남산기슭에는 개성특식 추어탕을 전문으로 하는 새 식당이 생겨났다.

은어와 도루메기

주체76(1987)년 11월 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회의에서 일군들에게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다가 청천강에서 사는 은어와 동해에서 사는 도루메기가 헛갈리게 된 옛이야기를 여담삼아 들려주시였다.

옛날 어느 한 왕이 배를 타고 바다로 배놀이를 나간적이 있었다.

흥겨운 배놀이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즐기고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더니 바람이 터지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왕과 신하들이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고있는데 사공이 바람새를 살펴보더니 능란한 솜씨로 배를 빼몰아 어느 한 섬에 무사히 닿게 되였다.

왕과 그 일행은 사공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지였으나 새로운 위험과 맞다들게 되였다.

험한 바위들만 들쑹날쑹한 외진 섬에는 나무 한대도 없었고 먹을것이라고는 보고 죽을래야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사나운 파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였고 얼마간 있던 식량도 떨어진지 벌써 며칠이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모진 배고픔을 가까스로 참아가던 왕에게 배사공이 김이 문문나는 물고기국을 한사발 끓여가지고 왔다.

며칠이나 때식을 건는 왕인지라 체면을 차릴새없이 배사공이 가지고온 음식을 게눈감추듯 하였다.

그 국은 참으로 천하일미였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있다는것을 내가 왜 아직 모르고있었을가?!…)

왕은 난생처음 먹어본 물고기국이 하도 별맛이여서 사공에게 물었다.

《그 물고기이름은 무엇이냐?》

《예. 메기라고 부르나이다.》

사공의 대답을 들은 왕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렇게 기름지고 맛좋은 물고기의 이름을 어째서 그렇게 천하게 지었는가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물고기의 이름을 은어라고 부르라고 분부하였다.

그처럼 사납게 불던 바람도 어느덧 멎고 푸른 바다도 잠잠해졌다.

왕은 며칠이 지나 궁궐로 돌아왔다. 매일같이 차려들여오는 진수성찬에 싫증을 느낀 왕은 외진 섬에서 먹

어본 물고기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는 당장 은어를 잡아다 국을 끓여 들여오라고 어명을 내리였다. 신하들은 어명을 받자 그 물고기를 잡아다 국을 끓여 왕에게 드리였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본 왕은 어찌나 맛이 없었던지 이마를 찌프리고 입을 쩝쩝 다시였다. 그러더니 이렇게 맛도 없는 물고기에 은어라는 이름을 단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역시 메기는 메기로다. 그러니 은어의 이름을 도로 메기라고 부르라.》하고 어명을 내리였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바다에서 사는 은어를 도루메기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이야기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도 함경남북도사람들은 동해에서 나는 은어를 도루메기라고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은어는 청천강에서 사는것이 진짜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칠색송어

《칠색송어는 찬물에서 자라는 민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가시도 적고 맛도 좋습니다. 칠색송어는 16~18℃정도되는 물에서 잘사는데 물온도가 높으면 죽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실험한데 의하면 민물고기인 칠색송어를 바다에서 기르면 물고기의 무게가 빨리 늘어난다고 합니다.》

청천강에서 사는 은어는 물고기들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물고기이다.

수령님께서는 은어는 개천군(당시) 도화리부근의 청천강에서 알낳이를 하는데 거기서 까난 새끼들이 조금 자란 다음 청천강하구의 바다에 내려가 겨울을 나고 다시 청천강으로 올라오는데 알을 낳기 전에 먹이를 많이 먹느라고 희천부근에까지도 올라간다고 한다, 청천강을 따라 올라갔던 은어가 알낳이때가 되면 다시 개천군 도화리부근에 내려온다고 하시며 은어의 생태환경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모리따니와 특이한 민족적풍습

주체64(1975)년 6월 24일이였다.

모리따니에 대한 방문을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대표단성원들에게 모리따니와 이 나라의 특이한 민족적풍습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 **이슬람공화국**

모리따니는 지난날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때에는 수도도 없이 한개 지방처럼 되여있었으며 사람들은 유목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하여 이슬람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인구는 150만명도 채 못된다고 한다.

모리따니사람들은 어렵게 살며 고생을 많이 하고있다. 모리따니는 나라의 수도를 사하라사막의 바다가에 건설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산골군소재지만 하다.

수도의 날씨를 보면 낮에는 무덥고 저녁에만 좀 선선한데 매일 모래바람이 분다.

모리따니에서는 국가공무원들과 외국사람들이나 살림집을 가지고 살지 인민들은 풍막을 치고 산다.

◦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다.

모리따니에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풍습이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배안에 쌀을 가득 채워넣고 통채로 구운 다음 그것을 상우에 올려놓고 손으로 밥과 고기를 집어먹는데 손님에게도 손으로 집어준다.

손님은 주인의 손으로 집어주는것을 몇번 받아먹어야 서로 친한 사이의 맛이 난다고 한다.

◦ 긴장한 물문제

모리따니 수도에는 먹는 물문제가 매우 긴장하다.

우리 나라 대사관에 샘물이 있는데 밤마다 물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수도에서 세네갈강까지의 거리가 한 200㎞ 된다고 한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자면 굵은 관을 묻어야지 수로를 파서는 안된다.

수로를 파면 인차 메워진다.

원동지방의 도시 치따

주체66(1977)년 3월 9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한 구분대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쏘련(당시)의 원동지방의 도시 치따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쏘련의 원동지방에 치따라는 도시가 있다. 치따라는것은 셈을 센다는 로씨야말에서 나온것인데 도시를 이렇게 부르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그전에 로씨야군대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원동지방을 정복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오는데 큰 강이 하나 나타났다고 한다.

강을 건느지 못한 로씨야군대는 거기에서 황제에게 강 건너편에 있는 땅도 로씨야땅으로 세라는가 세지 말라는가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 보고를 받은 황제는 그 땅도 로씨야땅으로 세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그곳을 치따라고 불렀다고 한다.

쏘피아의 돌포장

주체64(1975)년 6월 17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부문 일군협의회에 참석하시여 일군들에게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포장은 돌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길을 돌로 포장하면 오래간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럽에 가보니 로므니아에서도 길에 돌포장을 많이 하였고 벌가리아에서도 돌포장을 많이 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당시)에서도 돌포장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길을 돌로 포장하면 몇백년 간다고 하시며 쏘피아의 돌포장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쏘피아에는 그전에 벌가리아가 뛰르끼예한테 강점되였을 때 돌포장을 한 길이 많은데 이제는 한 300년이 되였지만 아직 그대로 있다고 한다.

쏘피아의 옛날 거리들을 비롯하여 시내에 깔아놓은 돌은 우리 나라의 길에 깔아놓은 돌처럼 크게 만들지 않고 모두 자그마하게 만들어 이발처럼 박아넣었기때문에 잘 마사지지 않으며 마사지면 그것을 빼내고 인차 다른것을 박아넣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쏘피아시내에 깔아놓은 돌은 한 300년 되는데 아직도 몇백년 가겠는지 모른다고 한다.

해삼위와 벌리

주체75(1986)년 7월 어느날 벌써 몇시간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함경북도 인민들이 잘살아나

갈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계시였다.

이야기가 얼마나 진지하고 구체적인지 일군들은 모두 깊이 감동된 눈빛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는 울라지보스또크와 가깝기때문에 해삼도 많이 양식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중국사람들은 울라지보스또크에 해삼이 많기때문에 그곳을 해삼위라고 불렀다고 하시며 그 력사적유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원래 옛날 원동지방은 조선땅이였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첫 국가였던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우리 단군민족과 숨결을 같이해온 원동지방이 중국사람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간것은 1392년 리성계의 반란으로 이 땅우에 리씨조선이 선 다음부터였다.

이때부터 주인을 잘못 만난 짐승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하는 원동지방의 수난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리성계의 반란으로 조선내정이 복잡한 동란을 겪고있을 때 아득한 태고적부터 우리 선조들이 길들여온 북방의 그 광활한 령토는 스스로 중국만주족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원동지방은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남의 나라 지경에 내던지다싶이 되였다.

그후 중국의 서태후가 집권하게 되였다. 그는 나라의 정사는 관계없이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여 긁어모은 국고금을 탕진해가면서 지은 이화원(별궁)에 들어앉아 온갖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아왔다.

그리하여 중국인민들을 도탄속에 몰아넣었으며 나라는 쇠진할대로 쇠진해졌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자본주의렬강들이 중국에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잡다단한 중국의 력사를 더듬어 보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천천히 회의장안을 둘러보시며 서태후가 집권하고있던 시기에 8개 나라 련합군이 천진에 상륙한 다음 베이징을 들이쳤다, 그때 로씨야사람들이 나서서 화해를 시켜주었는데 그 값으로 중국에서는 원동지방을 로씨야에 넘겨주었다, 울라지보스또크를 해삼위, 하바롭스크를 벌리라고 하는것은 다 그전에 중국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회의에 참가한 거의 모든 일군들이 처음으로 듣는 말이였다.

참으로 아득히 흘러간 파란많은 력사와 더불어 생겨난 지방소도시의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까지 깊은 조예를 가지고계시며 일군들에게 알려주시는 수령님의 해박한 식견과 심오한 상식의 세계는 온 우주를 통채로 안고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하바롭스크

《일부 지도책에는 하바롭스크가 합부 또는 백력이라는 지명으로 기입되여있습니다. …

하바롭스크라는 도시이름은 원동개척자의 한사람인 하바로브의 이름을 딴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한복판의 역전광장에는 하바로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인류문명의 은인》

주체83(1994)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회에서 대표단단장은 우리 나라 방문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특히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외국인사들로부터 많은 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쏘련사람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책만 하여도 5만권은 넘을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선물로 받은 책들을 모두 인민대학습당에 보내주었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쏘련군대가 차지하고있는 곳에 가신 일이 있었다.

그곳에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쏘련군대군인들은 여러 나라의 많은 책들을 압수하여 창고에 넣어두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군대지휘관에게 그 책들을 몽땅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비행기로 실어온 그 책들을 모두 중앙도서관(당시)에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책들이 지금도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여있을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연을 알고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볍게 웃으시

였다.

대표단단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정말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김일성**동지는 인류문명의 은인이십니다.》

무릉도원의 유래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어느 한 지방의 풍경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좋은 풍경인가, 이야말로 누구나 걱정없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민의 락원이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꿈꾸어오던 무릉도원이 현실로 펼쳐졌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살기 좋은 고장을 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살기 좋은 별천지를 이르는 말이라는것은 알았지만 그 말의 유래는 모르고있었다.

일군들이 대답을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무릉도원이라는 말은 옛날사람들이 자기들의 리상을 표현하던 말이라고 허두를 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옛날 어느 한 나라에 무릉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

기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한 어부가 살고있었다. 그는 어느날 고기를 잡으려 강물을 거슬러 그냥 올라가다가 그만 길을 헛갈려 어데까지 왔는지 방향을 잃게 되였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며 노를 젓는데 량쪽 강기슭에 복숭아꽃이 활짝 핀 고장이 나타났다.

다른 나무는 한그루도 없고 온통 복숭아나무뿐인데 꽃이 만발한것이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하도 신기하여 어부가 앞으로 더 나가보려고 하니 복숭아꽃밭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눈앞에 큰 산이 우뚝 솟아났다.

자세히 살펴보니 웬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눈부신 빛발이 뿜어져나오고있었다.

그래서 어부는 배에서 내려 동굴로 들어가보았다.

동굴은 처음에 한사람이 겨우 들어갈만큼 좁던것이 차츰 넓어지더니 갑자기 앞이 탁 트이면서 난생처음 보는 별천지가 펼쳐졌다.

병풍처럼 둘러선 야산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기름진 벌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었는데 그 한가운데 오붓한 마을이 자리잡고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남녀로소모두가 한가정처럼 화목하고 평등하게 아무런 걱정없이 살고있었다.

그들은 어부가 온것을 보자 크게 놀라며 어디서 왔는가고 물었다. 바깥세상에서 왔다고 하자 그들은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닭을 잡는다, 떡을 친다 하면서 푸짐히 대접들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란을 피하여 이고장에 들어와 사오백년을 살아오는데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마을의 좌상인 늙은이는 어부를 친절히 데리고다니며 자기네 별천지를 남김없이 다 구경시켰다.

끝없는 황홀경에 빠져 꿈같은 세상을 다 돌아본 어부는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으면 좋을지 몰라 그 늙은이에게 약소하지만 받아달라고 하면서 몇푼의 돈을 내놓았다.

그러자 로인은 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이미 돈이라는것이 없어진지 오래다, 돈이란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천한것이다, 돈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며 슬프게도 만들고 비굴하게도 만든다, 여기서는 돈이 사람을 쥐락펴락하지 못한다, 돈은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떠나가는 어부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 절대로 이고장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 알려주신 토막상식 ○

금수강산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말은 우리 조국강산이 비단천에 수를 놓은것처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도 많고 강도 많으며 바다를 끼고있어 어디나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어부는 그들의 따뜻한 바래움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별천지에서 나오면서 길에 표식을 해놓은 어부는 무릉에 돌아오자 그간의 사연을 고을 태수에게 사실그대로 아뢰였다.

그런 다음 다시 그고장을 찾아가보려고 떠났다.

그러나 그만 중도에서 길을 잃고 끝내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무릉의 어부가 도원(복숭아동산)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로 그때부터 무릉도원은 별천지, 리상사회의 대명사로 되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알제리와 민족적풍습 몇가지

주체64(1975)년 6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대표단과 담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제리와 민족적풍습 이모저모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 **수도와 건물**

알제리 수도 알제(당시)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건설한 항구도시인데 좀 낡았다. 건물들은 높지만 골목은 좁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그곳을 더울 때 와서 휴양하면서 해수욕이나 하자고 건설하였다.

◦ **450만정보의 포도원**

알제리에는 좋은 땅이 많은데 거기에 포도와 귤나무

를 심었다. 포도원이 한 450만정보되는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날 프랑스는 알제리를 포도생산기지로 만들었다. 포도원은 방풍림을 조성하고 그사이에 규모있게 만들었다.

알제리는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포도를 팔아 사온다고 한다.

◦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여있는 녀성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알제리를 방문하시였을 때 이 나라에서는 젊은 이슬람교녀인들이 머리에 쓰고다니던 수건을 벗고 환영행사에 참가하였다.

원래 알제리에서는 녀성들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여있다고 한다.

대통령인 부메디엔의 부인도 민족적풍습에 의하여 연회에 참가하거나 비행장에 나가는것과 같은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메디엔의 부인은 그런 풍습에서 벗어나 비행장에도 나와 위대한 수령님을 마중하였고 그이를 환영하는 연회에도 참가하였다.

부메디엔의 부인은 그때 처음으로 행사에 참가했다고 한다.

◦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좋아할 때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를 할 때 녀성들이 따로 앉아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하시는 도중에 두 손가락을 펴들고 흔들면서 혀로 소리를 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는데 부메디엔은 그것은 좋다

는 소리라고 하였다.

녀성들이 혀로 꾀꼴새소리보다 더 류창한 소리를 내였다.

그런 소리를 내는것은 녀성들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좋아할 때 하는 풍습이라고 한다.

천불교신자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항일혁명투쟁시기 내도산마을에 살고있던 천불교신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내도산지구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오기 위하여 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는 거의 조선사람들만 살고있었다. 내도산마을에서 사

○ 알려주신 토막상식 ○

내도산

《백두산에서 중국쪽을 보면 내도산이 보입니다. 내도산은 력사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내도산이라는 이름은 수림속의 섬같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사람들은 내도산이 젖꼭지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그것을 내두산이라고도 합니다.》

는 조선사람들은 거의다 천불교를 믿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천불교는 내도산마을에 사는 조선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다, 내도산마을사람들은 하늘에서 99명의 선녀가 백두산천지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에 기초하여 내도산꼭대기에 나무로 99칸짜리 절간을 지어놓고 1년에 두번씩 거기에 가서 기도를 드리군 하였다, 천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 녀자 할것없이 다 절간에 올라가군 하였다, 기도를 드리는 날에는 절간에서 무엇을 두드리군 하였는데 그 소리가 덩덕궁덩덕궁한다고 하여 그 절간을 《덩덕궁》이라고 하였다, 천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다른 마을사람들과 하지 않고 자기 마을사람들과만 하게 되여있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목사 김성락

어느해인가 미국에서 사는 교포 김성락목사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그와의 오찬석상에서 식전기도를 드리도록 권고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김성락목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런 권고를 하시는데 대하여 몹시 놀랍게 생각하였다.

공산국가의 주석이 어쩌면 종교인의 식전기도에까지 관심을 돌리는가, 이것이야말로 수수께끼같은 일이 아닌가고 그는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성락목사에게 식전기도를 드리도록 권고하신것은 그 무슨 생색을 내자는것도 아니였고 우리가 종교와 종교인사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것을 선전하자는것도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만 손님을 손님답게 대하고싶은 주인으로서의 례절과 인생을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로 살아온 그가 조국에 와서도 구속을 받지 않고 교도를 지킬수 있게 하자는 순수한 인도주의적감정을 가지고 그런 권고를 했을뿐이다라고 하시였다.

김성락목사는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회장이며 《한국인교회련합회》고문이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해외한국인련합》의장단 성원이였다.

그로 말하면 미국에서 종교교육을 받고 오래전부터 미국에 영주하면서 미국종교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미국정객들속에서도 적지 않게 알려져있었으며 조선사람으로서는 미국당국으로부터 년봉금을 타는 유일한 사람이였다.

위인의 식견

(증보판)

집 필 김정란, 리선녀

편 집 김철남 장 정 손명희

편 성 정향애 교 정 김은정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2월 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2월 10일

ㄱ—05478ㄴ 값 55원